

중국을 주께로

98/3·4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남(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 이동화/ 발행일 1998. 2. 20/ 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50호



특집/ IMF시대와 중국선교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교회 현주소/ 중국 기독교협회와 미국 남침례회의 '이중접근전략' 논쟁

중국은 지금/ 양강(陽江)의 불경기가 낳은 낮과 밤

중국의 관문도시/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중국동향 초점/ 금융위기, 중국에는 없는가?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기 원합니다.

희어진 밤,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논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24,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십시오.
TEL: 02)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시십시오)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이동화

IMF 한파가 교회와 선교사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교회는 교역자 사례비를 몇 주 늦추어서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낯선 땅에서 고국에서 보내 온 일정한 후원비로 생활하며 사역해야 하는 선교사들에게 환율인상은 크나 큰 시련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선교도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 이는 몇몇 한국교회의 선교정책과 물량적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빗대어 한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선교정책이 선교비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해 왔고 선교사 역시 많은 선교비를 모으면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 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종의 자세로 선교를 감당해 왔는가, 혹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는가?를 말이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려할 때 그의 소유를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 준다. 어떤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난다.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나는 시나리오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많은 돈을 맡았고, 누가 큰 돈을 벌어들였는가 아니다. 그분의 관심은 누가 주어진 재능과 물질로 충성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종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하는 점이다.

요사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선교사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귀국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오죽답담 했으면 들어올 결심을 했겠는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의 있고 없음으로 선교사역을 결정 짓게 해서는 안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라(히 10:34)는 말씀이 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낮고 영원한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한 산업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의 산업에 너무나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의 선교가 물질사용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즈음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정책과 선교사들의 의식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면 한다.

특집 / IMF시대와 중국선교

- 8 IMF파고를 넘어, 선교의 항해를 계속하자 양창삼
13 물질에서 말씀으로, 줄에서 나눔으로, 내려 봄에서 마주 봄으로 유관지
16 중국선교 거듭나기 산파역 IMF 인병국
21 IMF의 현실에 직면한 현지 선교사들의 대처 반응 강성광
24 IMF로 잃는 것과 얻는 것 민요섭
28 경제 위기는 선교 위기인가? 석은혜

선교나침반

- 4 선교일언 선교사와 교회의 상호협력과 그 기능은? 김태연
32 디아스포라 한국인 텐진(天津)으로 이주한 한국인 진석안
38 중국교회 현주소 중국 기독교협회와 미국 남침례회의
'이중접근전략' 논쟁
41 중국 도시선교 복음으로 다가가 본 베이징의 이방인
-농민 개체호 한수아
46 중국의 관문도시(1)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편집부
50 궁금합니다 중국에 가서 상담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석은혜

헌신의 삶

- 52 중국 교회 체험기(13) 내 양을 먹이라 쉬우하오(徐武豪)
56 현지에서 온 소식 살얼음판 위를 걷는 중국의 사역 박은정
58 중국 성도 간증 상한 갈대 무이(慕儀)

인물·역사

- 62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2) 교회 발전과 교육에 공로 세운
박상순 선교사 김교철
66 중국선교의 발자취 청다오(靑島)를 떠나라 방지일
68 중국 교회 순례(9) 고립과 약함과 싸우는 청하이(靑海)성 교회
69 중국선교사 행전(4)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폴린 해밀톤 안정숙

중국은 지금

- 76 중국은 지금 양장(陽江)의 불경기가 낳은 낮과 밤 황리리(黃麗荔)
89 중국동향 초점 금융위기, 중국에는 없는가? 연구부

기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 84 윈난성의 소수민족(II)-하니족, 라후족 김중하



1998년 3, 4월 통권 제50호

중국을 알자

71 중국·중국인 '민공(民工)'의 공로

100 중국단기선교 여행코스(6) 뤼양(洛陽)·정저우(鄭州) 유재승

104 중국 문화 중국의 전통 가옥 이런 집, 저런 집 이민선

자료실

120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의 몇 가지 중요문제에 관한
중공당중앙위원회 결의(1)

발행인 칼럼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이동화 1

목상의 샘 복종 55

시사만평 인구도 '만만다'(慢慢的) 궈스창(郭士廠) 82

중국인의 유모어 摸話(남의 말을 줍다니!) 97

선교 중국어 那樣熱心于信耶穌呢?(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까?)
후성도 98

중국어 복음성가 我要歌頌聖名! (나는 찬양하리라!) 99

세계선교 동향 제자 양육과 성령 충만으로 뚫는 일본 선교의 길 김용국 107

선교 다이제스트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110

신간 도서 중국소수민족 종교신앙 외 2권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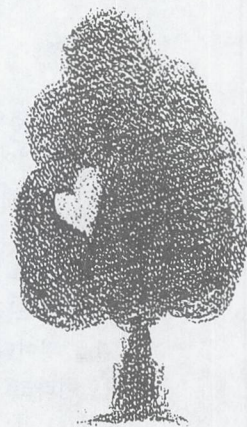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편집부 112

선교단신 118

선교복덕방 일꾼을 찾습니다 119

별채부록 '중국을 주제로' 기도칼린더(98. 3,4월)

표지설명
할머니와 어린아이.
이 두 사람의 소망은 무엇일까?
할머니는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어린아이는 앞으로 살게 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중국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세대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선교사와 교회의 상호협력과 그 기능은?

김 태 연



는 교회에 위임한 것이다. 바울사도의 선교는 안디옥교회를 홈베이스(Home Base)로 하여 출발하였으며, 그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 가능한 한 지역교회가 설립되도록 도왔고, 한 단계의 선교가 마무리 될 때마다 교회에 돌아왔다. 그는 파송한 교회의 선교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다양한 기능 중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기능이다.

‘선교’ 하면 많은 선교단체가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 기능에 불과하고 교회가 핵심적 증추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보면 안디옥교회가 선교형의 교회로서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행 13:1~3).

어느 무명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의 전선에서는 전선에서 싸우는 한 명의 군인을 위해 후방에서 적어도 아홉 사람이 후원을 한다”

선교사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사와 같다면, 우리 성도들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후원군과 같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선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본질적으로 11명의 제자와 공동체가 대표하

안디옥교회의 모본(행 13:1~3)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제1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으나 세계선교에 관한 한 안디옥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최초의 교회이다. 주님은 선교적 관심을 가진 이 교회를 쓰셔서 초대교회의 세계적 확장과 부흥을 가능케 하셨다. 이 교회가 세계선교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교회적 특징을 살

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안디옥교회는 민족적, 계층적, 인종적 편견을 극복한 교회였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교회의 지도자 계층을 면면히 살펴보면, 귀족과 평민,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하게 전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교회가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 민족의 담, 계층의 담, 계급의 담, 인종의 담을 헐고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 안디옥교회는 영성이 살아 있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적 영성(Spirituality)은 금식과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었다.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며 나는 죽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열린 공동체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섬기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모범을 보임으로써,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작은 예수)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영성이 살아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다.

셋째로, 안디옥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교회였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안디옥교회와 교인이 보여준 순종은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선교의 필요성을 알고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는 데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선교형 교회가 되어, 예배, 교제, 교육, 전도라는 교회의 4대 기능이 모두 선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안디옥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희생의 본은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다. 보통 희생이 아니다. 담임목사가 교회성장의 95% 이상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그를 내놓은 것이다. 좋은 선교사를 보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지역교회 선교 개관

지역교회는 선교사를 배출하기까지 선교사를 후원,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사(자생 선교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배우게 될 것이다. 서울의 강남지역에 58% 정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한다.

IMF시대 이후 선교헌금이 줄어들고 선교사의 후원금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지역교회가 선교 각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선교확산과 선교정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선교선전문구, 선교영화, 선교사 초청 메시지, 선교위원회 주최 각성대회, 구역과 선교사의 자매결연, 선교형 교회 방문, 선교기도회 그리고 일일선교여행 등이다. 한국 교회의 성도와 선교사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이다. 선교사가 선교단체나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 한국 선교사들은 우쭐거리를 잘하고, 선교지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역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훈련(Discipline)과 감독(Direct) 그리고 분배(Distribute)의 3D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교를 위해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똑같이 중요하다. 주고 받기(Give and Take)의 원리에 의해서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주고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 합의하에 선교사를 제1단계(지역교회 자체훈련)를 거쳐서 제2단계(선교단체를 통한 훈련)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잘 되려면 신학정책, 행정정책, 재정정책, 위기정책 그리고 자녀정책에서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독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선교사가 탈선하지 않는다. 선교사와 지역교회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교회에서 성도가 목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감독할 수 있는 교회행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선교사 행정에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배에 대해서 딘 와이어브랙트(Dean Wirebract)은 이상적인 선교지행정 교회의 분배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교인 중 10%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둘째, 교회예산 중 10%를 선교비로 책정한다.

셋째, 교인 중 10%가 타문화권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넷째, 교인 중 10%가 장기 혹은 단기 선교사로 나가거나, 그 길을 위해 준비한다.

다섯째, 선교적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흔히 선교사의 사역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가 소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지만 지역교회와 상호협력할 수

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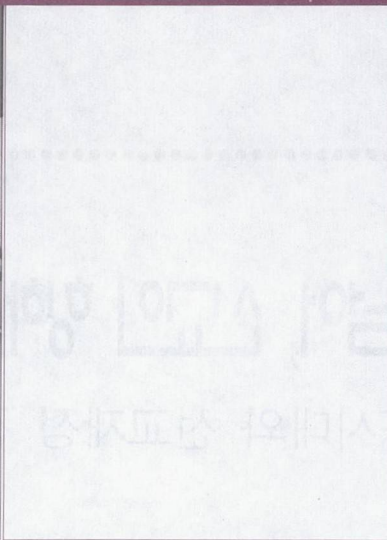
계속적인 상호협력과 후원

IMF시대에 선교사와 교회의 상호협력이 잘되어지면 선교사가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성육신적인 모델(Incarnational Model), 또는 동일시의 모델(Sympathizing Model), 그리고 섬김의 모델(Diakonia Model)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선교사가 선교와 순종의 책임으로 도덕적 승리, 육체적 안전 그리고 사역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다(골 4:2).

그 외에도 재정의 후원(빌 4:15~16), 그 밖의 물질적 후원(눅 8:2~3, 롬 16:1~2), 방문의 후원(빌 2:19, 엡 8:21), 편지의 후원(갈 6:11), 선교동역의 후원(롬 16:3~4) 그리고 귀향의 후원(행 14:26~28)이 바로 상호협력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유기체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의 선교위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디옥교회의 모본을 실천해야 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인 것이다. 우리는 안디옥교회가 보여준 선교적 모본을 따라서, 선교사는 교회와 상호협력하고, 교회는 선교사와 교회를 살리는 상호보완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김태연/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장,
지구촌교회 협동목사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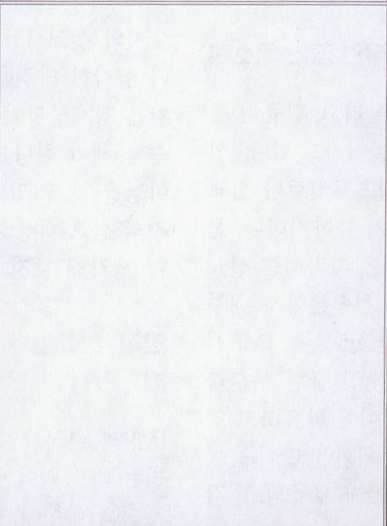
IMF시대와 중국선교

IMF(국제통화기금).

우리 국가 전체를 강타한 위난의 해일은, 그 어느 곳보다도 선교 현장을 강도 높게 덮치고 있다. 타자의 뜻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구석 구석의 구조조정이 중국선교의 전반에도 밀려오고 있다.

IMF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 뜻을 겸손히 헤아리고, 우리가 끝까지 수행해야 할 지상명령인 중국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본다.



IMF파고를 넘어, 선교의 행해를 계속하자

-IMF시대와 선교재정 정책-

양 창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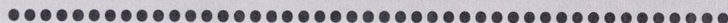
IMF시대의 도래와 선교현장의 급한 목소리

IMF 한파로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환율이 폭등하자 선교계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다. '선교행정비를 감축한다', '선교프로젝트나 선교여행을 동결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고, 교회에 따라서는 선교후원을 중단하거나 선교사 철수론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교단 선교부는 IMF시대를 맞아 해외선교비의 불요불급한 부분축소와 선교정책 재검토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외환사정이 악화되면서 외환을 많이 들여 진행하는 여러 선교프로젝트가 보류되고, 각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매년 수백 명씩 파송하던 단기선교도 축소 또는 중단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현지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위기로 후원액수가 줄어든데다 환율급락으로 해외에서 받는 후원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사는 크게 국내교회의 재정후원에 기반을 둔 선교사와 해외 한인교회의 재정후원에 기반을 둔 선교사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전자가 입고 있는 타격은 후자의 경우보다 더 심하다. 게다가 선교사 경력의 짧은 선교사들은 경력이 많은 선교사보다, 개발지역의 선교사보다 미전도종족 거주지역과 같은 오지의 선교사들은 다른 사역지의 선교사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역지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교 재정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선교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필요하다

IMF의 한국개입은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어 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IMF가 한국정부에 대해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IMF 한파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다 한국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 교회 및 그 선교정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곧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IMF사태를 맞기 전 우리 나라는 거품경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경유착으로 부(富)는 편중되어 있었고, 생산성은 낮으면서 인건비와 지대 및 부동산값 등은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사람들은 금근과 절약은커녕 사치와 향락, 퇴폐 등 물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면서 많은 돈을 해외에 뿌렸다. 그 사이에 우리의 자만과 허세는 커져만 갔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도 거품이 많았다. 교회성장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교인 부풀리기에 앞장섰다.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는 신학생들을 파견하여 이를 확인시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지 않았으면서도 단독으로 파송한 것처럼 선전하는 일도 일종의 거품이다. 교회지도자들은 귀족화되었고, 교인들은 세속화되었다. 연휴만 되면 교인수가 줄어드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고, 급기야 한국 교회 성장정체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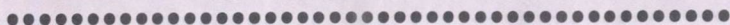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IMF시대를 맞게 되었다. IMF 시대는 사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올 것이 온 것 뿐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찌나 하고 조마조마해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IMF라는 매를 드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IMF를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신 하나님으로

알고 이 기회를 변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IMF로 불안과 공포,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IMF 시대는 교회 속에 있는 과거의 많은 거품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로베이스 경영전략을 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 실제로 생산성 있는 교회운영과 선교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교회의 구조조정은 선교적 차원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단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막연한 차원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과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열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회가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해도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는 교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교단과 교회들은 어려운 경제난국에도 하나님의 사업은 줄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최소한 선교사 철수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약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운동은 강도 높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선교정책도 과거의 타성을 반복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로베이스 전략을 택해야 한다.

IMF 사태는 영적으로 볼 때 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기회이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동안 선교사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 선교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한국 교회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의
사명완수를 위한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한국 교회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의 사명완수를 위한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요한 것이 선교 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다.

다양한 선교 재정정책의 모색

1) 물질관의 바른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성했을 때 개교회 확장에 치중했으며, 선교는 한낱 치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써드리지 못한 것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제는 바른 물질관을 회복을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 복을 허락하시도록 올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절약을 체질화하고 국내외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선교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자물선교정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한국인 선교사의 파견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교현지 교회의 자율성과 자립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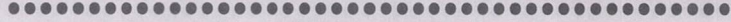
을 고양시키고, 현지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인 선교사의 파견은 초기에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초점은 한국인 선교사의 파견보다는 현지인 목회자 양성에 뒤야 한다.

3) 장단기 지원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각 교단과 교회는 선교재정을 단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필요와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 비전이나 운영계획이 부족하다. 그 부족은 특히 재정확보와 운영에서 특이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선교자금확보와 운영은 보다 거시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IMF 시대에 들어서 더욱 느끼는 것이지만 선교에 관한 한 재정은 앞으로 달러로 계산하고, 또 달러로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달러 등 주요 국제통화로 현금도 하고, 운용을 하면 환차에 따른 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선교의 안정과 국제화에도 도움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위협에 빠진 선교사들을 해외의 한인교회들이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담당



해왔던 선교사역을 미국이나 유럽의 한인교회들이 접수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교회별 지원방식도 있지만 한 가정이나 몇 가정이 한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인교회의 이러한 지원은 교포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한인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해왔지만 국내교회보다 관심과 열의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한인교회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선교의 역할분담 및 조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교회도 환율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른 여러 방도로 선교사를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물품 또는 물자 보내기이다. 각종 의약품, 식품, 의복, 문구 등 선교사역에 필요한 여러 물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4) 선교행정도 효율화되어야 한다

각 교단의 선교부도 자체적으로 선교행정을 절감하여 그 절감한 만큼 실제로 선교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산화 등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라는 것은 아니다.

각 교단은 일부 선교사들이 대형 프로젝트의 선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후원교회의 선교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해 물의를 빚었음을 인식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프로젝트 선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시행정식 선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목적도 뚜렷할 뿐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지출도 투명해야 한다. 선교부의 감독소홀이나 통제력 약화로 선교사역 전체가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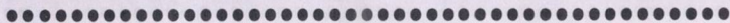
한다.

5) 선교사 자신의 각성과 긴축도 요청된다
선교사 자신의 각성과 긴축도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기만 했지, 그 선교비가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선교사의 인격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도 선교비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사용에 있어 무엇보다 효율적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긴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선교 자체의 순수한 목적보다,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평소 자녀들을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내는 등, 선교사로서의 기회를 자신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활용하는 데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 선교사의 자기향상이나 가족의 안녕이 중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여건에 불문하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 선교사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처럼 보기에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IMF 시대에 즈음해서 불필요한 여행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선교사 사역과 생활 전반에 대한 재정긴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내에 외화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은 선교비를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써 경제회생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6) 선교사역을 미래화한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우리의 선교도 인터넷선교시대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 나



라에 인터넷선교학회가 있고, 인터넷선교사를 배출하며, 인터넷선교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사람이 가는 선교가 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시공을 초월한 정보 고속도로상의 전도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교단이나 교회도 인터넷선교, 정보고속도로선교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

지금까지는 선교사를 무조건 존경하고 선교사역이라면 어떤 의문을 달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고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너무 권위주의적이며 말씀의 선포도 기복주의적이고 물량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선교지로부터 지탄을 받고 떠날 것을 요구받는 실정에 있다. 이런 소식은 그동안 한국 선교가 비정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선교사들의 권위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복음의 순수성으로 돌아오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사이비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빌미로 사기를 자행하는 일도 있어 선교에 먹칠을 하는 것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선교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반면 사이비 단체들을 가려내고 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바르게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한국 선교와 세계화

우리는 IMF 위기를 한국뿐 아니라 한국 교회

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특히 선교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선교체질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정책이 보다 세계화됨으로써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변혁에 앞장설 때 다시 일어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MF 시대라고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특히 선교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의 파산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으로 파산시키는 일이다. 그 일만은 IMF를 기대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교회 발전의 모델로 삼아왔다. 이렇듯 주목받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교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에서 여러 모로 힘을 쓰고, 교회도 고통에 동참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일으킬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계를 향한 우리의 선교비전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양창삼/ 목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물질에서 말씀으로, 좁에서 나뭇으로, 내려 봄에서 마주 봄으로

유 관 지



이 글은 지난 1997년 12월 15일 저녁 7시 이수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중국어문선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 설교를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15~17)

IMF 한파로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가 위축되고 신음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타문 화권 선교는 타격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비는 모두 달러를 기준으로 송금되는데, 환율이 삼시간에 배로 올랐으니 휘청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위에 현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한국 교회의 타 문화권 선교는 설상가상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선교사들에게 지급하던 원화의 액수를 고수하면서 그것을 달러로 바꿔 송금하고 있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주던 협력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비 지원을 중단한 교회들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현지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선교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선교가 제일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에는 한국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중국에 가거나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내면 상당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전의 반 정도밖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IMF 한파가 중국 선교의 모습을 성숙한 것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 중국 선교를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물질 중심의 Money Mission의 성격이 강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 것을 또한 부인하지 못한다. ‘쌀 신자’(Rice Christian)들이 양산 되었고, 교회가 분열되었다. “돈은 독(毒)이다”라는 은어가 생겼을 뿐 아니라, 한때는 “돈 벌려면 간증하는 법 배워 서울 가자!”는 말까지 돌았다. 행정 당국자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외화 유입의 체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제는 외화난(外貨難)으로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돈 중심의 선교를 하던 분들은 도태되고 말씀 중심의 선교를 하는 분들은 굳건하게 중국 선교 현장을 지킬 것이다.

둘째, 주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세를 나누고, 신앙 체험을 나누고, 나가서는 선교의 사명을 나누게 될 것이다. 동반 선교(同伴宣敎)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내려 봄에서 마주 봄으로 위치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그동안은 물질적인 우월감, 교세의 우월감, 풍성한 신앙 자유 향유의 우월감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자리에서 중국 교회를 내려다 보는 것이 중국 선교의 자세였었다. 중국 교회 성도나 지도자를 만날 때 그분이 말쑥한 차림과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웬 일인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이것 바라!’ 하는 느낌을 자연적으로 가졌다.

한번은 중국에서 온 신학생이 책들을 도움 받고 싶다가에 기독교 서점으로 안내한 일이

있었다.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간증집이나 설교집 류(類) 몇 권을 살 것으로 알았는데, 영어 원서류들을 잔뜩 뽑아드는 것을 보고 이중으로 당황했던 일이 있다. 이중으로 당황했던 이유는 첫째는 그만큼 돈을 준비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우월감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보며 교제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한국 장로교가 산둥성에 세 분의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1913년에서 시작된다. 제1기의 끝을 어느 때로 잡아야할지는 다소 애매하다. 1940년대 초반 이후에는 사회 정황 때문에 선교가 활성화 되지 못했으니까 이 때까지를 잡아야할지, 아니면 선교사가 현지에 있는 한 선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니까 방지일(方之日) 목사님이 중국에 남아 계시던 1957년 까지를 잡아야할지, 아니면 장죽섭(張竹燮) 목사님이 북경에서 귀국하신 1970년까지를 잡아야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장죽섭 목사님의 중국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분은 평북 용천 출신의 감리교 목사로서, 중국 대륙 동북 지역과 러시아 령(嶺) 원동 지역에서 동포들 대상으로 선교하다가, 1940년 북경에 조전기독교회를 설립하고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예배를 인도했다(동포 대상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중국 선교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도 할 수 있다).

제2기는 중국이 공산화되어 1970년대 후반에 개방 정책을 취할 때까지로 휴지기(休止期)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IMF 한파로 중국 선교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때를
중국 교회 제3기의 세 번째 단계로 보고 싶다
이것은 중국 선교의 내면화, 성숙화를 의미한다
IMF 한파가 중국 선교에 주는 의미는 이와 같이 크고 깊다

제3기는 1979년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중국 교회와 접촉이 가능해진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제3기는 다시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79년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이다. 이 때는 중국 선교가 일종의 지하 특수 선교의 양상을 보였고 아세아 방송이 주요 채널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중국어문선교회가 태동하던 1980년대 말 -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오성홍기(五星紅旗)가 서울 하늘에 휘날리고, 이어 88올림픽이 열리고 한중 수교가 이뤄지던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이 때부터 중국 선교가 보편적인 일반 선교의 하나로서 모습을 바꿨고 선교의 채널이 다양해졌다.

바로 이 IMF 한파로 중국 선교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때를 중국 교회 제3기의 세 번째 단계로 보고 싶다. 이것은 중국 선교의 내면화, 성숙화를 의미한다. IMF 한파가 중국 선교에 주는 의미는 이와 같이 크고 깊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인사들은 언젠가는 중국의 경제력이 한국을 압도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 때에 대비해서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좀더 겸손할 것과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해 왔으며, 선교 정책에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 시기를 대개 2015년으로 보고 있었는데 IMF

한파는 이같은 예상을 십여 년 당겨 주었다.

중국어문선교회와 같이 신실한 선교 단체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이 선교회의 수고와 내실성에 대해 책임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난달까지 극동 방송을 섬기며 창원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창원 극동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엘리트 재중동포 한 분(중국에서 순교에 가까운 죽음을 당한 교역자의 딸이며, 현재 국내 어느 신학 대학에서 선교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 받아 “저는 한국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중국을 주께로』라는 잡지가 수준이 높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던 일이 있다.

중국복음선교회와 더불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활동의 쌍두 마차격인 중국어문선교회의 창립 8주년을 축하하면서 IMF 한파를 통해 새 전기를 맞이한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 활동을 더욱 바람직한 활동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부족한 설교를 마치고자 한다.

유관지/ 목양감리교회 담임 목사

중국선교 거듭나기 신평역 IMF

인 병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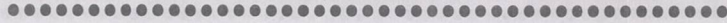
금번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IMF의 금융신탁 통치는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일 뿐 아니라 크신 긍휼을 입혀주심이다. 한국 교회의 저간의 신앙 행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전쟁으로 징계함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IMF의 금융신탁통치를 받게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IMF의 금융신탁통치는 정부의 무능과 무사안일, 정치권의 부패와 정경유착, 재벌의 전횡과 부유층의 호화사치와 국민적 과소비, 도덕적 타락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세상과 차이가 별로 없었고,

부동산 투기에 한몫 하였으며, 교인들 또한 대형 사고와 부패 사건들에 예외 없이 개입되어 있었다. 역대하 7:14을 유추해보면 한국이 IMF의 금융신탁통치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교회의 죄악 때문임이 자명하다.

선교는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영성, 헌신,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선교는 수행될 수 없다. 영성과 헌신과 국력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에 이 중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IMF의 금융신탁통치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치명타를 가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동시에, 중국에 요청되는 선교 사역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IMF는 한국 교회의 신앙 행태와 중국선교의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IMF의 금융신탁통치는 한국 교회 전반을 태풍으로 강타하고 있다. 한국 교회 전체가 IMF 태풍에 강타당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주도하는 중국선교가 온전할 리 없다.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타격보다 중국선교가 당하는 타격은 더 극심하다.

IMF가 중국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 선교열이 더욱 식어질 것이며, 선교비의 격감을 가져올 것이다. 사역비는 물론 생



활비 조차도 막막한 선교사들은 심각하게 철수를 고려하거나 철수를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선교는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특히 조선족 선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격 중국선교인 한족 선교와 소수민족 선교는 이제 어학 준비를 마치고 시작해 보려 하거나 방금 시작한 시점에서 중국선교의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축되고 있는 중국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째, 중국선교는 중단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중국선교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의 사역이다. 중국선교의 주역은 한국교회가 아니라 중국 교회이다. 중국 교회는 영성이나 숫자적으로는 생동하는 교회라 할 수 있으나 사역자 양성, 교회 운영과 목양 등에 애로점을 갖고 있다. 중국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될 때에 중국 복음화의 성취는 앞당겨지고, 회교권과 인도 등 세계 복음화도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중국선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 교회가 잠시 영적,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중국 선교의 사명은 계속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할 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둘째, 중국선교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중국선교의 목표는 중국인을 복음화하고, 중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삶을 회복하며 사회와 문화까지도 복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교회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중국선교의 일차

적인 목표여야 한다. 중국선교의 2차 목표는 중국 교회가 타문화권(회교권, 인도 등)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 한족 가정교회는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실제로 준비하는 교회들도 있다.

셋째, 중국선교의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에서 행했던 목회와 유사한 사역이 한족과 소수민족 선교에는 합당하지 않다. 중국 교회를 상대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목회적 접근을 조선족 교회가 거부하거나 한족은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필자가 아는 선교사들이 조선족 교회에서 목회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선교사가 배척을 당하였다. 한국 교회가 조선족 교회에서라도 목회적인 접근을 하면 조선족 교회의 사역자들은 할 일이 없다. 설사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한국 교회의 고용원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목회일 수 없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조선족 교회에 목회적인 접근을 하는한 조선족 교회는 성숙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물며 조선족 교회에서도 되지 않는 방법을 한족이나 소수민족 선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선교는 현지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자기 방법을 갖고 중국선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현지의 실정과 중국 교회의 필요에 부응할 때 제한된 자원으로 중국선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IMF의 금융실태통치 아래서 어떻게 중국선교를 수행할 것인가?

먼저 중국선교 전반에 대한 반성과 검토를



한국 교회가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중국선교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함께 하시며
성경적인 삶을 회복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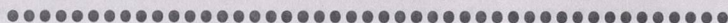
하고 위기의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 위기의 때에는 조건반사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서 지난 과거의 사역을 점검하고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선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첫째, 중국선교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선교의 동기에 있다. 중국선교의 동기는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 순종함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중국선교를 목회를 활성화하고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선교사들이 중국식으로 중국 선교를 하지 못하며 그 결과 실패와 시행착오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중국선교에 합당한 전략이 수립되고, 좋은 기회가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선교 동기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중국 선교를 순수하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중국선교의 앞날은 실패와 시행착오의 연속일 뿐이다. 만약 선교를 통하여 목회에 활력을 얻고 교회 내

정치에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선교지를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접근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능한 것이 중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선교가 허용된 곳이라도 종교식민주의적 동기를 갖고 자기 교파를 이식하고, 한국식을 강요하는 것은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야기시킨다.

한국 교회가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중국선교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함께 하시며 성경적인 삶을 회복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다른 동기에서 중국선교에 참여하면 선교비와 인적 자원은 그대로 드리면서도 선교는 선교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둘째, 중국선교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중국선교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선교사들의 자질 부족이다. 자질이 부족한 선교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다. 선교사들이 장기 거류증을 취득하고 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고비용이 드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있는 수많은 사역자들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도전에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문제이다. 선교사들의 신변의



안전과 사역상의 보안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선교 협력이 되지 않음으로 중복되는 사역과, 과다 경쟁, 선교비의 과다한 지출도 문제요, 현지 교회를 주장하고 통제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프로젝트 위주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과다한 선교재정이 쓰여지면서도 중국 선교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중국선교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며 중국선교의 구조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고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셋째, 선교사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은 역량을 갖춘 선교사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 선교사들이 넘쳐나기에 현지 교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선족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자질이 부족한 선교사들은 과감하게 철수시켜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현지 교회 사역자들은 한국 선교사들과 목사들의 철수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국내의 경제 여건이 비교적 괜찮아서 문제를 알고도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과감하게 철수시켜야 한다. 철수하는 선교사들의 진로가 문제가 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소수 정예로 꼭 필요한 역량있는 선교사들만 조선족 교회를 섬기며 조선족 교회와 더불어 동역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족 선교에 헌신하던 선교사들 중에 한족 선교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한족과 소수민족 선교로 선교의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베이징, 선양, 옌지 등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선교사들이 자기 사역의 현장을 찾아 흩어지게 해야 한다. 지금 있는 곳에는 극소수의 선교사들만 있어도 필요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현재는 선교사들의 구조조정만이 중국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넷째, 한국식 선교에서 중국식 선교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한국식 선교를 고집하고 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한 어느목사는 한국에서 개척 교회를 하는 식으로 중국선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 보았는데 그런 길은 없다. 만약 한국식으로 중국선교를 한다면 중국을 복음화하려는 비전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선교한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중국식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 중국인들은 결단코 한국 교회가 그들의 교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허용치 않을 뿐 아니라 중국 교회(가정교회)가 용납지 않는다. 중국식으로 중국선교를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선교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중국식 선교는 중국 교회가 주도하고 한국 교회는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섬기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구축되면 중국식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아주 적은 선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국에 확장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중국식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국내 사정상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중국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불가전적 교회의 건립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선교비를 모금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예배당 있는 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거나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선교의 목표로 한다면 중국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삼자교회만 가능하고 가정교회는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에 필요한 예배당을 한국 교회가



다 지어줄 만큼 여유가 한국 교회에 없다. 또 한 여유가 있어서 예배당을 지어준들 그것이 중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중국에는 예배당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소라는 말도 있다. 주님은 가건적 교회보다 불가건적 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국인들이 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삶을 회복하며, 선교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섯째, 중국 교회를 섬기는 동역선교를 추구해야 한다. 동역선교는 한국 교회나 선교사들간의 동역을 말하기보다는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동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과거 제3세계에서 행했던 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주도하는 중국선교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과도한 선교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주도하는 중국선교는 중국에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중국선교의 역사는 해외 교회가 주도하는 중국선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교회와의 동역은 중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그들의 요청에 겸손히 부응하는 것이다. 동역선교를 추구하면 중국선교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고, 선교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역선교만이 IMF 한파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선교에서 한국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일곱째, 비거주 선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거주 선교사를 소수정예화하고 비거주 선교사로 사역의 방법을 전환하

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에 부담받은 것은 지리적으로 근접한다는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비거주 선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선교 전략상 요청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비거주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 있거나 한국 교회의 정서가 비거주 선교사를 신통치 않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IMF는 한국 교회에 비거주 선교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비거주 선교를 추진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중국선교의 대안이다. 비거주 선교는 잘만 하면 선교비의 절약,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선교사의 재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순 기능을 갖고 있다. 현지에서 철수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역량있는 선교사들을 활용하면 당장 시행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점들도 있지만 비거주 선교를 수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IMF의 한파가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교회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중국선교에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교회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공황을 벗어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스스로 중국선교의 문제점들을 고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IMF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명하시는 것이기에 힘들고 괴롭지만 승복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중국선교에 헌신하고 중국 교회와 더불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인병국/ 한동교회 목사

IMF의 현실에 직면한 현지 선교사들의 대처 반응

강 성 광



지난 11월 말경 중국의 한 지역에서 일주일 간 사역을 하는 동안 극심한 영적 전쟁(현지 사역자들을 분열시키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사히 끝마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며칠간 지도자 훈련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막간을 이용하여 집에 전화하여 안부를 묻던 중 한국의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여 IMF에 구조 요청을 했고, 달러 환율

은 1,300원대를 상회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국인 한 형제도 그 소식을 현지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당신 나라가 이제 실제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걱정하는 투로 말해주었다.

순간적으로 나의 마음은 내리누르는 큰 염려와 부담으로 상당히 건디기 힘들었다. 그렇치 않아도 과중한 사역으로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소식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그 상태로는 계속 사역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가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 성령님은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것은 2000년 선교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현재의 선교 상황이 세계 선교의 주도권과 중심점이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3세계권 국가이면서도 4~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선교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한국 교회의 본격적인 세계선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여가서 주저앉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런 확신에 힘을 얻고 중국 사역자들과 함께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 며칠 동안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심각하게 치달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목도하면서 염려와 답답함으로 보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확신이 들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었다.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큰 충격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母)교회의 반응, 그리고 일부 협력하는 교회들의 지원 중단 등을 서로 이야기하며 불안해했다. '이런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때일수록 선교사들이 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제안하였고, 모두 함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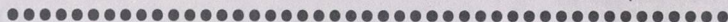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서 실제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어려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와 더불어 우리가 최대한 얼마까지 절약하고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심지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경우까지 계산해보니, 미화 500불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파송 교회에서도 IMF 사태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할 테니, 아예

솔선하여 선교비를 줄여달라고 연락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연락하기도 전에 모 교회에서 통보가 왔다.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이 느꼈다. 모교회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부득불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고통 분담을 권면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 한 교회에서 전임 선교사(전액 지원)만 다섯 가정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로서 한겨번에 선교비가 100%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후원교회 선교사의 세계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식지 않는다면 후원교회와 선교사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더 깊이 연합되고 더 깊이 선교에 헌신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충격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에게 더욱 성숙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선교사들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면 대체로 일 중심, 즉 프로젝트 선교에 상당히 치우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곳 현지 사역자들도 한국의 경제 상황과 개개인들의 생활이 매우 빠듯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비를 내기도 하고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등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근래까지 내가 약간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던 한 지역의 전임 사역자는 보장된 수입은 거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자기에게 보내던 지원금을 이제 그만하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이 단순히 한국의 경제 회복과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줄어든 대신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 지원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라고 자진해서 나에게 요청해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보다 오히려 깊고 성숙하고 헌신적인 관계 가운데 사역에 동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 사역 가운데 전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호주머니가 두둑했을 때보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부유해짐을 느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전보다도 더욱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의 부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후원교회와 기도 동역자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하게 할 방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더욱이 요즘 한국 교회가 전보다 더 기도에 불타고 있다는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 많은 기도 모임과 매일 선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기도 후원자들이 일어나 강력한 기도 지원으로 더욱 능력 있는 사역과 부흥이 일어나길 소원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이 단순히 한국의 경제 회복과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줄어든 대신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 지원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의 경제도 더 빨리 회복될 것이고 선교사들도 더욱 힘을 얻고 각 선교지마다 한국 선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사역의 건전한 활력과 진정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 교회에 한국 교회 선교가 돈의 능력이 아닌 진정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가 잠깐 교만하여 잃을 뻔한 세계선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 우리 모두 이런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정진한다면 IMF의 시대의 도래는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에 큰 축복이 되는 진정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강성광/ 현지사역자, 본지 편집위원

IMF로 잃는 것과 얻는 것

민요섭



헛된 우월감

「요즘 동구라파나 중국, 동남아에 여행 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으스대며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의 한 달 월급이 얼마요?” 좀 배웠다 싶으면 “1인당 GNP가 얼마나?”는 것을 꼭 물어 본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하다는 듯이 동정심까지 보인다. 집값 땅값이 우리 기준으로 형편없이 싼 것을 알고는 “아까운 물건 놓치고 간다”고 복부인식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돈의 척도로만 따지는 ‘이코노믹 애니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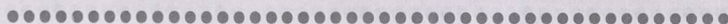
지, 역사와 문화, 삶의 질보다는 GNP의 힘만 믿는 국제적인 줄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자문들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2년여 전인 1996년 5월 29일자 조선일보의 태평로 칼럼에 실렸던 ‘선진국 환상’이란 글의 일부이다.

요즘 같은 IMF 시대에서 볼 때 다소 향수어린 내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동안 해외 여행을 했던 우리 나라 사람들 모두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등지에 여행을 갔다가 기념품이 될 만한 물건을 한두 개 사가지고 온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거 얼마주고 샀을 것 같아?’ 하며 은근히 우리 원화의 위력을 내심 자랑하던 경험을 한두 번 정도 갖고 있을 것이다. 노골적으로야 하지 않았더라도, 은연중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진 나라와 우리를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져든 적은 없었는지...

돈 많은 선진국?

신문에서 지적한 대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인들 대다수가 ‘선진국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크리스천



들 역시 해외선교를 함에 있어서 은근히 '선교 선진국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에 선교 하러 가서 '경제 선진국 환상'과 '선교 선진국 환상'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빠져든 적은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다고 생각해서, 선교할 때 은근히 돈의 위력을 앞세운 적은 없었을까? 돈이 있으니까 나눠주고, 건물도 세우고, 프로젝트도 실행하다보니, 어느덧 물질에 근거한 선교를 한 적은 없었는지... 물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종종 선교지의 현지인을 물질로 도와야 할 때가 있고, 건축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재정적 힘에만 의존한 선교는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오로지 돈만 의지하며 선교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일말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중국이나 중국인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선교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때 우리는 무척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물질중심적으로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사람들처럼 물질을 숭배하는 수준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선교나 기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필요한 물질부터 생각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돈의 뒷받침 없이는 시작할 업무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돈을 투입하고, 일을 실행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분명히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획하고 물질을 투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된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가 선교사로 현지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곳에서도 위의 전제를 갖고서 사역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정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놀라운 결과가 생길 것으로 믿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꺼이 돈을 보내준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해야 일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중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태도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순수한 신앙적 동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위력 때문에 그들이 더 바빠다가는 적은 없었을까? 이것은 큰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성 사역을 위해 돈을 지출할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1불, 5불, 10불 정도의 보기에 따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진 자임으로 쉽게 줄 수 있다.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무도 상대방을 해롭게 할 동기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보잘



물질을 기초로 맺어진 현지인과 관계를
이제는 영적인 방향으로 전격 선회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외적인 요인을
앞세워 다가갔다면, 과감히 포기하든지,
선교적인 동기로 바꾸어야 한다

것 없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시혜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면
현지인들과 바르고 순수한 영적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IMF가 중국선교에 주는 유익

중국의 어느 농촌지역에서 지도자훈련을 오
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한 목회
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도자훈련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
들에게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차비도 훈련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비용으로 감당합
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훈련인데 필요한 비용
은 스스로 감당해야지요. 우리는 그들과 물질
이 아닌 순수하게 영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
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옳고 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선교의 대상인 현지인들
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
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지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비록 그들보다 지나칠 만큼 많이 가지지 않았
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현지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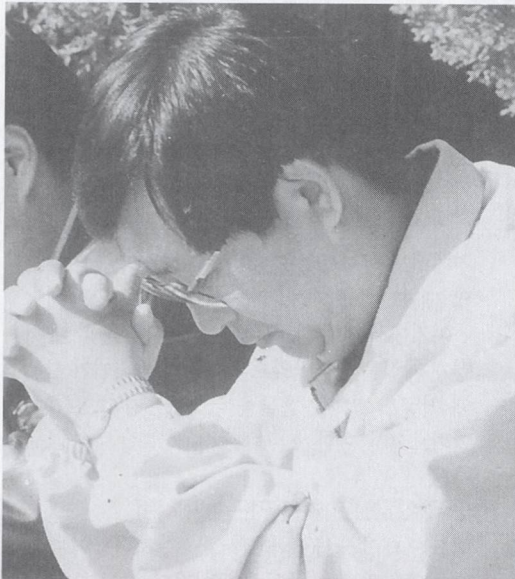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쉽게
호주머니로 손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러나, 이제는 IMF 시대이다. 예전 만큼 우리
의 씹씹이가 여유롭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현지인에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주고 싶
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
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보다 영적인 면에서
현지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던 선교 사역이 IMF 시
대의 여파로 선교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중단
해야 할 만큼 위기에 처한 요즘, 우리는 지금
까지 해오던 사역의 방향을 재고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물질을 기초로 맺어진 현지인과
관계를 이제는 영적인 방향으로 전격 선회해
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외적인 요인을
앞세워 다가갔다면, 과감히 포기하든지, 선교
적인 동기로 바꾸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
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
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
다.

또한 동시에 그동안 선교를 외형적인 업적
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에 많은 돈을
들였다면 ‘비용효과’(Cost effectiveness)를
고려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인간의 영혼을 위한 선교

한 적은 자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 미국은 월남전 당시 한 명의 적에 대해 수만 발의 탄환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하고 말았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닌 것임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경제논리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지만 '주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선교전략'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인적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설령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무한하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비용효과' 의식을 갖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IMF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성경의 원리로 중국선교의 방향을 재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맞는 말

요즘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거품을 빼느라 정신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풀려진 거품을 빼야할 때가 온 것 같다. 돈으로 드러내고, 세우고, 모으던 식의 선교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사실, 중국 교회는 1949년 중국공산당 정부 수립 이래, 외부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음에도 한국 교회보다 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돈이 많아서 사역에 투자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 오히려 중국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핍박까지 받으면서도 성장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IMF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중국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더 절실하게 동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갖고서 그들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IMF라는 외적환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녕 한국 교회를 중국선교를 위해 계속 사용하시려는 뜻임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성경의 원리로 중국 선교의 방향을 재확인해야 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민요섭/ HOPE 본부장

경제 위기는 선교 위기인가?

석은혜



우려받고 있는 선교

IMF, IMF한파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기업, 은행에서부터 동네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IMF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선교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송금할 때의 환율은 미화 1달러 당 926원이었는데, 11월에는 1,018원, 12월에는 2,000원을 넘어섰다. 2월 현재 1,6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환율이 두 배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의 사역비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파송 선교사들에게 달러로 선교비를 지급하던 교회나 선교단체

들이 선교비를 원화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20~30% 삭감 하기도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뚜렷한 후원교회가 없던 독립선교사들은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중에 입국하는 선교사도 있다. 경제 위기가 세계선교와 중국선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각 선교단체와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인다.

사실 선교비와 선교사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사역하는 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고, 따라서 선교비를 후원받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 사역했던 선배 선교사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교사역을 감당했고 그들의 땀과 수고의 대가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선배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을 할 때 어떻게 재정을 공급받았으며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그 실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1853년 중국에 들어갔다. 그는 중국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기 위해 중국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모양(변발)을 하고, 그들의 말을 배웠

다. 그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소속되어 있던 “중국선교회”(Chinese Evangelization Society)는 재정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선교사의 봉급마저도 돈을 빌려 송금하는 형편이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13:8)는 성경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갈등하던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는 한때 파커(Parker) 박사와 Ningbo(寧波)에서 병원사역을 동역했다. 이 병원은 파커 박사에 의해 개원되었고, 주 수입원은 파커 박사였다. 그러나 파커 박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허드슨 테일러가 병원을 책임지게 되자, 수입이 끊어져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조수들마저 봉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둘 병원을 떠나버렸다. 그런 속에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다.

수역의 인구가 사는 중국 대륙을 복음화하는 데 많은 물질과 동역자들이 필요했지만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는 “믿음 선교”(Faith Mission)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역만리 지구 저편에 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그가 만일 주판알을 튕기면서 돈으로 계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면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의 창시자는 커녕 위대한 중국선교 역사의 장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의 선교사역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액의 돈을 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과감하게 돈을 포기하는 희생을 했지만 그가 받은 보상은 그 희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따라서 후에 그는 “나는 결코 희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 재산을 헌금한 찰스 토마스 스테드

‘캠브리지 7인’ 중의 한 사람인 찰스 토마스 스테드(Charles Thomas Studd). 그는 중국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 1885년 중국으로 갔다. 스테드가 영국을 떠나기 전, 그는 부친의 뜻에 따라 25살에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던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전 재산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했다.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2만 9천 파운드였는데, 우선 2만 5천 파운드를 내놓았다. 5천 파운드는 무디에게, 5천 파운드는 조지 풀러에게, 5천 파운드는 조지 홀랜드에게, 5천 파운드는 구세군의 부스 터커에게 각각 보내었다. 그 외 몇몇 사람들에게 1천 파운드씩 보내고 중국내지선교회(CIM)에 얼마를 보내고 나니, 3천4백 파운드가 자기 소유로 남았다. 그는 그 돈을 배우자인 프리실라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녀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돈을 구세군의 총재에게 보내면서 빈민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은 허드슨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기도를 통해 공급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전적인 포기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시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

스테드는 그 때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아뢰며 믿음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그는 후에 WEC(World Evangelization Crusade) 선교회를 창설했고, 지난해 이 선교회의 한국지부가 서울에 세워졌다.

그는 선교후원비가 끊겼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
그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선교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다

현지를 지킨 문서사역자 영 존 알렌

영 존 알렌(Young John Allen, 중국명 林樂知) 선교사는 미국인으로 1859년 중국에 갔다. 그는 문서사역자로 중국에서 주간지인 <교회신보>와 <만국공보> 편집장으로 사역을 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를 후원하던 남방교회(南方教會)로부터 후원이 끊겨 4년여 동안 그 어떤 후원도 받지 못했다. 그는 사역비와 생활비를 위해 중국인에게 석탄과 쌀, 면 등을 사서 그 곳에 사는 외국인에게 다시 파는 중간상인의 일을 하였다. 또한 보험 중개인, 영사관 통역 등의 일을 하며 여의치 못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1864년에는 상하이 방언연구소에서 서양학을 1년 동안 가르쳤고, 다른 잡다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1867년에는 강남에 있는 출판사에서 통역관으로 번역하는 일을 도왔다. 1868년 중문으로 된 <상하이신보>에서 편집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1869년 상하이 방언연구소가 강남출판사로 영업되자 그는 반나절은 가르치고, 반나절은 강남출판사 통역관으로 책을 번역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상하이 방언연구소에서 1883년 해임될 때까지 일을 하면서 선교사역을 하였고, 청(淸)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5품 관직을 수여하였다.

그는 선교 후원비가 끊겼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 그 필요를 공급 받으면서 선교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다.

작은 여인, 큰 사역자, 글레이스 아일워드

우리 나라에 『작은 여인』이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레이스 아일워드(Gladys Aylward). 이

여선교사는 1920년대 후반에 중국에 가서 중국이 공산화되어 더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때까지 20여 년을 독신으로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했는데, 재정과의 싸움에서 성공한 훌륭한 선교사다. 그녀가 처음 중국선교에 부름을 받고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 중국내지선교회로부터 자격과 교육이 형편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중국내지선교회 측에서는 중국어가 그녀가 배우기엔 너무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성경책과 묵상집, 그리고 2펜스 반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였기에 선교단체에서 거절당했고, 후원자도 없었지만 스스로 러시아를 거쳐 어렵게 중국에 갔다.

그녀는 현지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선배 선교사의 사역을 도우면서 노새 물잇군들에게 전도했고, 중국정부의 보호 아래 중국여인들의 전족 폐지운동을 위해 순회하면서 중국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 한때는 ‘선교의 집’을 경영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했고, 중일전쟁 때는 전쟁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그녀는 ‘아이 웨 데’라는 중국 이름을 지어 중국인으로 귀화했다. 재정의 어려움은 늘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그녀는 중국어를 중국인처럼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을 보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이 공산화되어 더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그녀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잠시 머문 후, 다시 홍콩의 피난민 지역에서 선교회를 시작했고, 타이베이(台北) 근처에 고아원을 개설했다.

그 때도 역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살 돈조차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간증과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곳에서 사역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또다시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세계비전회사(World Vision Incorporated)로 알려진 한 단체가 홍콩의 선교회와 타이베이의 고아원 사역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는 선교 위기가 아니다

선교현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외환 위기가 지날 때까지 잠시 귀국한 분들일 것이다.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면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역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귀국한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가? 선교가 교회나 선교사 개인에게 속한 일인가? 과연 복음 전하는 일을 물질과 바꿀 수 있는가 말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재정을 쓸 곳을 찾다가 선교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간 것은 아닐 텐데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어찌 선교지를 떠나올 수 있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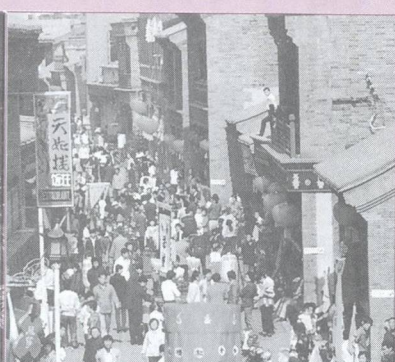
앞에 언급한 선배 선교사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현지에 남아 재정과의 싸움에 승리하였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였다. 후자는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히 13:8),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기에 그를 의지하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H. L. 웰즈는 “돈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속임수요 실망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돈은 사단적이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에게 물질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다(마 6:8). 전도자들이 물질에 따라 움직인다면,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의 누룩을 뒤집어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며 부르던 노래 가사 중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구절이 우리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교회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선교를 하는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 다음이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사랑 어린 기도와 관심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을 키우기 위해서 수십억의 국가 예산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파일럿 한 사람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여 나간 선교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이번 재정 위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선교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석은해/ 본지 편집장



디아스포라 한국인

텐진(天津)으로 이주한 한국인

진 석 안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1989년, 하북 평야와 발해만에 있는 나루터 마을인 텐진(天津)은 새로운 이방인을 맞이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텐진시가 대규모 경제투자단을 유치하면서 한국의 기업인들이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텐진하면 아직도 한국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와는 달리 이렇다할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텐진을 찾은 한국인들에게 첫인상을

문는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봄은 황사와 온갖 먼지를 동반한 바람이 자주 부는 곳. 여름은 비가 잘 오지 않고 영상 40℃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지치게 하는 곳. 가을은 아름다운 낙엽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황량한 거리의 도시. 겨울은 날씨가 흐리거나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깔리고, 코를 자극하는 아황산가스가 가득한 도시이다. 그러나 이런 말도 나올 것이다. 정치의 도시인 베이징과 비교적 가까운 탓에 도시가 안정되어 있고 물가는 대도시치고는 싼 편이다. 교통이 발달돼 있어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자전거로 시내 곳곳을 이동하기 편리할 정도로 도로가 평평하다.

지명에 대한 유래

역사적으로 12세기 때에 텐진(당시는 直沽라고 불림)은 이미 항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원(元)나라가 베이징에 도읍한 이래 강남으로부터 북으로 오는 양곡을 모두 이곳에서 풀어 다시 수레에 옮겨 운송했다.

명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사후 손자인 윤문(允文: 惠帝)이 제위(帝位)를 계승했는데 베이징에 있던 주원장의 넷째아들 ‘체(成祖, 棣, 일명 永樂帝)’가 ‘정란의 변’을 일으켜 텐진으로부터 남하, 당시 난징(南京)에 있던 조카 체제와 골육상쟁을 벌였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승리한 체는, 당시 직고(直沽)라 불리던 이곳을 ‘천자가 나루를 건넌던 곳(天子津渡之地)’이라 하여 ‘텐진웨이(天津衛)로 명명했던 것이 지금은 결국 ‘텐진(天津)’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후 제2차 아편전쟁 후 텐진은 여러 차례 수난을 겪어야 했다. 1856년 애로우 사건을 계기로 영·불 연합군이 광저우(廣州)를 점령하고 다시 북상하여 텐진, 베이징을 장악,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은 아편전쟁과 더불어 중국을 반식민지상태로 만드는 중요한 발단이 되었다. 의화단은 본래 백련교에 딸린 한 비밀무장단체였으나 외국군의 횡포를 방관할 수 없어 ‘부청멸양(扶清滅

洋)’의 기치아래 정부군(靑軍)과 더불어 손잡고 싸웠다. 그러나 1891년 정부군과 의화단은 텐진의 자죽림(紫竹林)에서 3주야에 걸친 외국 연합군과의 격전 끝에 패퇴하였다. 그 결과 텐진은 조계(租界)라는 명목으로 9개국의 연합군(필리핀까지 포함)의 분할 통치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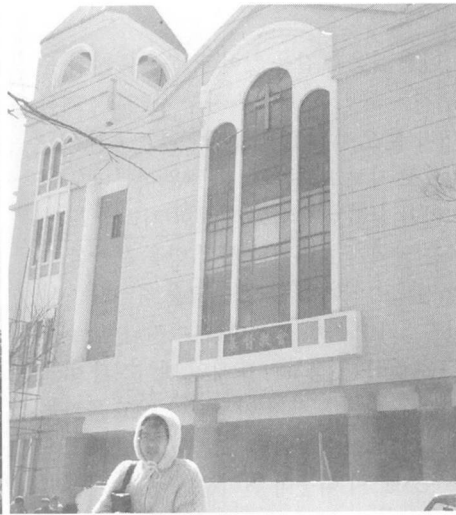
1911년 신해혁명으로 제위에서 쫓겨난 마지막 황제 ‘푸이(宣統帝)’가 일본의 비호 아래 텐진 일본조계를 배회하다가 소위 만주족의 괴뢰황제가 되었다. 1949년 초 이곳에 포진했던 13만의 국민당정부군은 80만의 인민해방군의 중압을 이기지 못해 투항했다. 이것이 국민당정부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텐진의 기독교역사

텐진은 베이징, 상하이, 충칭과 더불어 중국의 4대 직할시의 하나이다. 행정구역은 18개 구현으로 나뉘며 면적은 약 1만 1천㎡이다. 95년 통계에 따르면 시의 상주인구는 9백40만 5천 명이며, 그 중 한족은 9백18만 3천9백 명으로 90년 인구조사에 비해 다소 하강추세(97.69%에서 97.65%)를 보이고 있다. 인구출생율은 10.23%, 사망률은 6.23%, 자연성장률은 4%이며 인구 10만당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자는 6천2백78명, 고등학교 이상은 1만 6천6백23명, 중학교 이상은 3만 2천4백8명, 초등학교 이상은 2만 9천2백94명이었다. 95년 당시, 시장을 제외한 전국 29개지구의 평균 1인당 평균수입통계에 의하면 텐진은 평균수입 4천6백26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종교 개황

1949년 당시 교회당과 사찰이 2백9개나 되었으나 1966년 40여개로 줄었다가 현재는 회교사원(清真寺)이 29개, 천주교 교회당이 2개, 기독교 교회당이 4개, 불교사찰이 1개가 있다. 천주교는 1861년부터 텐진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며 1951년 4월 텐진시 주교 혁신운동촉진



얼마전에 새로 건축된 삼자교회와 천주교 교회당인 망해루(望海樓)

회 후에 텐진시 천주교애국회가 성립됐다.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후 개항과 더불어 기독교의 선교활동 중심지가 되었으며, 20개가 넘는 선교회가 활동했다. 장로교, 감리교, 독일 루터교, 중국의료선교회, YMCA, YWCA 등이 20여 년간 활동했다. 1954년 삼자애국운동 위원회가 성립됐으며 문화대혁명 때 폐쇄되었다가 79년 12월 다시 개방됐다.

기독교 역사

텐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서구제국주의의 침략과 뿔뿔히 뿔 수 없다.

제2차 아편전쟁 후 중미 텐진조약 체결 당시 미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위삼의(衛三畏-Samuel Wells Williams) 선교사와 장로교에서 파송된 정위량(丁韞良-William Martin) 선교사가 미국공사의 비서와 번역관의 신분으로 참여했다. 체결된 조약 가운데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예수교 선교사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따라서 미국감리회 박형리(柏亨利-Henry Blodget) 선교사가 텐진에 옴으로써 근대 텐진의 첫번째 기독교 선교사가 됐다. 1862년 위삼의 선교사가 중국주재 미국공사관 참사관의 신분으로 현재의 동마로(東馬路) 동문리(東門里) 내에 텐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감리교회를 건립했다. 이후 영

국 성도당(聖道堂-후에 중화순도교회(中華循道公會)가 됨)과 영국런던회가 텐진에 들어왔다. 1867년 이후 각 교단들이 자족립의 조계지 일대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떠나갔다. 1872년 미국의 미이미회(美以美會-후에 중화위리교회(中華衛理公會)가 됨)의 달길서(達吉瑞-G.R.Davis), 유해란(劉海蘭-H.H.Lowy) 선교사가 베이징으로부터 텐진으로 와 현재의 대沽路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웨슬리교회당을 건축했으나, 1913년에 빈강도(濱江道)에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했다. 교회당의 모양은 팔각형이며 종탑높이는 18미터, 건축면적은 2천2백49.52㎡였으며 수용인원은 7백 명 정도였다. 이 교회는 지난 96년 산서로(山西路)로 이주했다.

영국성공회는 1892년 화북교구 주교인 사가락(史嘉樂, C.P.Scott) 선교사가 현재의 해방북로(解放北路)에 세를 얻어 교회당을 설립해 영국교민을 향해 진도했다. 1904년 현재의 저장로(浙江路)와 태안도(泰安道)에 3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을 건축했다.

1900년 의화단사건 이후 각지에 있던 교회는 전소되었고 선교사들은 피살당했으며, 중국전도인과 교인들은 조계지역으로 피신했다. 1949년 초 텐진 기독교 교회당은 주요 교단 소속교회 12개, 기타 교단 소속교회 11개,

중국자립회 소속 17개였다.

기독교회의 자립 운동

한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국 교회 내에서 서양 선교회의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자립운동의 열기가 불기 시작했다. 1903년 상하이 장로회 감북당(閘北堂)교회의 유국정(俞國楨) 목사가 제일 먼저 장로회당을 건립했다. 점차적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쳐 텐진에도 1910년 6월 런던회, 장로회, 성도회(聖道會), 미이미회(美以美會) 등 5개파와 7개 교회당의 수백여 명의 성도들이 정식으로 텐진 기독교자립회이사회를 조직했다. 이 때 장백령(張伯苓, 남개대학 초대교장) 등이 조직한 14명의 이사회가 설립됐으며 미이미회(美以美會)의 유광경(劉廣慶) 목사를 초빙했다. 이 때 신도들이 창문구(倉門口)의 교회당을 구입해 텐진기독교회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정했다. 1910년 10월 19일 헌당예배를 드림으로 텐진에 중국인들이 첫번째로 세운 교회가 성립되었다.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의 발흥

1951년 텐진 기독교 '삼자혁신선언(三自革新宣言)'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1952년엔 제국주의가 종교를 이용, 침략을 자행했다고 비판대회를 가졌다. 1953년 7월 제1차 텐진 기독교 대표대회를 소집, 텐진 기독교혁신추진위원회가 성립됐다. 1954년 12월 텐진시 제2차 기독교 대표대회를 소집해 삼자혁신추진회의 명칭을 삼자애국추진회라고 고쳤다. 1956년 11월 제3차 대표대회를 개최했으며, 1959년 5월 제4차 대표대회 때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58년 텐진 시내의 전 교회당을 합병해 4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제한했다. 1966년 6월 이후 문화대혁명 기간 중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문을 닫았다가 1979년 1월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회복됐다. 같은해 12월 9일 빈강도(濱江道)에 웨슬레교회당이 문을 열었으며 오래지 않아 남녕기독교청년회가 회복돼 활동을 재개했다. 현재는 시내 3곳과 시외 1곳에 교회당이 있으

며, 공개되지 않은 가정교회의 형태로도 여러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텐진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 시대별로 통계를 살펴보면 1870년 이후 신도 3~4백 명, 1900년 전후 약 2천 명, 의화단운동 실패 후 4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1949년 초기 7천여명이었으며 1986년 말 1만여 명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인의 이주

한국인들이 텐진에 이주하게 된 동기는 기업투자에서 비롯된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화북 및 동북지역의 내수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교 전까지는 가족들의 거주가 허락되지 않아 기업인과 공장기술자들이 독신으로 거주했다. 1991년 처음으로 가족의 거주가 시작됐으나 외국인의 거주지가 많지 않아 호텔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92년 가을부터는 텐진중의학원에 정식 유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서 유학생들이 가족을 동반, 거주하기 시작했다. 물론 텐진사범대학에도 92년 여름부터 교육부의 정식유학생 허가를 받지 않고 언어연수생 한두 명이 있었다. 수교 후 대규모 유학생들이 들어오게 됐으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주재원 가족들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상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97년 12월 현재, 텐진에 등록된 기업이 7백14개이며 유학생(약 8백명)을 포함해 텐진에 거주하는 숫자는 1만 5천 명에 달한다. 텐진은 기업들의 사무실보다 주로 대형공장과 중소기업형태의 공장이 많이 분포돼 있다. 그렇다 보니 초창기엔 한국인 관리자나 기술자들이 중국 문화와 중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해 공장 내에서 자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곤 했었다.

거주하는 기간은 주재원은 대략 5년을 상주하며 학생들의 경우는 학위과정인 경우 4~6년, 언어연수인 경우 2년 이내로 거주한다. 텐진의 대학들 중 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은 몇 개 되지 않으며, 주로 남개구(南開區), 하서구(河西區)에 있다. 주로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은 남개대학, 텐진사범대, 텐진중의 학원 등으로 각 대학별로 약 2백여 명이 유학하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유학생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탈선으로 중국인들에게 한국학생들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교수들은 한국학생들이 예의바르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 어느 교수는 일평생의 교편생활 가운데 한국유학생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유학생들에 대해 대학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았다.

한국학생들의 장점은 첫째 응집력이 강하고, 둘째 예의가 바르며, 셋째 열심히 공부한다. 반면 단점으로는 유교문화 바탕에서 구속돼 있다가 홀로 해외에 유학 나왔으므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오인하여 일부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태도가 나쁘며,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학습목표와 방향이 분명치 않다. 가정환경이 너무 좋아 과소비가 눈에 띄며 중국인을 업신여긴다. 교수들에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며 만약 점수가 낮을 땐 뇌물을 통해 점수를 얻으려고 한다. 숙제를 대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유학생들에 대한 문제들을 대학관계자에게 듣는 순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앞으로 해결해야만 할 과제라고 여겨졌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 주거와 자녀교육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94년까지 유학생들은 외국인거주지 즉 기숙사, 호텔, 초대소의엔 주거가 허락되지 않았다. 물론 불법적으로 93년부터 중국인거주지에 살았지만 쉽게 발각돼 벌금을 물고 기숙사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다. 그 때 당시 가족과 함께 일찍 유학온 한 가정은 공안국에 거주신청을 해 93년은 묵인하에 거주허락을 얻었고, 94년엔 정식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일반주택에 허락을 받고 거주하게 됐다. 후에 유학생 중 자녀가 있을 경우 국부적으로 허가해 주었고 점차적으로 제한된 지역이지만 중국인 거주지역에



살 수 있도록 확대되어갔다. 일반가정 중 은행이나 대기업체의 주재원은 고급아파트(월 3~5천 달러)에 거주하며, 일부기업은 우의로(友宜路)의 한 아파트를 단체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타 중소기업 가족이나 유학생가족들은 왕정제(王頂堤)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월세 인민폐 2~3천 원(중국인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거주하며, 텐진중의학원 부근엔 주로 유학생가족들이 중국인아파트에 살고 있다. 여전히 현지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 때문에 유학생이나 기타 거주자들은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IMF시대엔 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인들의 생활과 신앙

자녀교육문제는 해외에 살아 본 사람만 알 것이며 자녀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어려움을 동감할 수 있으리라. 텐진은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그나마 교육환경이 조금 낫다고 하겠다. 한국유치원이 세 곳에 있으며 한국인 학교(1



학년~3학년), 주말학교, 국제학교 두 곳 등. 현재 중국학교에 보내는 부모나 국제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고민은 다 같다. 중국학교는 교육의 질에 비해 학비(초등학교 6년 간 인민폐 5만 원, 중고등학교 1년 2천 달러 이상)가 비싸며, 국제학교는 교육환경과 질은 높으나, 학비가 1년에 1만 1천 달러로 너무 비싸 일반 중소기업의 주재원이나 유학생자녀는 다닐 엄두를 못 낸다.

한국인들의 생활

텐진의 한국인들의 문화생활은 극히 제한돼 있다. 특별히 누릴 만한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 남개대학과 텐진사범대 사이에 있는 팔리대(八里台)고가다리 밑으로 조선족이 경영하는 불고기집이 형성돼 한국풍물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곳에 인터넷카페가 등장, 텐진유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국식당 카라오케 등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 유학생들은 각국 유학생들과 축구시합정도를 가지며 기타기업의 가족들은

골프, 수영 등을 즐기며, 각종 종교집회(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기독교모임은 지난 1992년부터 호텔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용봉(龍鳳)호텔과 수정궁(水晶宮)호텔 두 곳에서 기독교모임을 갖고 있다. 지역특성과 직업분포에 의하면 용봉(龍鳳)호텔에서는 주로 기업인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호텔엔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여를 지내오면서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집회를 가질 장소가 없어서 몇 번의 이사를 해야 했으며, 한때는 목회자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텐진으로 이주해온 유학생과 주재원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두 곳의 교회 또한 많은 숫자가 증가됐다. 지금은 10/40창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선

교적 사명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아름답게 협력하며 중국인과 중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기타 불교도모임과 천주교모임도 호텔에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다.

중국 도시 중 복음화를 친저

텐진은 특히 전세계 80만 명 이상 되는 도시 중 인구비례상 복음화가 안 된 도시 중 3번째이며 중국 도시 가운데선 첫번째인 지역이다. 중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황량한 화북평원의 영적 사각지대인 텐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 또한 이 곳을 스쳐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텐진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사는 이들은 더욱더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먼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할 것을 기대해본다.

진석안/ 중국선교사

중국 기독교협회와 미국 남침례회의 ‘이중접근전략’ 논쟁

중국 기독교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남침례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중국에 대한 선교전략으로 채택한 ‘이중접근전략’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세계 교회로부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삼자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애덕기금회가 발행한 『중국교회』에 실린 것이다.

중국 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덕기금회의 허락을 받고 실었다.

【편집자 주】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 한원자오(韓文藻) 박사는 1997년 11월 3일자로 된 ‘해외에 있는 중국 교회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최근 중국 기독교협회와 미국 남침례회 세계선교위원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USA)의 관계가 어려움에 빠졌음”을 시인하였으며 이는 “미국 남침례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우리들(중국 기독교협회)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중국에 대해 ‘이중접근전략’을 채택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이중접근전략’은 “중국 기독교협회와의 ‘공개적 접근’을 통해 중국 기독교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욱 큰 비중의 일들을 ‘비밀활동’, 즉 세계선교위원회에서 교회활동가들을 비밀리에 중국에 파송하여 ‘선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파송된 이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세계선교위원회와의 관계에 관해, 중국 기독교협회는 물론 중국정부

에 일체 비밀에 부칠 것이라는 것이 중국 기독교협회의 주장이다. 한 박사는 또 중국기독교협회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이러한’ 은밀한 침투”와 “기만행위에 협력할 수 없음과, 또 ‘이중접근전략’을 구사하는 어떠한 단체와도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이 성명이 발표된 이후 남침례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중국선교를 위해 자신들이 중국 기독교협회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봉사과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남침례회는 중국의 인민들을 사랑하며, 세계선교위원회는 교사, 자문 등 공개적으로 가능한 모든 기회를 통하여 중국인들의 요구에 응답해갈 것”이라고 위원장 제리 랜킨(Jerry Rankin)은 밝혔다. 그는 또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세계선교위원회 활동가들과 모든 남침례회 소속인사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중국 기독교협회를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비밀활동이거나 기만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해명이었다.

홍콩 애덕기금회는 11월 10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러한 반박이 중국 기독교협회의 성명을 곡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 논평에 따르면, “중국기독교협회는 남침례회 및 다른 교회들의 중국 내 활동들이 오직 중국기독교협회를 통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이를 핵심으로 보는 것은 철저한 왜곡”이라고 반박하였다. “중국 기독교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많은 교회단체(선명회, 구세군 등)들이 중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문제는 “남침례회의 중국 내 인사들이 거주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들의 활동은 비공개적이고 정당당당하지 못하다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남침례회 세계선교위원회의 중국접근전략의 전환에 항의하며 사퇴까지도 불사한 세계선교위원회의 전신 해외선교위원회(Foreign Mission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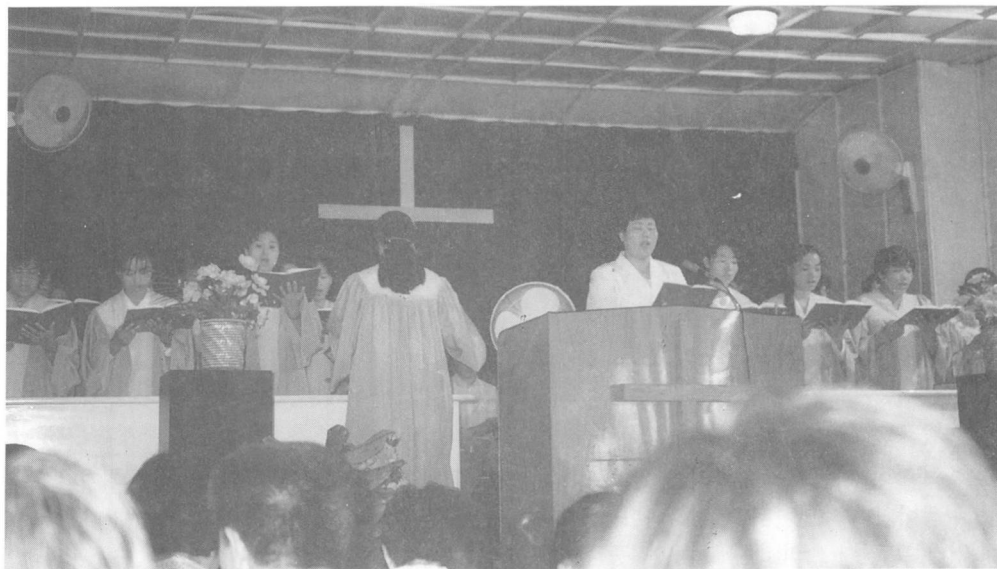
의 임원들은 “남침례회의 활동이 정당하고 공개적이라면, 밀접한 친구인 중국 기독교협회는 물론 자신들에게조차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 남침례회 소속 중국 내 인사들의 우편주소가 왜 중국이 아닌 태국이나 싱가포르로 되어 있는지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수십년 간 중국 기독교협회나 애덕기금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 남침례회는 그동안 중국기독교협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미국 남침례회는 중국 기독교협회와 애덕기금회와의 협력을 아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절대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거주 선교사(NRM: Non-Resident Missionaries)를 파송해왔으며, 프로젝트와 극동방송을 위시한 중국 내 방송선교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독교협회는 수차례 남침례회 지도자들이나 해외선교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질의해왔으나 그 때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해왔다.

중국 기독교협회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이러한 ‘이중접근전략’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중국 기독교인들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기독교협회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여전히 ‘종교세력을 이용한 침투행위’로 규정하고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중국 교회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나 탄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미국 남침례회 해외선교위원회(FMB)의 홍콩사무실 초대 책임자였던 브리트 타워리(Brit Towery)는 “남침례회는 중국이 여전히 비기독교인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은밀한 선교행위가 오히려 현지 교회들이나 목회자, 그리고 신도들을 어려움에 빠드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논쟁은 비단 중국 기독교협회와 미국 남침례회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선교를 진행 중인 모든 세계 교회의 관심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 전문

중국 교회 친구들에게.

최근 중국 기독교협회와 미국 남침례회 세계선교위원회의 관계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교론적이면서도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삼자애국운동과 중국 기독교협회가 창립된 이래, 우리들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와 사역과 기독교의 활동은 공개적이고, 솔직하며, 공명정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전혀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이 원칙으로 우리들은 교회와 사회사이든 물론 우리 중국 기독교인들과 모든 중국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는”(행 2:47) 일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남침례회의 세계선교위원회가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중국에 대해 ‘이중접근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해 우리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전략을 ‘공개’적 접근으로 중국 기독교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주요한 관심을 비밀활동, 즉 세계선교위원회에서 해외의 사역자들을 비밀리에 중국에 파송하여 ‘선교’적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데 둔다는 것입니다. 파송된 이들은 그들의 신분이나 세계선교위원회와의 관계에 관해서, 중국 기독교협회나 중국정부에 전혀 알려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기독교협회는 세계선교위원회 관계자에게 저희들이 더이상 그들의 기만행위에 협력할 수 없음과 또 ‘이중접근전략’을 구사하는 어떠한 단체와도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아울러 이러한 은밀한 침투에 대해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음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원칙은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선교위원회의 기만적 행위에 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사표를 던짐으로써 저항한 남침례회의 동료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공개적이고 정정당당하게 일하고자 하는 남침례회에 속한 개인들이나 단체 그리고 교회들과 계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 친구분들의 충고와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3일

한원자오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

복음으로 다가가 본 베이징의 이방인 - 농민 개체호

한 수 아

1억 명 정도로 추정되는 중국의 도시 유동 인구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중국을 주께로』 98년 12월호 참조). 그중 많은 유동인구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 특히 원래 농수산물을 거래하기 위해 만들었던 집중무역시장(집무시장)에는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글은 베이징(北京)의 한 집무시장에서 필자가 만난 한 중국인의 이야기이다.

집무시장에서 만난 농민

이름은 귀하오관(郭好管), 남(男), 만 34세, 고등학교 졸업, 고향은 산시(山西)성 태원에서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농촌이다. 가족은 부모와 아내 그리고 13세(초중 1학년), 소학 4학년, 그리고 5살짜리의 3명의 자녀가 있다. 둘은 딸이고 막내는 아들이다. 모두 부모가 고향에서 돌보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에는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무시장



춘제가 되면 고향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로 역이 붐빈다.

두 부부만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학력이라고 비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고졸졸업자는 유동인구 중에서는 상층에 속한다. 대부분 초중(중학교)졸업이나 중퇴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이야기 중에 그 대목이 아닌데도 자신이 고졸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유동경력

베이징에 온 지는 4~5년 되었다고 한다. 베이징에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농사가 이윤을 남기기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던 중 동생이 먼저 베이징에 와서 지금은 호떡같은 빵(산시성의 특산음식)을 구워 파는 일을 했는데 그의 소개로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동생도 다른 곳에서 같은 장사를 하고 있다. 그는 베이징에 도착한 후부터 이 장사를 계속했다. 이 장사는 전에 해 본 경험이 있고 도착했을 당시 이 장사를 한 사람이 적어서 자리를 잡는 것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지금 장

사를 돕는 아이들이 둘, 셋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식은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 까 다른 친척이 보낸 애들이다.

장사관계

리어카 한 개 정도의 크기에서 한쪽에서는 밀가루를 버무리고 속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불을 밑에 지퍼 철판 위에서 호떡모양의 빵을 만들어낸다. 속에 팥을 넣거나 부추나 다른 내용물을 넣기도 한다. 가격은 한개에 6마오(毛-한화 12원 정도), 상당히 맛이 있다. 그의 자리는 시장관리소에 관리비를 내고 빌렸다. 한 달 관리비가 인민폐 약 600원 정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근처에 빌린 방값이 250원 정도가 된다. 한 달 전체생활비는 1,000원 정도이며 이것을 제외하고 한달에 2,000~3,000원의 돈을 번다. 그는 도시생활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 아침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 철수하는데, 비교적 편찮은 생활이라는 것이다. 장사도 고정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베이징에 사람이 많아



지는 것에 만족해 하고 있다. 이것은 베이징 시민과는 다른 시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빵을 사먹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베이징시민과의 관계

장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집주인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다. 집주인은 매우 좋은 사람이다. 비교적 좋은 베이징사람을 만난 것 같다. 그의 베이징사람에 대한 인상은 전반적으로 중간정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쁜사람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주인을 제외하고는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베이징인 친구는 없는 셈이다. 사실 그의 일과를 보면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관리부문의 관계

그는 시장관리부문의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매월 관리비를 내고 있으며 영업허가증나 위생감사증, 신체건강증명 등 영업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공상국에서 나와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관리

소가 같은 국가운영기관이면서도, 공상부문과 다른 관리체계하에 있는 별도의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공상국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그가 고정적인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상국에서는 시장관리소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규정대로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도 이들은 그런 대로 나은 편이다. 도로변에 영업허가증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공상국의 엄격한 처벌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시장관리부문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대부분 잡음품이나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걸리게 되면 단순히 벌금정도가 아니라 물건을, 심지어는 삼륜차를 빼앗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다고나 할까? 고정적인 점포가 있는 사람, 반고정적 또는 고정적이지 않은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 사이에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불만이 많지만, 그나마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눈치이다.

고향사람들과의 관계

고향사람들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동생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그와 전화로 자주 연락한다. 그리고 고향친구들도 있다.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한다. 고향이 비교적 가깝지만 자주 가지 못하며 춘제(春節) 때 한번 다녀오는 것이 고작이다.

장래의망

그의 꿈은 이 장사를 더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차를 사서 택시운전사가 되는 것이다. 이전에 2년 정도 차를 몰아보았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많은 소규모 개체호의 꿈은 택시운전사가 되는 것이다. 마치 우리 나라의 개인택시 운전사가 구(舊)중산층에 속하듯이, 그들도 그 층으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택시운전사의 소득이나 직업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자녀는 계속 시골에서 교육을 시킬 모양이다. 베이징에 데리고 와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싶지만, 그러나 높은 교육비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왜냐하면 외지인이 현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식당주인과 같이, 보다 고정적이며 큰 점포에서 일하는 외지개체호와 다른 점이다. 경제사정이 보다 나은 외지개체호는 자녀들을 베이징내 현지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개체호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주거상황

일하는 장소에서 걸어서 2~3분 정도의 거리에 두 칸 방을 지닌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을 빌려 살고 있었다. 다른 한 칸은 다른 외지인이 세를 얻었다. 밖에는 수도가 있다. 두 집밖에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조용하고 안정된 느낌이다. 방에는 2층 침대 한 개와 또 다른 침대가 한 개 있었다. 아이 3명과 두 명의 부부, 5명이 생활하는 데 좁은 느낌을 주지만, 임시

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다. 집에서 그들은 고향 방언을 사용한다. 편리하고 서로 간에 친근감을 준다. 장사를 하면서 가끔 고향방언을 사용하는 학생을 만나기도 하는데 상당히 반갑다고 한다. 이들이 쓰는 방언은 북방어계통이어서 보통화와 비슷하다. 그러나 빨리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다.

일상생활

오후 7:30~8:00 정도에 장사를 마친다. 이 시간대에 숙소를 방문하니 그 곳에서 한 여자가 이가 밥을 하고 있었다. 식사하면서 TV를 본다. 그것이 휴식시간이다. 식사는 만두와 죽 그리고 야채를 잘게 썰어서 먹는다. 그의 아내가 밖에 나가 산시냉면을 사가지고 왔다. 매끼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한다. 점심은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기도 한다. 그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내일 장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나서 보통 저녁 9시30분 경에 잠을 자는데 새벽 4시 30분에는 일어난다. 새벽 5시에는 장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위해 가서 불을 피운다. 연중 휴식을 하는 일은 없다. 춘제 때는 보름정도 고향에 다녀 온다. 그 외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없이 일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내는 “하루에 관리비와 방값이 일에 관계없이 40원 정도가 들어간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까먹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상당히 피곤해 보였다. 특히 그는 상당히 피로한 기색이다. 연중 휴식 없이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하니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족경제공동체

세 가족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처형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장사하던 곳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1,100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지금 다른 곳에 자리를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필자가 숙소를 방문했던 날, 그는 저녁 9시가 훨씬 넘어서 돌아왔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당히 피로

한 기색이다. 자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가 보다. 알고 보니 그의 일을 돕고 있는 두 아이는 처형의 자녀들이고, 나머지 한 아이는 형의 자녀이다. 그들은 소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처형이 다른 장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에 다른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장사를 하고 있다. 가족 경영의 특징일 것이다. 그들은 어려울 때는 함께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일을 확장한다.

그와의 만남과 전도

시장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상당히 친절하게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으며 그의 좋은 인상에 나는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후 나는 시장에 갈 때마다 그에게 들러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팔이 든 호떡을 항상 먹으라고 하였다. 때로는 먹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관계를 고려해서 맛있게 먹기도 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기회를 보아 그에게 성경을 선물하였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국인들이 개최한 어떤 모임에 그들을 초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나의 호의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였다.

나는 며칠 후 숙소를 방문하여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며칠 지난 후 그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날은 마침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장사를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때였다. 나는 중국어로 된 쪽복음을 가지고 함께 읽으며 복음을 전했다.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설명한 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 부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 청년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다. 나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였다.

그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은 기억에 생생하다. 그들은 비록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순수하게 반응

하는 사람들이다. 도시 내에 있는 순박한 시골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들은 춘제 때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한다.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진다면 그들을 통해 복음이 고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유동인구 중 개체호들과 선교

유동인구의 직업을 보면 크게 나누어 개체호와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그룹이 소형상인들이고 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건축노동자들이다. 개체호는 개인이나 가족이 소규모 자본과 기술을 소유하여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체호 내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백화점이나 큰 도로변의 점포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음식점이나 이발소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에서부터 길거리에서 리어카나 좌판을 벌여놓고 과일이나 잡화를 파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집무시장의 개체호는 그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중하에 위치하는 유동인구라고 할 수 있다. 집무시장은 주택가 근처에서 쉽게 발견되고, 고정적인 점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인이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쉽게 외지 상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 유동인구 중 개체호들은 그 직업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활동방식과 도시 내 생활방식의 면에서 동질적인 사회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을 도시 내 유동인구 중 하나의 하위 종족집단(sub-people group)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잘 연구하여 이들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좋은 선교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아 / 미전도종족집안운동본부 연구원·본지 편집위원

중국인민군 관문도시(1)

[illegible]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상하이(上海)

‘바다로 가는 길’을 뜻하는 상하이에는 100여 년 전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러나 양쯔강 하구, 즉 수천 마일을 달려온 양쯔강이 태평양으로 유입해 들어가는 곳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십분 발휘하여 중국내륙과 외국 간의 교역을 담당하는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 ‘중국에서 가장 큰 무역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의 깃발을 올린 후, 상하이는 신(新)중국의 무역·금융·첨단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행차구역
영양구역

저장(浙江)성 상하이 직할시

충면적

5,800 km²

인구

1천511만 2천 명

기후

아열대 기후이나 4계절이 분명하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며 때때로 40℃를 오르내릴 때도 있을 만큼 몹시 무덥다. 겨

울은 1월 평균기온이 3℃ 내외로 비교적 따뜻하다. 연강수량은 1100mm 정도이다.

역사

상하이의 역사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짧은 편이다. 상하이가 오늘날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가 된 것은, 19세기 중엽 외세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842년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중국과 남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상하이를 비롯한 일부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1949년까지 상하이는 강대국의 중국 진출 거점이 되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은 조계(租界)를 설치하였다. 외국인들이 상하이 도시 내와 주변에 자신들의 양식대로 건물을 건설하면서 상하이의 경관은 서양화되었다.

사회 및 경제

상하이는 생산, 소비, 재정 등에서 모두 선두여서 중국 최고의 부자도시이자 경제수도로 떠올랐다. 97년말 기준, 중국 최초로 1인당 GDP가 3천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중국 전체 평균인 676달러('96)의 4배에 해당한다.

1인당 연간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 6,210원(한화 124만 원)보다 훨씬 높은 10,572원으로 역시 최고 소득지역이다. 이것은 곧바로 높은 재정수입으로 연결되어 상하이의 97년 재정 수입은 수도인 베이징보다 3배 이상인 730억 원(한화 약 14조 6천억 원)이다. 상하이의 번영은 무역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지난해 상하이를 통한 수출입액은 5백86억 8천만 달러로 중국 전체의 1/6을 차지했다. 소비 부문에서도 상하이는 단연 중국 최고이다. 전국 판매액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백화점 중 1(상하이제일 백화상점), 2, 7위가 상하이에 있다.

종교 및 기독교 현황

통계에 의하면 상하이 인구 중 약 59%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27%는 불교나 도교를 신봉하고 있다.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는 약 10% 정도 된다. 상하이의 교회는 약 119개가

있으며 교인수는 약 14만 명이다. 동북지방의 4개 성(산둥(山東), 저장(浙江), 장시(江西), 푸젠(福建))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수업을 하고 있는 화동신학원은 현재 상하이 시 우위엔루(五原路) 71호에 위치하고 있으나, 푸둥(浦東) 신개발지구에 현 규모의 19배 크기로 새 캠퍼스를 건축 중에 있다.

상하이 삼자교회는 대부분 대형교회이므로 주일예배시 수백 명 이상 심지어 1천 명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세례자도 매년 수 백 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과 사무가 다원화되어 예를 들면 의료복무반, 부녀조, 성경읽기반, 맹인 찬양반, 광동어반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일부 교회는 독서실, 성경판매처, 신앙서적과 달력, 패드 등의 신앙물품을 파는 장소도 설치해 놓고 있다.

상하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들 간에도 교파와 상관 없이 상호 협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과 마음속에 여전히 종파개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연합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면을 갖고 있다.

개방개혁 이후 상하이 교회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가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면 절반 가량이 35세~4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상하이 교회의 지도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노년층이고, 특출한 젊은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기도제목

1. 상하이 교회에서 종파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화동신학원이 계획대로 잘 건축되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3. 젊고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상하이의 목회 사역이 젊은 연령층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난창(南昌)

난창은 1927년 공산당과 국민당이 8월 1일 처음으로 전투를 시작한 곳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혁명의 요람지이자 인민해방군의 탄생지이다. 시중심부에 있는 '팔일남창(八一南昌)기념관'이나 '팔일(八一)공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난창의 많은 명승지들이 '팔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날을 기념하고 있다.

행정구역

장시(江西)성 성도로서 2개 현(남창, 신진), 과 5개 구(동호, 서호, 청운보, 만리, 교구), 1개 진(석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

4,791m²

인구

245만 명

위치

양자강 중류 남안, 공강 하류, 파양호변

기후

아열대 습윤기후, 사계절의 기온차가 크며 강우량이 풍부하다. 연평균기온은 17.5℃이며 연강우량은 1,600mm이다.

역사

난창은 중국 남방의 옛도시 중의 하나로 5천 년 전부터 거주지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살았



다. 진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난창은 구강군(九江郡)의 속지로 있었고, 「한서」에 의하면 난창은 한 고제 5년에 건설되었다.

중국혁명사를 보면 1927년 8월 1일 주은래, 주덕 가룽이 지도하는 3만 공산군과 국민당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이를 '남창기의'라고 하는데 이 기의를 시점으로 중국 공산당이 독립영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당시 기의의 지휘본부는 강서대여사(江西大旅社)로 지금은 '남창팔일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혁명의 도시 난창을 영웅성(英雄省)이라 부른다.

사회 및 경제

1949년 이전 난창은 정치와 상업 위주의 소비도시였으므로 매우 가난하였다. 그러나 1949년 이후 급속한 공업의 발달로 지금은 기계, 철강과 같은 중공업과 식품업이 발달하여 경제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현재 난창에는 1천여 개의 공장이 설립되어 있다. 주요 산업은 기계, 항공, 전력, 전자, 건재, 화공, 경방, 의약, 식품 등이며, 40여 만명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유명한 각종 연구소가 60여 개소 있으며 이곳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은 4만여 명 된다.

난창은 또한 수산물 생산지로 유명하다. '봄의 매기, 여름의 잉어, 가을의 연어, 겨울의



지도당(志道堂) 주일예배 모습

모살치”가 특히 유명하다.

지하자원 및 산업

난창의 지하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광산물의 종류를 보면 136여 가지나 되며 그 중 구리와 금, 은 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은 주로 벼농사에 의존하며, 그 외에 배추, 보리, 콩,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경제작물로는 채소, 목화, 낙화생, 깨, 사탕수수, 담배, 차(茶), 감귤 등이 있다. 이 중 배추와 감귤의 생산이 가장 많다.

공업은 철강, 석탄 산업을 비롯, 전력, 방직, 도자기, 건축재제, 식품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경덕진(景德鎮)은 도자기 생산지로 매우 유명하다.

종교 및 기독교 상황

국공(國共) 양당의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라 도교의 분위기가 농후하며 귀신 숭배가 심하다. 난창시에 소재한 개신교회는 삼자교회가 9개, 삼자에 정식등록한 처소교회 2개가 있다. 난창의 기독교인수는 약 1만 명 정도 된다. 현재 독일인으로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워너 버클린 선교사 부자가 강서성경학교를 돕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지역에 비해 선교사들이 적다. 성경은 시

내에 있는 9개 공식 삼자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문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혁명의 피비린내가 심했던 곳이어서 시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기도제목

1. 명승지마다 도교제단과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삼자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난창의 영적 분위기를 잘 감지할 수 있도록
2.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므로 난창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저항적이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혁명의 불길처럼 성령의 역사가 번져 갈 수 있도록
3. 많은 선교사들이 장기 혹은 단기로 난창에 정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4. 난창에 와 있는 외지인들, 특히 신장인들은 소매치기 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난창의 치안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외지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마련되고 생활의 안정을 누리도록
5. 난창시 외곽에 있는 강서성경학교에 좋은 교수진이 확보되고 신실한 사역자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저는 중국산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상당국
을 배우고 싶었는데, 상당국가가 있는 대학을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상당국을 배우고 나서 중국에서 가정사역을 할
경우, 가정사역이 필요성, 역부와 어떤 방식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중국에서 가정사역의 필요성 여부를 물어 오셨는데, 중국에서 가정사역은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과 함께 급격히 변화되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동거, 시험결혼, 계약결혼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등,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혼율은 더욱 급증해, 85년부터 10여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유행처럼 번지는 이혼율을 막기 위해 ‘혼인가정법’을 강화시켜 오는 99년 공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선교에서 가정사역은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에서 상담학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내에 상담학과가 없으니 현실적으로도 공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비교적 상담학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서양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 '두란노상담학교'나 양은순 사모가 경영하는 '가정선교교육원'에서 기독교 상담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담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마친

후 중국에 가서 언어를 익힌 다음 사역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역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역 방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저는 이번 학기에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가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본래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베이징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中醫)는 비교적 발달된 반면, 서의(西醫·영양)는 별로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비상약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베이징에 가서 아플 때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남에서 △△△

A 유학생들이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감기에 걸리는 학생이 많습니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한국보다 공기가 건조한데, 베이징은 특별히 더 건조하여 쉽게 목감기에 걸립니다. 일반적인 증세는 목이 심하게 아프고, 열이 많이 납니다. 또 물이 좋지 않아서(석회가 많음), 자주 배가 아프고 쉽게 설사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평소 필요로 했던 상비약을 반드시 준비해 가되, 특별히 감기약과 설사약을 잊지 말고 꼭 준비해 가십시오. 아울러 목이 아플 때만을 위한 약이나 목 캔디를 준비해 가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는 유명한 중의병원과 서의(양의) 병원이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병원은 전문성이 강한 편입니다. 전문병원은 국가나 해당 지방정부가 계획적으로 육성한 것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다른 병원보다 훨씬 집약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이 외국인에게는 진료비를 비싸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접수할 때 학생증을 제시하면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십시오. 참고로 베이징에 있는 종합병원(西醫)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화의원(協和醫院): 중국과학과학원 소속 종합병원으로 진료, 연구, 의료진 양성 등에서 중국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의 치료로 유명.

*중일우의의원(中日友誼醫院): 중국과 일본이 합작 투자하여 세운 종합병원으로 중서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설, 현대식 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진의 수준도 중국 내에서 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경의과대학 제일의원(北京醫科大學 第一醫院):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특히 비뇨기와, 신장내
과 및 심장혈관 계통 질병의 진료와 연구에 뛰어난
병원입니다.

*북경의과대학 제삼의원(北京醫科大學 第三醫院): 이 병원은 특히 심장혈관 계통의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과, 성형외과, 운동의학 등 방면에서 전국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있기에 그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공부 잘 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해외 성도들이 중국 대륙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기회도 늘어났다. 매번 대륙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과 체험은 모두 다르지만,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와 ‘염려’이다. 그들의 성장을 볼 때는 은혜를 깊이 느끼지만, 반면 그들 안에 부족한 것을 볼 때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성장과 부족함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충성된 봉사

중국 농촌 지역의 가정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종교정책의 제한, 이단의 침투와 교란, 그리고 일할 사람의 부족, 자원의 결핍 등의 어려움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최근 몇 년 간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교회의 부담 외에 생활의 부담이 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변화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전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고 있었다. 예전에 정치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된 성도들은 감옥 안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몇몇 성도들은 자신이 수해를 겪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으면서도 작은 배를 타고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일일이 심방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얼마 안 되는 물질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귀중한 복음을 함께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절망 중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굳건히 사명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다

대륙에 가지고 들어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서적은 한 권도 빠짐 없이 모두 가치있게 사용되고 있다. 그 책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널리 전파된다. 중국에 들어간 사역자

내 양을 먹이라

쉬우하오(徐武豪)



장승원 그림

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말씀을 갈망하는 중국인들이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때가 있다. 대륙의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주요 원인이자 원동력이다. 대륙의 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였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삼자교회는 평균 1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으며, 가정교회는 양적인 면에서 삼자교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도인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양육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 즉 중국 크리스천들을 보고, 신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자로 헌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륙의 교회는 성도와 사역자들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양육과 훈련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사역자들의 고로

대륙 교회는 사역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과다한 업무량을 감당해야만 한다. 특히 가정교회 사역자들은 가정교회의 분포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왕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체력도 많이 소모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은 한쪽을 돌보다가 다른 쪽을 잃고 마는 상황에 이르기 쉽다. 즉 영적인 가족을 돌보다 보면 육신의 가족들을 돌볼 틈이 없어져 어려움을 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서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양육의 부담은 더욱 커져 양쪽 다 돌봐야 하므로 제대로 휴식할 짬을 낼 수가 없다. 결국 성도들의 영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역자



장승원 그림

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 소홀하면서 오랫동안 동분서주하다보면 심신이 쇠잔해지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자녀)을 돌보는 것과 성령이 계시는 성전(육체)을 보호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초래하여 치명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인도자 부족의 결과

중국의 많은 인구에 대해 군침을 삼키는 사람은 비단 중국시장을 노리는 장사꾼들만은 아니다. 아마 사단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중국인들을 꽉 붙잡고 있다. 사단은 직접 신도들을 유혹하거나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

다. 사단은 거짓의 왕으로서 그 가장 좋아하는 것은 거짓으로 진실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자가 부족한 현 중국 교회의 상황에서 교회는 이단과 극단주의자들의 교란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은 거짓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기본 교리에 있어서는 성도들 대부분이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달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극단주의로 빠져들어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단 교파의 교주들은 보통 리더십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성도들은 이단의 그물에 매우 쉽게 빠져든다. 그후 그들의 신앙과 삶은 모두 극심한 파괴로 치닫게 된다.

중국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과 말씀에 대한 갈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우리도 배우려고 한다. 중국 교회에서 사역자와 지도자의 부족은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끝나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풍족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대륙 교회 성도들의 충성심과 겸허함을 배워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체를 아끼는 마음과 한 집안 식구를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날로 성장하도록 돕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 여수옥 · 자원 봉사자

복종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형제 사랑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단호히 그리고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며,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쪽은 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고 예수님의 길과 성령님의 능력에 복종한다면 온 세상을 비추는 불꽃은 불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네 부친을 장사하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네 고기잡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명령을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마다 가진 것이 적다 해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리만큼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를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열어놓고 자기 뜻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십니다.

이 글은 실터에서 출판한 하인리히 아놀드 저, 「공동체 제자도」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중국의 사역

박은정

○○성은 땅이 매우 넓고 지형상 분지여서 농사짓기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농민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가족이 매달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1년에 고작 2~300원(元) 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 이른바 이촌향도(移村向都)현상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내가 사역하고 있던 △△의 총인구 1억 여만 명 중 대부분이 ○○성 내의 농촌에서 온 농민들이다. 뿐만 아니라 민공들도 굉장히 많아 하루 온종일 다리나 거리, 혹은 기차역 앞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폭동으로 바뀐 살벌한 사회 분위기

○○성 △△에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농민과 민공들의 폭동이 세 차례 있었다. 몇 명이 다쳤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잘 모른다. 폭동이 일어난 당시 나는 다른 지역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몰랐는데, 지난 9월 베이징(北京)에 들렀다가 우연하게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홍콩의 <명보>에 실리고 TV에서도 방영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 폭동의 원인을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외부 세력의 자극으로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후 △△로 돌아온 나는 사건의 내막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모두들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신문과 TV 등 매스컴을 통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반해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폭동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던 집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전과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기차역과 가까운데 최근 들어 매일 해만 지면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북(北)역과 서(西)역 사이를 돌았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요즘 역 앞에 많은 군용트럭들이 늘어서 있는데 한 달 이상이나 되었다고 말하였다.

외부세력으로 지목받는 한국 선교사

이 일이 있고 난 후 9월, 이곳의 한 가정교회에서 집회 도중 신자들이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도자는 온저우(溫州) 사람으로,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형성된 이 교회는 현재 약 150여 명 가량이 모이고 있었다. 이들이 주일마다 모여 집회를 여니까,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집이 좀 시끄러우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라며' 공안국에 신고를 한 것이다. 공안국에서는 방송국과 사전에 짜고서 TV 촬영기자, 인터뷰 기자들을 총동원하여 그 가정교회를 덮쳤다. 그 날은 12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두 불참했다. 한편에서는 촬영기자들이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 공안직원이 책을 묵수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 기사는

‘◇◇◇근처에서 불법 종교집회를 가진 사람들은 잡았다’는 제목으로 9월과 10월달에 두 번씩이나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이 지역 신문에도 기사화되었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지난 농민과 민공들의 폭동이 있었을 때, 중국 정부가 외부세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한국인을 찾기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뭉툭에 갑자기 한국인 수가 늘어났고, 이것을 알고 있는 공안국에서 ‘너희들 까보면 모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알아서 잘 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얼마 전에는 내가 한국으로 보낸 편지가 뜯어져서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자 한국인들과 교제하던 학생 중 몇 명은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내가 아는 한 분은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아주머니로부터 잠시 모임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곳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나 역시 한동안 주일날 삼자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접촉은 일절 하지 않고 생활했다.

위축된 사역, 얼드려 기다린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각 성 종교부에 내려보낸 문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복사해서 나한테 주었다. 거기에는 ‘외국세력은 조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선교사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음은 보고 매우 놀랐다. 한국 선교사를 조심하라는 말 앞에는 ‘한국 선교사 한 명은 일개 부대보다도 더 무섭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었다. 이 문건에서 보여지듯이 공안국에서는 한국 선교사를 다른 나라 선교사들보다도 특별히 주의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조심하기를 당부한다.

지난 7, 8월에 있었던 폭동, 9월에 가정교회가 발각되어진 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지면상에 실기 힘든 여러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선교 활동은 위축되어 있지만, 다시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은정/ 중국 선교사



새로운 소식

중국, 북한 국경에 대규모 철책공사 북북로(北北路) 사실상 봉쇄

중국은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의 대(對)북한 국경에 철조망·순찰로 등 대대적인 국경시설 건설공사를 진행중이라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월 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정부와 군의 결정에 따라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비롯하여 9개 성·자치구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49년 중국 공산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의 ‘변방 기초시설’ 건설공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한 국경지대에 대한 ‘변방기초시설’ 건설은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탈출로 이용돼온 두만강과 압록강의 취락지역에 대한 감시·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어서 탈출루트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현재 9개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이미 철조망이 설치됐거나 순찰로가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사람과 가축들의 월경(越境)사건이 크게 감소하고 밀수나 마약사범 단속능력도 큰 폭 제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경시설 건설공사는 국경통제와 관리강화를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9개 성·자치구의 육상 국경에 순찰로·철조망, 국경관리 보조표지, 국경감시·통제 시설 등을 설치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1998. 2. 6

상한 갈대

무이(慕儀)

내가

살고 있는 깊은 산간
벽지에서 기이한 일
들이 많이 일어났다.
내 친구인 샤오란(小蘭)의 일생
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층 더 드러내 주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그녀의 삶은
갖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견디다
못해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치고 말았
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의 그
녀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사랑에 굶주린 천덕꾸러기 어린 시절

샤오란의 삶은 매우 비참했다. 그
녀의 고통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
되었다. 형제자매들 중 가장 부모
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강요했다. 부모의 편애로 그
녀는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섯 살이 되
어서야 말을 할 수 있었을 만큼 매

우 조용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녀가 병어리인줄 알았다. 그녀가
입을 열고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
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총명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그녀였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조금도 귀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몇 배의 노
력을 기울였다. 그녀가 예닐곱 살
이었을 때, 하루는 가족들을 위하
여 연못에 가서 연근을 캐다. 그런
데 바구니에 담긴 연근이 너무 무
거웠다. 그래서 강변을 따라 끌고
왔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도 했다. 얼마나 자주 물고기를 잡
았던지 수면 위의 물결 무늬만 보
고도 물 속에 물고기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밥짓
기, 빨래하기, 소와 돼지 사료 주기,
오리 기르기 등 집안의 잡일은 모
두 그녀 몫이었고, 그녀는 이런 일



장승원 그림

들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언제나 그녀에게 가혹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오리, 돼지, 소 등의 가축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동물이 사람보다 신량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녀는 빨리 자라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다. 이 소망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시켜준 유일한 힘이 었다.

어느 날 샤오란의 남동생이 오리알을 훔쳤는데,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일방적으로 샤오란을 범인으로 몰아부쳐 숨이 끊어질 정도로 세계 목덜미를 잡아 끌고는 그녀의 뺨

을 마구 때렸다. 밖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엄마를 잔인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소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잔인했다. 하루는 그녀가 오리를 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나무 장대를 들고 그녀를 사정 없이 때렸다. 그녀가 등을 맞아 땅에 엎드려졌는데도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뿐만 아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머리에 써 피가 줄줄 흐르는 정도로 때렸다. 그녀는 엄마를 피해 밖으로 도망

쳐 나왔으나 그녀의 엄마는 끝까지 쫓아와 “차라리 밖에서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계속 때렸다. 그녀는 지옥과 같은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에 피가 흐르는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매고서 달리고 또 달렸다. 약 20리를 달렸을까. 그녀는 외갓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는 도중에 큰 강을 만난 그녀는 ‘건너도 좋고 건너지 못해서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며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떠내려온 수초(水草) 덕분에 해안으로 기어올 수 있어서 죽음은 모면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없으면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쫓아내었던 그녀를 찾아내어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11살이 된 샤오란은 언니와 동생들처럼 공부하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학교에 갔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영리한 그녀를 매우 좋아했으며, 그녀는 학급의 반장으로 뽑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가 집에 갔더니 여동생이 연못 주변에서 놀다가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일이 모두 샤오란이 여동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녀에게 심한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그녀는 ‘자신이 공부하는 사이 동생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동생들이 무사히 자라 성인이 된다면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희생 또한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부를 포기하였다. 이렇게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죽음을 청하는 영혼을 구하신 주님

샤오란은 종종 큰 뱀 한 마리가 몸을 곧추 세우고는 자신과 누가 더 키가 큰지 비교하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농촌에서는 뱀과 키재기를 하면 큰 재난을 당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뱀이 보이면 나무토막을 집어들어 뱀을 때려 쫓아버리곤 했는데, 후에 이것이 재난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에게 욕 먹고 매 맞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19살의 가을이었다. 자진해서 아버지의 일터로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일을 맡았던 그녀는,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가는 두 길 가운데 비교적 거리가 짧은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려면 도중에 많은 무덤을 지나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귀신이 나타나 그녀에게 길을 양보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양보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그러자 귀신은 그녀를 향해 돌진해왔고 그녀는 다리의 평형을 잃었다. 마치 엄청난 힘이 그녀를 잡아당겨 그녀로 하여금 아무런 힘도 없이 앞을 향해 건넌다 하는 듯했다. 묘지를 겨우 지나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린 것은 황혼이 깃들 무렵이었고 온 몸은 심하게 아팠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신을 찾고자 했으나 묘지에 도착하니 귀신은 없고 까마귀만 한 마리 있을 뿐이었다. 이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도착하게



장승원 그림

되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또 욕을 해댔다. 하지만 그녀는 한 마디도 말할 기력이 없었다. 침대에 눕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온 몸은 마치 불위에서 타는 듯, 침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맛보았다. 게다가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귀신이 찾아와서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하였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그녀는 계속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 그녀는 침대 아래에 뱀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뱀은 그녀가 머리를 두고 있던 방향을 따라 빙빙 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면 자신을 멀리할까 두려워 감히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웃 사람들은 왜 그녀를 치료하지 않는냐며 그녀의 엄마를 책망했다. 그제서야 그녀의 어머니는 샤오란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의사는 그녀에게 류마티스

성(類風濕)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한 달동안 입원해서 진찰을 받았다.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병세가 호전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7, 8년 동안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생활했다. 그녀는 하루종일 눈물로 보냈으며 너무나 낙망하여 그저 하루라도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까닭에 자살을 시도했다. 한번은 단식으로 목숨을 끊고자 하여 10여 일을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은 변함없이 맑았고, 물을 먹지 않았는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낭랑하였다. 또 한번은 석식을 한 통 마시고 죽으려 했다. 그러나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하고 연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쥐약을 먹었으나 역시 미수로 끝나고 말았다.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습니

까? 만약 있다면 부탁하오니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세요!”라고 울부짖었다. 그순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그녀의 배가 즉시로 아프지 않은 것이다.

이 일 이후 그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마침 그 때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나의 외조모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쳤다. 후에 그녀의 어머니가 이 일을 알고는 그녀에게 마구 욕을 해댔다. 그러나 그녀는 평안했으며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다. 주님을 알고 난 후 샤오란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네’라는 노래를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좋다네. 나의 주님은 나를 보배처럼 여기시네. 주님의 품에 가까이 가면 너무나도 행복하다네.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좋다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주님을 떠난 고통은 참기가 어렵다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네’로 고쳐 불렀다.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생활의 어려움으로 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웃었다. 예수님을 믿은 후의 샤오란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였다.

하루는 그녀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방문을 힘껏 두드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로부터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방해받

고 싶지 않았으므로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기도가 다 끝난 후 그녀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왜 불을 켜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무 불도 켜지 않았고 다만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애기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주예수의 영광이 그녀의 방 안에 가득했던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생명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그녀가 주님을 믿은지 3년째 되는 해였다. 그무렵 그녀의 병세는 호전되어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었다. 그녀가 엄마를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린 지 1년 후, 그녀의 혼수품으로 준비한 목재를 가지고 진(鎭) 옆에 작은 나무집을 지었고, 그녀는 그 곳에 작은 가게를 내어 장사를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손가락 관절과 발 관절, 어깨 관절은 모두 굵었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그녀를 돕고자 했지만 어떤 효과도 없었다. 한번은 어떤 노인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굵은 화침(火針)으로 그녀를 치료해주고자 하였다. 온 몸에 천 개 이상의 침을 찌르자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3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몸서리쳤다.

어떤 날은 샤오란이 전신에 병세가 발작하여 두 다리가 모두 붓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침대에서 “예수님!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녀에게 ‘예수는 아무리 네가 부르짖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며 그

녀를 비웃었으나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기뻐다. 하루는 나와 그녀가 외출한 사이 비가 내려 그녀의 유일한 소유였던 이불이 다 젖어버렸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왔을 때 몇몇 이불을 들고 나가 햇볕에 말리고, 또다른 것은 다른 사람집의 난로불에 쪼여 겨우 말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설령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침묵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 지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라는 노래를 내게 불러 주었다.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나는 항상 눈물이 난다.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이 있는 사람만이 의사를 필요로 한다. 주 예수는 샤오란의 삶에서 가장 좋은 의사이며, 하나님은 그녀의 육체의 병과 고통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심령의 상처까지도 안위하셨다. 본래 그녀는 살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꺾져 가는 등불을 주님은 끄지 않으신다.”(마 20: 20)

출처/《中國與福音》17기 ‘壓傷的 蘆葦’

번역/ 김형미 · 자원봉사자

교회 발전과 교육에 공로 세운 산둥 선교사 -박상순(朴尙純) 목사-

김 교 철



한국 선교사와 중국 동역자들
-뒷줄 맨오른쪽이 박상순 목사-

박상순의 출생과 성장

1918년부터 1939년
까지 만 21년 간 중
국 산둥(山東)성 선
교사로 활동하였던
박상순 목사는 산둥
사역에 관하여 여
러 편의 글을 기록
하였으며, 중국 교
회 발전에 공이 많
은 인물이다. 필자
의 짧은 학문적 결
과를 가지고 한 인
물을 기록한다는 것
은 무리한 일이기도
하나, 그에 관한 연
구결과가 전무한 현
실에서 기초적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는 마
음으로 기록하였다.

박상순 목사의 출생

과 가정환경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한 고로 뭐라고 소개할 말이 없
다. 다만 박상순 목사가 평양의 중
심교회라 할 수 있는 장대현교회
에서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지
고 활동한 것과, 평양 사립 숭인(崇
仁)학교와 숭실에서 공부한 것으
로 보아 평양 사람이 아니었겠는
가 하는 추측을 해볼 뿐이다. 박상
순이 수학하였던 숭인학교는 1898
년 평양성(平壤城) 교회연합회의
경영으로 설립되었고, 1907년에
각 교회에 속한 학교들을 연합하
여 사립 숭덕(崇德)학교라 이름하
였다. 1908년에 보통과 4년, 고등
과 2년제로 분설하였는데, 영계 길
선주 목사 유고선집에는 박상순이
1913년에 제1회 졸업생 2명 가운
데 한 사람으로 그와 같이 백신칠
(白信七)이 졸업하였다고 기록하
고 있다. 또한 1900년에 설립된 사

립 숭현여학교(崇賢女學校)에서 박상순이 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숭전대학교 80년사〉는 박상순이 숭실학교 제5회 졸업생이며 정진여학교(正進女學校) 교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들을 통해서 박상순은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어 평양의 중심적인 교회인 장대재(장대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계 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학문적인 기풍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평양 장대재교회 집사 박상순 신학교 입학(1913)과 졸업(1917)

박상순은 1913년 1월 당시에 평양 장대재교회의 집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평양 장대재교회는 주일마다 보통 남녀 합하여 1천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주일 아침마다 보통 900명 가량 모여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 1913년 1월 30일 평남노회에서 장대재교회 시찰원장 마포삼열 선교사 청원으로 박상순 집사 신학문답 청원이 가결되었고, 다음날 계속 노회에서 박상순의 신학입학이 허락되었다.

박상순은 191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13년 12월 개최된 평남노회에서 신학교 교장 마포삼열 목사는 신

학공부 허락하는 신학도 49명의 명단을 보고 하였는데, 박상순을 포함하여 심익현, 박영립, 선우훈, 변린서 등이 허락을 받게 되었다.

박상순과 같이 공부하였던 변린서는 장대재교회 장로로 같은 교회에서 활동을 하였다. 박상순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한편 평남노회내에서 교회가 설립한 일반 학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1914년 6월, 장대재교회 시찰위원장 배위량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여 평양성 내 일곱 교회가 합동하여 장대현에 고등 및 보통과정의 학교를 설립, 남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14년 당시 학무위원장은 배위량 선교사였고, 박상순은 학교시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16년 1월, 박상순은 학교 시찰서기로 일하였고, 동년 6월에는 평남노회 학무국 총무의 직분으로 일하고 있었다. 박상순은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운영하는 일반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임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으며, 기독교 학교 교육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신학생 박상순은 1915년경 장대재교회 장로로 피택되었으며, 1916년 1월 3일, 평양신학교에서 회집된 제9회 평남노회에서 장대현교회 장로로 피택된 리응호, 김

우석과 같이 문답을 거쳐 장로 장립 허락을 받게 되었다.

박상순은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이자 노회 학무국 총무로 일하면서 신학공부를 하였고, 1917년 6월 14일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다. 박상순을 포함하여 30명이 졸업하였는데 동기생 중에 김병조(金秉祚), 변린서(평양), 이만집(대구) 등이 알려진 인물들이다.

박상순이 신학교를 졸업하기 바로 전인 1917년 5월 26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 학우회 조직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장에 양전백, 부회장에 길선주, 서기에 홍종필, 박상순 2인이 피선되었다. 1917년 당시 박상순의 주소는 평양부(平壤府) 하수구리(下水口里)였으며 박상순은 학우회 서기 및 편찬부(編纂部) 부원으로 참여하였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박상순 장로는 제12회 평남노회 개최 기간 중인 1917년 6월 17일, 평양 숭실학교에서 모인 목사장립식에서 리성국, 양의근과 함께 강도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당시 박상순은 평남노회 학무위원장의 중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평남노회 관할지역은 평양부와 대동군, 평원군, 강서군, 룡강군, 중화군, 황주군, 진남포, 강동군, 순천군, 곡산군, 수안군, 개천군, 안주군, 덕천군, 녕원군 등 광범위한 지역노

회였고, 이 지역 내에 산재한 학교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학무위원장 박상순은 재정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학교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를 병합하고, 고등과는 할 수 있는 대로 합하여 완전하게 하고, 기타는 보통과만 두되 특별히 보통교육에 힘쓸 일로 보고하였다.

학교 설립자 마포삼열 목사와 학무위원장 박상순 강도사는 교육계의 목하형편에 대하여 병합과 유지 방침을 노회 앞에서 간절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중국 선교사로 선택된 박상순 강도사

1917년 6월, 박상순은 강도사로 인허를 받았고 학무국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중화음교회에서 강도사 박상순 씨를 필립보 선교사와 동사목사로 청원하였으나, 박상순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청원서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되었다.

1918년 6월 열린 평남노회에서 박상순은 노회 학무부장으로 학교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당시 노회 내 75개 학교 가운데 4개를 폐하고 71개교가 유지됨을 보고하였다. 박상순은 활발하게 노회 내 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데 1918년 8월 31일, 평북 선전 북예배당에서 개최된 제7

회 장로회 총회에서 중국 산동에 선교사 1인을 더 파송하기로 가결되었으며 총회 전도부장 길선주 목사 보고에 의하여 선교사로 박상순 씨를 파송하되 평남노회와 전도사무국에 맡겨 장립하여 파송케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중화음교회 목사청원을 거절하였던 박상순은 총회 파송 중국 선교사직을 받아들였고 1918년 9월 27일, 평남노회 임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다.

중국 산둥성 라이양(萊陽) 도착과 선교사 생활

박상순 목사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정들었던 평양을 떠나 1년 전에 파송받아 사역 중에 있던 선교사 방효원, 홍승한 목사와 중국 교우들의 환영을 받으며 1918년 11월 19일, 라이양에 도착하게 되었다. 박상순 선교사 가족과 동행한 김윤식 의사 가정도 라이양에 같이 도착하여 의원을 개설하였고 선교사업의 협력자가 되었다.

산둥성 라이양에 도착한 박상순 선교사는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1919년 1월에 설립된 선교사 아동학교 교장이 되었다. 1919년 3월에 중국인 소학교가 설립되면서 역시 박상순 목사가 교장이 되었고, 1919년 10월 라이양 난관(南關)

교회에 주일학교를 병설하고 교장을 박상순 목사로 선임하였다.

1919년 11월 산동과 교동 독회의 허락으로 선교지가 확장되면서 선교지역을 나누어 사역하게 되어 박상순 목사는 여러 지방 교회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박상순 선교사 가족은 중국인 가족을 수리하여 거주하였으나 1921년 8월에 박상순, 방효원 선교사 가족의 사택을 이층 양옥으로 건축하였다. 선교지 생활이 어려운 중에도 적응되기 시작하였고 선교지역도 확장되어 1922년에 이대영(李大榮) 선교사가 증파되기도 하였으나 선교 경비문제로 곤란을 겪게 된 장로회 총회의 선교사 소환결정으로 결국 선교사 홍승한(洪承漢) 목사가정이 소환되고 후배 선교사 이대영 목사 가정만이 남게 되어 이주하게 된 것이다.

박상순 목사는 여러 지방 교회들을 담당하면서 본국에서 기독교계 학교들을 관리하였던 것처럼 산동에서도 학교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 일하였다. 1926년에도 남학교 11개와 여학교 4개 합 15개의 학교를 담당하였다. 박상순 목사가정은 중국 동란과 마적 등의 위험이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중국 선교지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9년에는 몰살위기에 처해있던 장관채(張官寨) 주변마

을 사람들을 관병의 토벌대장과 교섭하여 생명을 구하였고 감격한 동민들이 돈을 거출하여 박상순 목사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박상순 목사는 본국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중국 산동 노회로 이명하였고, 다시 교동 노회로 이명하여 활동하였는데, 1930년도 보고에 의하면 박상순 목사가 교동노회장으로 피선되어 조선 사람으로 중국노회에서 영향력있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즉묵성 면려회와 부녀 도리반, 주일학교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다하였고, 1935년에는 산동 대회(山東大會) 회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1937년도에는 라이양노회장, 산동대회 실행부원, 라이양교회 초경감독, 라이양화동성경학교 교장, 방지일 선교사 어학지도원 등의 중직을 맡아 일하면서 맡은 지방 교회 순회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 주일학교 및 중국인 청년지도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1937년에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쟁이 발발하게 되어 임시 귀국하였다가 1938년 4월, 청도로 갔고 여러 면에 노력하다가 1939년에 개최된 본국 총회 결정으로 소환되었다. 중국 청도에서는 태평촌에 교회를 설립하였고 청도 조선인교회 조직 지도를

하였다.

귀국 후의 본국 생활과 별세

박상순 목사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중국선교 기간 중인 1933년경 부인이 중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다. 1938년도에 본국 장로교 총회는 일제에 굴복 당해 신사 참배를 가결하게 되는데,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는 회장 이문주 목사의 설교와 흥택기와 이승길 목사가 기도하였고 박상순 목사 가정이 합창을 하였다.

박상순 목사는 신사참배 가결 총회에서 선교보고를 하였고 귀국 후에 평서노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42년 3월 16일부터 평남 진지동역전 예배당에서 제42회 평서노회가 개최되어 회장에 김지학, 부회장에 박상순으로 선출하였다. 평서노회는 평양육군병원에 위문키로 결의하고 위문위원으로 박상순, 송현철을 선정하였다.

평서노회는 동년 6월 10일 용강읍교회에서 조선정병제도 실시 축하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있었다. 1943년 5월에는 평서노회장으로 장로교 총회장 김운순 목사와 전국 노회장들과 같이 일본에 가서 일본 정

부기관들의 고관들과 접촉하고 신궁참배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상순은 일본 기독교조선장로교단 임원진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박상순 목사는 1945년 해방전까지 변절한 총회와 그 신앙노선을 따라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김일성의 지시로 신앙이 불철저한 과거 신사참배를 한 교역자들은 매수하여 조직한 기독교연맹에 가담되어 활동하였다. 박상순 목사는 진남포교회의 대본영인 비석리(碑石里)교회 목사였는데, 기독교연맹의 최고위원장이 되어 소위 최고 인민회의 의원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47년경에 자동차 충돌로 중상을 입어 병석에 눕게 되었고, 1950년경에는 폐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박상순은 평양의 중심적인 교회였던 장대현교회와 평남노회에서 뛰어나게 활동하였고 중국선교사로 파송되어서도 만 21년간 눈부신 활동을 하여 중국교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귀국 후에도 교계에서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나, 교권과 정치에 휩쓸려 침략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말았고 불행하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다.

김교철/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부가동교회 외국인선교부 담당목사

칭다오(靑島)를 떠나라

방 지 일

추방 명령 거부 ... 3년 간 버텨

1955년

3월 15일로 기억된다. 공안국에 불러 갔더니, 내가 거주하고 있던 칭다오는 군에 중요한 항이므로 외국인은 일체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속히 거주지를 옮기라고 명령하였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며 나에게 지난(濟南)을 추천해주었다. 그리고 만약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집도 알선해 주고 모든 생활 대책도 세워 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명령과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내가 칭다오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닌 총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지역을 옮

기려면 먼저 총회 본부로 돌아가야 하며, 조직하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 순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칭다오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조직의 생리를 알고 있던 그들이었으므로 더이상 나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상부 명령에 따라 하는 일이므로, 그렇다면 떠날 수 없는 사유를 자세히 써서 오라고 하였다.

얼마 후 그들은 다시 나에게 출두 요청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나에게 칭다오를 떠나 지난으로 갈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지난에 가야만이 나의 일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당신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저는 생활의 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총회의 파송을 받아 이곳에 왔으므로 이곳에 있지 않으면 총회 본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들의 정책 때문에 이곳을 떠나 본부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을 보

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고민하더니 나에게 다시 사유서를 써오라고 하였다. 나는 이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썼다.

공산당에서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중남지방의 사역자 5백여 명을 지난해 모아놓고 본격적인 사상교육을 시켰고, 그들 중 몇 명이 자원하여 북한으로 이주해 갔다는 말을 들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분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처음의 논리를 고수하였다. 저들도 나의 논리에 대해 어찌할 수 없었으므로 중앙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공문이 오고가기를 1957년까지 했으니 이 몇 해 동안 내가 겪은 고역이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사실 공산치하에서 나의 논리가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들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평범한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였다.

당시 내 형편으로 볼 때 서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앞길이 막막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강제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초지일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나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뿐이었다.

한편 그들은 내게 구체적인 죄목을 씌워 쫓아내려고 백방으로



칭다오의 「중화기독교교회 성도부녀학원」의 교사와 학생들

노력하였다. 한번은 3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소집하여 교역자 학습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습회를 연 목적이 나의 죄목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군항인 칭다오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그들과 ‘좋다. 내가 꼭 떠나야 한다면 총회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는 나와 대결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3년 간 팽팽히 계속되었다.

방지일/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고립과 억압과 싸우는 칭하이(青海)성 교회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청장(靑藏)고원, 황하가 시작되는 청장고원의 북부 즉 중국 서북부의 외진 구석에 칭하이성은 위치하고 있다. 721,000km²의 면적에 427만의 인구 가운데 1/4은 티벳족이며 나머지는 30여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칭하이성 교회의 대부분은 성도인 시닝(西寧)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거의 교회가 없다. 칭하이성 기독교협회 회장 멩자오한(孟昭翰) 목사에 의하면, 칭하이성에는 약 30,000명의 신도가 있으며 교회당은 시닝시를 중심으로 전 성에 5군데가 있을 뿐이다. 한편 전 성에는 모두 3명의 목사가 있는데 모두 시닝에서 거주하고 있고 안수받은 젊은 여 부목사가 한 명 있다. 4명의 장로는 모두 은퇴한 직장인들로서, 이들이 목회자를 제외한 유일한 전임사역자들이다.

꾸이더(貴德)와 후양위엔(湟源)현의 교회들에 각각 장로 한 명씩 있는데 비해 따통(大通)현과 황하유역의 룡양사(龍羊峽)댐 주위의 교회들에는 전임사역자가 없다. 칭하이성의 34개 현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몇몇 집회만이 건물을 빌려 ‘처소’로 사용되고 있고 가정에서의 집회는 예배장소로 등록될 수 없지만,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묵인되고 있다고 멩 목사는 전해 준다.

칭하이성의 신도들의 대부분은 한족이며, 이들은

대개 다른 성에서 칭하이성으로 이주해온 이들이다. 또한 회족과 티벳족 신도들도 있다. 이곳 기독교인들도 1950년대 후반부터 이주 모진 세월을 보냈다고 전해주는 명 목사는 자신은 1958년 우익으로 몰려 이후 25년 간을 노동수용소에서 보냈다고 한다. 1980년이 되어서야 그 명예는 풀리고 그는 다시 시닝으로 돌아와 교회사역을 재개하게 되었다.

칭하이성 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1994년에야 설립되었다. 훈련된 사역자들의 부족으로 성 기독교협회와 지역 교인들과의 접촉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 기독교협회는 2년마다 5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가하는 40일 간의 평신도 훈련반을 열고 있다. 칭하이성은 또한 학생들을 전국 각지의 신학교로 보내고 있지만, 산간지역의 험하고 힘든 생활조건으로 돌아오는 이는 거의 없고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

매년 7월에는 시닝에서 전 성의 성도들을 위한 '세례식'이 거행된다. 이 때에는 각 농촌으로부터 새 신도들이 시닝으로 어려운 여행을 하게 된다. 칭하이성 기독교협회의 젊은 총무 통평안(仝平安) 목사는 자신도 세례예식을 집례하기 위해 농촌으로 종종 여행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통 목사에게 의하면 칭하이성 종교국은 기독교보다는 불교와 이슬람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닝시에만도 140개 소의 회교사원이 있으며, 티벳 불교사원은 초원에 셀 수 없이 많이 세워져 있다. 대부분의 종교국 관리들은 소수민족들이며,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칭하이성의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명 목사에게 의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의 실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경제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면서 점점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사회에서의 부정 부패의 만연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도덕성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한 것 등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은중 속의 시닝교회

칭하이성의 성도인 시닝시에 위치한 시닝기독교회는 1889년 중국내지선교회 소속 영국인 사역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1958년 교회는 폐쇄되고 모든 목회자들은 우익으로 몰려 노동수용소로 쫓겨갔다. 1981년 40여 명의 신도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날 이 도시에는 6,780명의 세례교인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축복하셨습니다.”

32살로 칭하이성 기독교협회의 총무직을 감당하고 있는 통평안 목사의 고백이다. 그는 시닝시에 있는 3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인데, 나머지 두 분 목사님은 각각 70대와 90대이다. 시닝시에는 또 한 명의 젊은 여성 부목사와 4명의 장로들이 있다. 젊은 여 목사 리하이핑(李海平)은 통 목사의 부인이다. 이 부부 목사는 모두 베이징(北京)에 있는 연경신학원 제1회 동기동창생인데, 졸업하기 직전 화족을 밝히고 자원하여 칭하이성으로 와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실한 목양으로 칭하이성과 시닝교회의 기둥으로 불리고 있다.

시닝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홍콩에 살고 있는 한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시닝의 기독교인들은 시닝시 한복판 성 정부의 건물 바로 옆간에 큼직한 예배당을 갖게 되었다. 교회당 옆의 6층짜리 건물은 사역자들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공간은 세를 놓아 교회의 재정에 보탬을 주고 있다. 이 중심교회 외에 시닝시에는 30개 소 이상의 처소교회들이 있다. 가장 큰 처소교회에는 약 800명이 모이고 있으며, 가장 작은 곳에도 1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시닝의 교회들은 매우 활동적이다. 목회자들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모두 흠어져 있는 처소교회들을 심방하며 목양하므로 중심교회의 활동은 주로 주말에 집중된다. 금요일 오후에는 여성 신도들의 집회가 있고 금요일 밤에는 청년 집회, 토요일 오후에는 성경공부가 있다. 이 모든 집회에는 9시와 11시에 각각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이 신도들로 뻘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마당까지도 꽉 들어차 한 번 예배에 1,600명이 참가한다.

시닝교회의 특징은 본당에 붙어있는 보조예배당에서 매일 열리는 새벽기도회이다. 할머니들이 대부분인 5~60명의 신도들은 매일 베이징 시간 오전 6시(칭하이성의 실질적인 시간으로는 새벽 4시 30분)에 모여서 한 시간 동안 개인기도와 공동체 기도, 찬양과 성경공부를 한다.

“이 새벽기도가 아니면 저는 어디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통 목사의 간증이다.

시닝시 교회의 교인 통계

1982년 교회가 복원된 이후 칭하이성의 수도인 시닝시에 위치한 시닝교회는 매년 교인의 숫자와 세례교인의 숫자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교회성장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통계표는 교회 사무실 벽에 눈에 잘 띄게 붙여져 있었다.

한 해에 세례받은 숫자와 교인숫자의 합이 다음해의 교인숫자의 총수와 같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이는 시닝교회의 성장이 단순히 새 교인의 세례교인으로의 변화를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시닝시로 이주해오는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연도	교인 수	세례받은 수	연도	교인 수	세례받은 수
1982	82	57	1990	2,332	469
1983	141	84	1991	2,810	478
1984	264	123	1992	3,297	487
1985	427	163	1993	3,844	547
1986	679	263	1994	4,437	530
1987	1,214	535	1995	5,034	660
1988	1,527	313	1996	5,603	569
1989	1,868	336			

1996 총교인수 6,172명

1997 총교인수 6,780명

이 글은 애덕기금회 클라우디아 오볼라우 목사가 칭하이성을 방문하고 기록한 것이다.

‘민공(民工)’의 공로

중국 대륙을 휘돌고 다니며 사회적 진동을 일으키는 민공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은 지대하다. 민공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일부 인사들은 ‘민공조’(民工潮)를 사회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맹목적인 유동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민공’을 그렇게만 보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민공조’를 맹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적 관점이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노동력의 유동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각지역, 각부문, 각단위에 지령성 고용 지표가 하달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는 유동의 자유나 선택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가 타지에 가서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관련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혁개방 이후 민공들은 계획경제의 속박을 벗어나 정부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유동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과 부문 및 단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체의 상황을 계획경제적인 각도에서 보면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총체적인 면에서 민공의 유동은 절대로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10여 년의 실천적인 경험에 의하면 민공의 유동 방향은 농촌에서 도시로, 내륙지역에서 연해지구로, 낙후된 지역에서 발달된 지역으로, 폐쇄된 산간지역 및 변방에서 개방지대로,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취업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유동은 시장경제 원칙과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및 비교우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맹목적인 유도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상 수천만 명의 유동이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계획경제가 옥죄고 있던 속박의 사슬은 이미 풀어졌고 시장경제에 맞는 거시관리, 거시조절 및 통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회문제, 치안문제, 교통문제 등을 포함한 각종 문제를 완전히 피해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민공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민공조’를 사회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잘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공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예부대로서 도시 및 농촌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대한 거대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중대한 공헌을 세웠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야망 - 蕭灼基 지음 진정미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중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늦각이 중국 여선교사 폴린 해밀톤(Paulin Hamilton)

안 정 숙

폴린 해밀톤. 그녀는 중국이 정치적 격변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던 20세기 초, 미국 대학에서 생리학을 가르치고 있던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래가 보장된 지위와 명예와 부를 모두 내려놓고, 중국 대륙과 타이완(臺灣)에서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바쳤다.

어린 시절 다섯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매우 고집스러웠고, 제멋대로였다고 한다. 언제나 남에게 이겨야만 하는 성격이었으며,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였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녀의 성격과 일생동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질병으로 보면 선교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녀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면 먼저 그녀 부모의 서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를 선교사로 그것도 중국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쳤



다. 그래서 이름도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Paul)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지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녀가 중국으로 간 뒤 편지를 써서 알려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인 것이다.

자살 직전에 만난 하나님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폴린 해밀톤은 자살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그녀가 의대를 다니고 있던 어

느 날, 그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밀려왔다. 먼저 그녀의 몸에서 결핵이 발견되었고, 얼마 안 되어 학교에서 품행상의 이유로 그녀에게 퇴학통고를 한 것이다. 게다가 함께 의학을 공부하던 남자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그녀의 친구와 멀리 도망가 버렸다. 의대를 졸업하여 멋진 의사가 되고, 좋은 남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 했던 그녀의 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더이상 살아갈 자신도, 소망도 없었다.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 그런데 자살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났다. 순간 그녀의 마음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며 끝까지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려왔으며, 그녀를 죽음에서 돌리키도록 바퀴에 펑크를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폭포같은 눈물을 쏟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홉 살 때 하나님에 대해 마음문을 굳게 걸어 잠근 후 처음 해 본 기도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10년 넘게 깊은 벽장 안에 던져 놓았던 낡은 성경책을 꺼내어 새벽이 맞도록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그동안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은 것은 물론 힘들 때마다 약에 의존하던 습관도 모두 사라졌다.

중국내지선교회인의 우연한 만남

그녀가 다닌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그녀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동물학과의 한 교수를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매우 싫어했고, 게다가 여자는 과학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고약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차갑게 거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녀는 25명의 남학생들 중에서 유일한 여자 과학도가 될 수 있었다.

생리학 석사에서 박사과 학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하나님은 그녀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풍성히 채워 주셨다. 이 경험은 훗날 그녀가 중국 선교사로 사역할 때 물질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었다. 그녀는 공부와 함께 기독교학생회에서 활동하였다. 믿음이 깊은 학생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주기도 했다.

그녀가 중국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기독교학생회에서 수양회를 개최했을 때였다. 식당에서 자원

봉사를 하던 그녀는 커피를 나르다가 실수로 중국내지선교회(CIM)의 대표에게 쏟아버렸다. 그러나 이 일로 중국내지선교회를 알게 되고, 중국내지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 중국이라는 나라에 눈을 뜨게 되었다.

순종과 거부 사이에서

하나님은 각자가 가진 기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다루어질 때 가장 잘 반응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녀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가 많았다.

그녀의 삶은 '질병의 역사'라고 이름붙여도 좋을 만큼 항상 질병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6살 때,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 조직 속에 고이는 희귀한 병을 앓았는데, 의사들은 한결같이 살가망이 없으며 설사 회복된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투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시편 118편 17, 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확신하였다. 말씀대로 그녀는 죽지 않고 회복되었으며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녀는 노스앰튼의 스미스대학에서 교편을 잡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녀는 많은 월급과 좋은 집 그리고 가정부를 둔 안락한 생활에

만족해했고, 과학은 그녀의 우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그녀의 자만심을 더욱더 키워주었다. 선교는 더이상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교편을 잡은 지 3년이 지나면서 웬지 모를 삶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중에 '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계속해서 물으셨고, 그녀의 마음은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교사로 부적합한 이유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결핵을 앓았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 서른이 넘어 선교사 연령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연로하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선교부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마다 그녀의 마음은 순종과 거부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오랜 싸움 끝에 그녀가 백기를 든 것은 아모스 7장 15절 말씀 앞에서였다. 그녀는 주님께 모든 것을 포기할 것과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드디어 중국 선교사의 길로

1947년 1월 그녀는 중국내지선교회 중국 선교사로 허입되어, 파크스트리트교회의 후원을 받아 중국에 갔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먼저 중국어를 배워야 했으므로 안후이(安徽)성 안칭(安慶)에 있는 중국내지선교회 언어학교에 갔다. 그러나 어학에 재주가 없었던 그녀에게 중국어는 매우 힘든 언어였으므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런 날들이

었다. 게다가 동료들과 교사들은 박사인 그녀가 중국어 때문에 고전 분투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그녀의 마음은 무척 상했다. 중국어는 그녀가 중국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심한 열등감으로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 선교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 회의를 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쾌한 경험들을 영적인 안목, 즉 자신의 교만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중국어에 향상이 있었다.

중국어 공부가 끝나자 그녀는 첫 사역지로 허난(河南)성 뤼양(洛陽)을 원했다. 그러나 중국내지선교회에서 그녀에게 준 첫 사역은 치푸에 있는 선교사자녀학교에서 중국내지선교회 소속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그녀였으므로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하루 빨리 그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으로 올 과학교사가 없어 그녀는 이 일을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하게 되었다. 그녀는 왜 중국 선교사로 온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학교를 떠날 무렵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그녀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 치푸학교에 와 있는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과 생활함으로써 그녀에게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치푸학교에서 사역을 마친 후

그녀는 중국내지선교회 학생사역 본부가 있던 난징(南京)으로 갔다. 당시 난징은 공산 반란군에 의해 매일 외곽지대에서 쫓겨 오는 피난민들로 북적거렸다. 그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성경반을 인도하였다. 독신이이었으므로 그녀는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였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을 위한 경건의 시간용 책자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것은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난 후 그들 스스로 성경공부를 하는 데 귀한 교재로 사용되었다.

1948년 말 난징은 공산당 활동과 학생 소요로 매우 불안정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미대사관에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난징을 떠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상하이에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혼란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상하이로 사역을 옮겼다. 그녀는 난징에서 했던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의 성경공부반을 인도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상하이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대학 내에 정치서클이 늘어났다. 학생들은 행진이나 정치서클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했으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대규모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공산당은 사람들을 갈수록 심하게 압박해갔다. 성경공부는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고, 8개월이 지나자 외부에서 갓던 성경공부 모임은 사실상 모두 없어졌다. 선교사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고, 1950년 12월 13일 중국내지선교회

도 공식적으로 중국에서의 사역을 철수했다. 그녀가 중국에 온 지 4년. 중국어의 산을 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짓고 중국을 떠나야 하는 그녀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고 고통스러웠다.

중국선교의 종결산 타이완(臺灣)에 남기다

홍콩은 자유를 찾아 중국을 떠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녀는 홍콩 정부의 호의로 얻은 간이 병사주택에 짐을 풀 다음 미국에 갔다. 1952년 1월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사역지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날 응답하셨는데, 중국내지선교회 이사장이 그녀에게 홍콩으로 다시 갈 것과 타이완 성경학교에서 그녀를 초청했음을 알려 준 것이다.

타이완에서 그녀의 사역은 다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녀에게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맡기셨다. 그녀는 타이중(臺中)에 위치한 은혜교회에서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과 타이완 성경학교에서 중국어로 신약, 구약 개관, 교리, 히브리어, 바울서신을 가르쳤다. 청년회에서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모험이자 기쁨이었다.

청년들의 부흥과 성장으로 사역에 대한 열정이 막 타오르고 있을 때, 반갑지 않은 손님이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장흡수부전증(腸吸收不全症)이었다.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수술 후 잘못 먹은 음식 때문

에 구토가 시작되더니 멈추지 않아 탈수상태에 이르렀고 곧바로 무시무시한 진통이 덮쳐왔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일 후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의사들은 의술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여 병원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타이완으로 돌아온 후 성경학교의 일은 그만두고, 교회의 대학생 사역만 전념하였다. 일 주일에 두 번씩 학생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기도모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학생들로 붐볐다. 차츰 학생들은 각각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따라서 기도모임과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날로 늘어났다. 얼마 후 그녀는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를 상담해주는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난징과 상하이에서 중단되었던 대학생 사역을 타이완에서 다시 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살던 집 주위의 여자들을 정기적으로 그녀의 집에 초청하여 말씀을 가르치며 교제하기도 했다. 기도모임과 성경공부에 참여하던 학생들은 성장하여 전도집회까지 열게 되었다. 해마다 열린 청년 수양회를 통해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였다. 그녀가 선교사로 생활하는 동안 타이완의 학생사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타이완 대학내에 있던 여러 기독교 모임이 하나로 연합하여 '학원복음화협회'(Campus Evangelical Fellowship)라는 단체로 태어났

다. 그녀와 처음 성경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성장하여 학생사역의 비전을 갖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전대만대학생 수양회를 개최하는 핵심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던 사역을 학원복음화협회에 넘겼다.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중국인 을 위해 살리라

행정적인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그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여셨다. 많은 교회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그녀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녀는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문제아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녀는 각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따라 필요한 사랑을 주었다. 때때로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격렬한 행동을 할 때는 그녀의 마음이 무척 상했다. 한번은 상담에도 잘 응하고 행동도 고쳐 가던 한 소년이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자신의 헌신을 잊은 채 그가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가 그녀의 집에 왔을 때 그녀가 흘리는 눈물에 마음이 움직인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훗날 그 소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곳의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그녀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청소년 사역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중국인 손에 넘기고 가끔 상담만 했다. 그리고 선교사 초년생들에게 집을 개방하여 중국의 문화를 익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찾아가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나누었다. 그녀는 이 일을 귀하고 거룩한 사역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녀 자신이 '죽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많은 병을 앓아 병든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눈앞에 둔 중국인들을 위해 일하게 하신 것이다.

1975년 어느 날 그녀의 뱃속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수술을 했으나 의사는 그녀에게 두세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3년 후 63세로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그녀 인생 절반을 중국인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 그녀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세 가지 사실을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살하려는 나를 산 길에서 구해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풍성하신 대로 내가 위협에 처할 때나 아팠을 때 그리고 엄청난 치료비를 내야 할 때 물질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영원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기셨고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글/ 안정숙 · 본지편집기자

양장(陽江)의 불경기가 낳은 낮과 밤

황리리(黃麗荔)



폭력과 애로물이 넘쳐나는 영화포스터

햇빛은 청명하기만 하지만 광둥(廣東)성 서쪽 양장(陽江)시 사람은 이것을 누릴 여유가 없다.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햇빛은 무슨 햇빛?” 실직한 지 꼭 1년이 된 양사이(梁賽) 씨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먹는 것을 삼키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잡화점에는 손님이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없이 한가해, 노점상의 주인인 저우(周)씨는 꾸벅 꾸벅 졸고 있다. 미장원의 여종업원들도 지루하고 따분해 서로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눈썹을 손질해 주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거리를 걷다보면 시내에는 한산하고 조용하며 상점 안은 더욱 썰렁하기만 하다.

국유기업의 개혁이 점점 깊이 파고 들면서 중국의 실업문제도 더욱 심해졌다. 중국 통계국은 최근에 도시의 실업률은 4%로 총 실업인수는 이미 8백만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중에 국유기업이 해고한 직원의 숫자가 6백만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양장 시도 실업문제의 어려움을 한껏 겪고 있다. 이곳 정부의 통계숫자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십만은 안 되지만 적어도 몇 만은 더 될 것이다. 도처에 일 없이 빈둥대는 사람들뿐이다”고 했다.

양장시 지방 세무국 국장은 “처음에 실업자는 대부분 노동자로 4만 명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개혁을 실시하면서 감원한 탓에 많은 사람이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루이침에 바이트 실직 통고

28살의 양사이는 양장 국영설탕공장에서 품질 검사원으로 일했다. 상여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매월 천오백 원(元-180 달러)으로 꽤 괜찮은 편이었다. “국영밥”을 먹는 것은 공무원의 수준과 거의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곳에서 성실하게 계속 일하면, 일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하소연하였다.



양장의 새로운 밤의 풍경

그 날, 양씨는 기분 좋게 출근하였다. 어제 5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실직 통고를 받았다. 양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그 때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여자친구 그리고 선전(深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동생 등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교사인 여자친구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컴퓨터를 배우라고 하며, 자신에게 더 충실하라고 격려해주었다. 선전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생은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형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양씨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섰다. 국유기업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감원하는 것 이외에도 사유기업도 지출을 줄이고 자본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양장 켄”은 양장의 전통 수공예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기업의 개혁으로 인해 생산부도 대량으로 감원할 정도니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었다. 양씨는 양장시의 모든 사유기업을 찾아다녔지만 실망감만 잔뜩 안고 돌아와야만 했다. “어떤 공장은 3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일이

있어도 수입이 없었다. 공장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공장은 2백 원을 주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했다”고 양씨는 말했다.

활기없는 낮, 새로운 밤의 풍경

임금을 받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어떤 노동자는 오토바이를 집어타고 막노동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반평생 모은 돈으로 노점상을 차려 과일이나 옷 등을 팔기도 했다. 그러나 장사는 그다지 잘 되지 않았다. 감원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된 웨이(魏)씨는 “경기가 불황인 데다 많은 사람이 실직해 소비력도 자연히 떨어졌다. 하루종일 한 개도 안 팔리는 날도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낮의 양장시는 활기가 없지만 밤에는 특이한 풍경이 펼쳐진다. 나이트클럽에서는 거의 알몸이다시피한 여자가 춤을 추며 손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정식으로 경영하는 이발소나 안마소에서는 “또다른 서비스”라 불리는 것이 있다. 그 곳 주민들은 “가난해지면 질수록 더 퇴폐해져간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밤 11시, 나이트클럽에 술 손님은 북적대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아예 의자 위에 올라 “야오시우링(姚秀玲)”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른다. “야오는 ‘돈’으로 고용한 ‘쇼걸’로, 잠시 후면 그녀의 나체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트클럽 지배인의 말이다. 입장료 50원만 내면 일명 ‘봄빛(春光)’을 실컷 볼 수 있다. 이것이 적잖게 남자를 끌어모으기도 하고 아예 부인이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대범한 남자도 있다.

야오시우링은 마침내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무대에 올랐다. 27, 8살쯤 되어 보인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분홍색 비키니 수영복과 매미 날개처럼 얇은 망사옷을 입고 유연한 몸놀림으로 춤을 추는데, 매우 육감적이다. 그녀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만큼 간들여지는 목소리로 “샤오썬조우이후이(瀟灑走一回: 깊은 물을 한 번 건너보자)”를 부른다. “야오를 선불리 보지 마라. 그래봐도 그녀는 후베이(湖北)성 문화선전공작단이었다.” 옆에 서있던 지배인이 설명한다. 이어 그녀가 외투를 벗으니 관중들은 한바탕 환호성을 보낸다. 그 후 그녀는 무대 밑으로 내려가 관중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남자들은 앞 다투어 그녀에게 입맞추려 하고 그녀를 껴안으려고 한다. 그녀는 뚱뚱한 어떤 남자를 무대 위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은 그의 하체를 만지며 거나하게 취한 얼굴을 바라보는 무대 아래 관중들은 피가 끓는 듯 몹시 흥분한 상태이다.

꼭 이래야만 할까?

야오가 무대 위로 돌아오자 관중들은 일제히 “옷을 벗어라, 벗어라”를 외쳤다. 몇 분 후 야오는 꽃으로 장식되어 세 곳을 가린 검정색의 짝 달라붙은 옷을 입고 무대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의 관능적인 몸동작을 보고 더욱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밤, 입장료로 부족했던 기본 지출을 50%는 채울 수 있었다. “괜찮은 편이다. 만약 나체쇼가 아니었다면 장사는 잘 안됐을 것이다” 지배인 린(林)씨는 말했다. “우리 나이트클럽은 작년에 거의 도산할

뻘했다. 불황이라 실직자는 늘어만 가고 얼마 있는 돈도 다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어, 매일 손님도 몇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손님들은 호기심으로 찾아왔다. 지금은 한 끼 밥 먹는 것도 쉽지 않다.”

무대 뒤에 가서 두꺼운 화장을 지우고 있는 야오링을 만났다. “저도 원래 이런일은 싫어했어요. 어느 여자가 남자가 자기 몸 만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나도 원래 문화선전공작단 출신으로 원래 이곳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좋지 않았고, 갖고 있던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들은 내게 희생할 생각이 있으냐고 물었고, 나는 희생할 생각이 있으며 돈을 벌면 후베이로 다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붉어졌다. “내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26, 7살 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21살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빨리 늙습니다”고 말했다. “결혼은 했습니까?” “어느 남자가 나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있다면 불량배이겠지요. 생각 있는 남자가 어디 자기 부인을 빨건 불빛 밑으로 내몰겠습니까?”

나이트클럽, 가라오케의 ‘더 빛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일부 미장원이나 안마소에서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약간씩 다른 형태의 ‘성(性)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수년전 양장이 막 개발되었을 때 이발소, 안마소 등이 거리 거리의 작은 골목에 대거 들어섰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장사도 잘 되지 않는다. 북쪽에서 온 아가씨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될지 몰라 그저 앉아서 살아남기 위해 이 ‘대담한 서비스’에 몸을 던졌다.

양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들은 사회 풍조가 점점 더 부패해져간다고 했다. “세상 꼴이 점점 말이 아니다. 실직됐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출처/ <亞洲週刊> 97. 12. 15 “陽江不景氣黃潮逐浪高”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금융위기, 중국에는 없는가?

연구부

중국은 당분간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

만, 중국의 금융업이 안고 있는 위험 요소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은행장 따이샹룽(戴相龍)이 말한 바 있다.

따이 은행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 출석, 금융업무에 관해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따이 은행장은 “아시아 일부 국가의 금융위기가 주는 교훈은 한 국가가 착실한 발전을 유지하되 거시경제의 총량 균형을 건지, ‘거품 경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임을 밝히고 금융업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총체적으로 중국이 현재 동남아 일부 국가들과 유사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중국 경제발전이 전체적으로 건전하고 금융정제도 비교적 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자본 이동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 외환보유고가 작년 3백 49억 달러가 증가, 총 1천4백억 달러에 달했고, 인민폐의 환율도 1달러당 8,2796원(元) 선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이 은행장은 또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모두 4백3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외자 유입국이 됐으면서, 중국은 98년에도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대상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 안팎으로 성장할 것이며 시장 개방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말 현재 중국의 대외 채무 상환율, 부채율 및 채무율은 각각 11.81%, 13.97% 및 73.93%로 국제 리스크 표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따이 은행장은 국유 상업은행의 불량 차관 비율이 비교적 높아 일부에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의 문제들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의 기초가 되는 양호한 신용제도나 건전한 금융체계를 흔들고 파괴해, 국가경제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

기도 했다.

그러나 홍콩의 페레그린 그룹이 파산하여 홍콩, 싱가포르 증권이 폭락, 그 어느 곳보다도 중화경제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금융위기가 중국으로 상륙하는 것은 아닌지 하여 중국도 비상 상태이다. 홍콩 증시의 폭락 바람은 홍콩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뒤 북상, 광둥(廣東), 푸젠(福建)을 거쳐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타이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올들어 주가가 10.6%나 빠진 상태다. 가장 큰 피해자는 '레드 칩(red chip)'이라 불리는 홍콩진출 중국기업들. 1월 12일 하룻동안에 무려 평균 21.9%나 가치가 폭락했다.

파산한 페레그린 증권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차이나 머천트 홀딩스나 베이징 엔터프라이즈 홀딩스 등은 24%이상 가치가 떨어졌다.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허용되는 2대 증권시장인 '선전(深圳) B 증시' 및 '상하이(上海) B 증시'도 1월 12일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상하이 증시는 개장되자마자 외국자본 투자자들을 선두로 일제히 '중국주식 팔자'로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일일등락 제한폭인 10% 가까이 떨어져 90년 증시개장 이후 최저 주가(40·897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같은 폭락세는 아시아의 금융센터이자 중화경제권의 두 선두주자인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 신뢰감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믿었던 홍콩이...', '싱가포르마저도...', '이제 숨을 곳은 없다'라는 홍콩 매스컴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한국 및 동남아 금융위기 와중에서 가장 깨끗한 자세를 유지해오던 두 도시가 연초 이후 계속된 '주가 하락 행진'으로 무참하게 박살남에 따라 극도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중화경제권 전체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숙젠 앤드 크로스비 증권사의 스티븐 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홍콩에도 드디어 금융위기가 상륙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서 '신뢰성의 위기'가 확산되어 이것이 다시 아시아 전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룽지(朱鎔基) 중국 부총리는 "중국 원(元)화의 평가절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홍콩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 은행보험증권업계 행장회의에서 "동남아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및 외자유치에 도전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출상품의 경쟁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금융사태와 관련, "홍콩 금융 및 경제의 앞날에 믿음을 갖고 있으며 홍콩은 합리적 경제구조와 엄격한 금융감독관리제도 및 충분한 외환준비금 등으로 금융위기를 억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중국경제에 대한 압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원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국경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견뎌나갈 것으로 믿고 있으며, 중국의 탄탄한 국제수지와 외환보유고는 위기극복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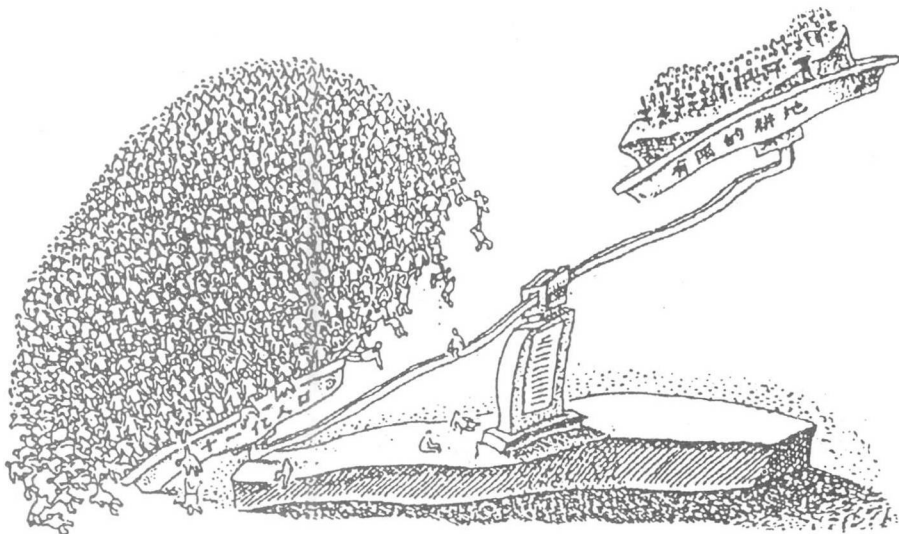
"중국 원화에 대한 환율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 부총리가 몇 차례나 공언했지만, 중국원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암달러 시장에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개선해 중국은 금융시장의 위기에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측과 중국에도 금융위기가 상륙했다고 보는 측이 있는데, 중국도 이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도 '만만디'? (慢慢的)

궈스창(郭士廠)



이미 12억을 넘어선 중국의 인구.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지만 나날이 늘어만 가는 인구로 이제는 경작할 땅조차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지. '만만디'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인구만큼은 '만만디'가 아닌 것 같은데...

원난성의 소수민족(Ⅱ)

김 중 하

하니족(哈尼族)

인구와 분포

하니족의 인구는 1,253,952명인데, 이 중 1,249,300명이 원난(云南)성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원난성의 남부 일대(紅河自治州, 玉溪地區, 西雙版納自治州, 쓰마오지구 등)에 분포하여 살고 있으며, 주로 집거하는 형태이다. 대부분이 산지(해발 800~2,000m)에 거주한다. 그렇지만 하니족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고, 높은 산에서도 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 하니족은 산과 물이 있는 곳에 거주한다.

언어(방언)와 문자

한어(漢語)와 하니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하

니어에는 세 가지 방언(哈雅, 碧, 豪白)이 있으며, 이외에도 10여 종의 토속어들이 있다. 방언은 그 차이가 커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니어는 한장어계(漢藏語系), 장면어족(藏緬語族), 이어지(彝語支)에 속한다.

방언: 하니족의 방언은 지계(支系)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

◎ **하야(哈雅):** 제일 많은 수가 사용하는 방언으로 다시 하니, 야니(雅尼)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니는 장허(紅河) 하니족·다이(傣)족자치주의 뤼춘(綠春), 장허(紅河), 위엔양(元陽), 진핑(金平) 등지에서 사용하며, 야니는 서쌍판나(西雙版納)주의 거랑(格朗)과 쓰마오(思茅)지구의 란창(瀾滄)현 등지에서 사용한다.

◎ **비카(碧卡):** 쓰마오지구의 헤이장(墨江), 푸얼(普洱), 장청(江城), 전위엔(鎮元), 징둥(景東) 등지에서 사용한다.

◎ **하오바이(豪白):** 헤이장, 위엔장(元江) 등지에서 사용한다.

지계(支系)

각 지계마다 자기들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이 달랐으나 1950년대 이후에 정부의 관리하에 가장 많은 수가 사용하는 “하니”로 통일했다.

1. 하니 :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49%), 홍허(紅河)주의 남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2. 야니 : 전체 인구의 14% 정도이다. ‘아이니(僛尼)’라고도 부르며, 시쌍판나 또는 란창현 등에 분포되어 있다.
3. 카두오(卡多) : 15.5%이며, 쓰마오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4. 하오니(豪尼) : 8%이며, 쓰마오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5. 비위에(碧約) : 6.8%이며, 쓰마오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6. 바이홍(白宏) : 5.5%이며, 쓰마오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바이족 자신들이 부르는 이름에 따르면 이외에도 더 있는데, 그 수가 1만 명도 되지 않아 지계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본래는 문자가 없었으나, 지금은 1957년에 정부에서 라틴어 표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준 문자가 있고, 선교사가 만들어 준 문자도 있으나 많이 보급되지 못해 자기들의 문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하니족 소녀.

생활

농업을 주로 하며, 이외에 목재, 광업 등이 발달되어 있다. 1950년 이전에 홍허(紅河)지역의 하니족 사회는 이미 봉건영주제에 속하였고, 지주경제도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쌍판나 지역의 하니족은 다이(傣)족의 봉건통치하에서 여전히 원시적인 생산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니족이 사는 지역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록 산지에 산다해도 거의가 논농사를 짓는다. 특히 그들이 일구어 놓은 계단식 논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유명하다. 논농사 이외에 옥수수, 면화 등을 재배하고 차 등 경제작물도 함께 재배하고 있다. 그리고 하니족 지역에는 석광(錫鑛)이 생산되어 최근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민족역사

하니족은 오래된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이(彝)족, 라후(拉祜)족 등과 함께 자신들의 선조를 창(羌)족이라고 한다. 쓰촨(四川)성 일대에서 유목을 하던 이들은 당나라 초기부터 중원지역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으며, 7, 8세기에 이동을 시작하여 10세기 중엽에 현재의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니족은 지금까지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보다는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 청나라 시절에 이족과 함께 반청(反淸)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실패로 끝났고, 계속 피지배민족으로 살았다.

건축

하니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지이며 물이 있고 숲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역과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로 흙과 나무를 엮어 집을 짓는다. 대부분 2층으로 지붕을 평면으로 하는 ‘토장방(土掌房:tu zhang fang)’을 짓는다. 평면으로 만든 지붕을 곡식을 말리는 등 다용도로 사용한다. 때로는 1층으로 된 가옥도 있고, 지붕도 양면 경사지붕과 사면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시쌍판나와 란창현 지역에 사는 하니족은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대나무와 나무로 ‘용거(攏戈)’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하니족

라고도 불리는 ‘간란(干欄)’을 지어 거주한다. 지붕은 나무로 만들고 위에 짚 등으로 덮는다. 1층은 짐승을 기르거나 나무 등을 쌓아두는 창고용으로 쓰이며 2층에 침실과 주방 등이 있다.

음식

주식은 쌀과 옥수수인데,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찰쌀밥과 ‘바바(粑粑: 쌀로 만든 떡의 종류)’를 먹는다. 홍허강의 남쪽에 사는 하니족들은 노란콩을 발효시켜 말린 ‘떠우구(豆鼓)’를 거의 매끼마다 먹는데 매우 특이한 맛을 지니고 있다. 윈남성의 다른 많은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 대부분이 술(옥수수로 담은 白酒), 담배, 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는데, 시창판나 지역의 하니족은 빈랑(檳榔)을 즐겨 씹기도 한다.

음식에 관계된 문화 중에 특이한 것은, 홍허강 일대에 사는 하니족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 제일 고귀한 손님에게 존경의 표시로 닭의 머리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님에게 밥을 퍼줄 때 일반적인 밥의 양보다 한 주걱 더 퍼서 주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복장

남자들은 절기를 지낼 때를 제외하고는 전통 복을 잘 입지 않는다. 여자들은 입는 양식이

비교적 복잡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전통복장을 잘 보존해온 편이다. 하니족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염색한 청색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 남자는 주로 앞섶이 갈라진 상의에 긴 바지를 입고 검은색, 혹은 흰색의 두건을 두르며 부녀자들은 주로 옷깃이 없고 오른쪽에 섶이 있는 상의와 긴바지를 입으며 가슴에는 은으로 만든 장신구 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복장으로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는 머리에서 구분할 수 있다. 미혼일 경우는 머리를 길게 땋고, 기혼일 경우는 머리를 올린다. 또 바지의 길이로 구분하기도 하고, 허리에 두르는 띠의 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결혼

하니족은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지닌 민족으로,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말하는 편이다. 그래서 산 위에서 나무를 하거나 들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이일 지라도 사랑을 담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면 정이 많은 하니족 젊은이들은 이 노래에 바로 응답한다. 상대방 남자가 노래를 통해 구혼할 경우 여자도 남자가 맘에 들면 그 때부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사귀게 된다.

자유로운 연애가 허용되는 만큼 결혼에 대한 질서가 다른 민족보다 혼란한 편이다.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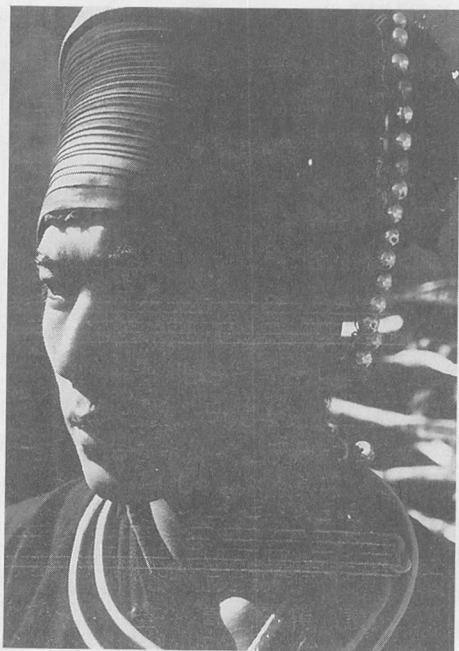
혼과 이혼이 자유롭고 사생아를 낳아도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 사회 분위기이다. 청년 남녀가 서로 사귀며 마음에 들었을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황혼에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은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먼저 잔치에 참석한 어른들과 축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신랑이 떠온 설익은 밥을 먹는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갖겠다는 의미이다. 잔치가 끝나면 신랑의 집에서 첫날밤을 지내는데, 신부가 신랑과의 동침을 거절한다. 만약 첫날밤에 동침을 하면 두 사람의 애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닭이 울면, 신부는 하얀 쌀을 한 움큼 쥐고서 시누이들과 함께 마을 밖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 간다. 우물에 도착하면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을 이미 마셨다는 표시로 손에 쥐고 있던 쌀을 우물 안에 뿌린다. 물을 길어서 돌아오면 모든 집안의 사람이 신부가 길어온 물을 마신다.

하니족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름을 짓는 방식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의 끝자가 아버지의 이름의 첫자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의 끝자가 아들의 이름의 첫자가 된다. 이런식으로 계속 이름을 이어가는 것을 부자연명제(父子連名制)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이어가는 것은 문자가 없는 상황에서 족보를 기억하는 방법이고, 그 집에 속했다는 귀속의식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장례

일반적으로 토장을 행하는데, 노인이 죽었을 경우 상을 널리 알리면 친구들이 돼지, 닭, 쌀, 술 등을 예물로 가져와 제물을 삼개 해서 존중을 표시한다. 출상 전에 평상시 사이가 좋았던 친구가 남아서 하루를 같이 지내도록 한다. 그리고 밤에 청년 남녀들이 모여 상가(喪家) 앞에서 ‘뤄쭈오(落作)’라는 춤을 추고, ‘베이마(貝馬:노래의 일종)’를 부르면서 길을 열어 죽은 사람의 혼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행한다. 묘지를 선택할 때는 높은 곳에서 계



하니족은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진은 하니족 청년)

란을 굴려 계란이 멈추는 곳을 장지로 선택한 후, 토장(土葬)을 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족 중에서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을 청해 장지를 정하기도 한다.

금기

하니족의 금기사항은 많지만 그 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하니족 집을 방문할 경우 ‘취탕(火塘: 식사를 준비하는 기구인 동시에 난방기구로 사용하는 화로)’ 위에 놓여져 있는 삼각대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되며, 삼각대에 젖은 신발이나 옷 등을 말려서도 안된다. 그리고 평상시에 취탕의 불을 발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특히 가정에 상(喪)이 있을 때 불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발로만 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발을 사용하면 매우 불길한 행동으로 집안에 사망을 불러온다고 한다.

시황판나 지역에서는 모자를 거꾸로 쓰거나 벗어서 손에 드는 것을 금한다. 이 지역에 사는 하니족들은 가뭄이 들어 짐승을 잡아

기우제를 지낼 때에만 모자를 거꾸로 하거나 벗어서 손에 든다. 만약 평상시에 이런 행동을 하면 가뭄을 불러온다고 여겨 절대 금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인이건 손님이건 젖은 발로 방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젖은 발로 방에 들어가는 것은 독기운을 방으로 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대나무 통으로 길어온 물로 손을 씻으면 집안 식구가 병을 얻는다고 해서 금하고 있다. 부녀자가 분만하면 외부인의 실내 출입을 금하며, 마을에 들어갈 때는 옷을 걸친 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요절기

하니족들의 절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4대 절기만 소개하겠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전통적인 절기로서 현재는 절기를 지키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는 지역도 있다. 하니족 대부분의 절기는 농사, 종교와 관계가 있다.

10월년(十月年: shí yuè nián)

하니족의 역법(曆法)에 의하면 10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다. 시월년을 하니어로는 ‘짜러터(紫勒特)’ 또는 ‘미쉬짜(咪素紫)’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새해를 지낸다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시기는 첫 번째 용의 날에 시작해서 원숭이의 날에 마친다. 주요활동으로는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맞으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치우첸(秋千: 그네), 모치우(磨秋: 시소 같은 모양이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을 그리며 돈다), 뽀이창(對唱: 보통 남녀가 팀을 나누어 서로 주고받으며 노래 시합을 한다. 이때 노래의 내용은 이어져야 한다), 춤, 씨름 등이 있다. 그리고 절기가 시작되는 용의 날 저녁에는 등을 켜서 밤새도록 밝힌다. 등을 밝히는 이유는 조상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새해를 같이 지내게 되는데, 집을 잘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절기 동안에는 바바(把把)를 만들어 먹고 닭과 돼지를 잡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큰 길에 음식을 차려 놓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식사

를 하기도 한다.

쿠짜짜제(苦紫紫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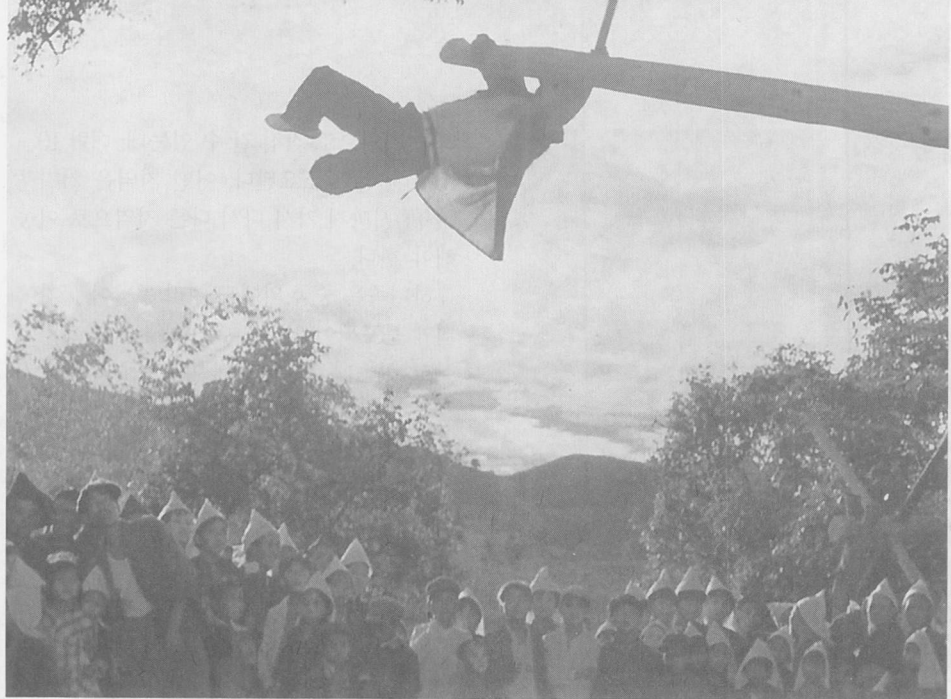
음력 6월 24일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5월에 지내기도 한다. 쿠(苦)는 6월이란 의미이고, 짜(紫)는 지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6월년(六月年)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전 마을이 함께 지내는 종교제사 활동이며, 농사와도 관계가 깊은 농사제사 활동이기도 한 하니족의 종교절기이다. 지금은 많이 변해서 종교신앙에 상관없이 행사에 참여해서 즐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절기의 주요 행사는 10월년과 비슷하다. 밤에는 모여 춤을 추면서 청년들이 짝을 찾아 정을 나누기도 한다.

신미제(新米節)

창신제(嘗新節)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음력 7, 8월에 지내는 제사절기이다. 하니어로는 ‘휘시짜(活息紫)’ 또는 ‘처시짜(策息紫)’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곡식과 쌀로 밥을 해 먹는다는 뜻이다. 신제에는 다른 절기에 비해 지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새로운 곡식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하니족이 사는 지역마다 해발의 차가 심해 각각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제에 때는 밥을 한 시루 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때 반드시 묵은 쌀을 아래에 놓고 위에는 햅쌀을 놓아 밥을 지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묵은 쌀이 떨어지기 전에 햅쌀을 거두어 들여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또 내년에도 계속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신미제를 지낼 때는 시집갔던 딸들도 친정으로 돌아와서 함께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약간의 햅쌀을 갖고 찾아와서 새로운 좋은 소식들을 나눈다. 한국의 추석과 비슷하게 지내는 절기인데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산제(祭山節)

음력 4월에 모내기를 끝내고 지산제를 지낸다. 산신(山神)에게 기도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마을의 안녕과 풍성한



새해에 하니족들은 팀을 나누어 그네타는 시합을 한다(사진은 그네를 뒹고 있는 모습).

수확을 주로 기원한다. 지산제를 지내는 첫날 모든 가정의 남자들이 다 참가하는데,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쌀이나 곡식을 갖고 온다. 만약 한 지역의 제사를 진행하게 될 때는 소를 제물로 하고, 한 마을의 제사일 경우는 돼지를 제물로 한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로 잔치를 열며, 날고기는 절대로 마을로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이들 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젊은 남녀들에게는 서로 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절기를 통해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졌다.

하니족의 역법

1년을 12개월로 나누고,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1년을 3계절로 나누는데, 추운 계절(冷季), 따뜻한 계절(暖季), 우기(雨期)로 나누고 한 계절을 4개월씩 계산한다. 이 계절을 양력과 비교하여 계산하면 대략 추운 계절은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 따뜻한 계절은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우기는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니족의 새해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종교

하니족은 만물에 다 영이 있다는 원시종교를 갖고 있다. 유일신 사상과 같은 현대의 종교 개념은 없다. 그래서 과거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여 보편적인 대중종교로 자리잡지 못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하니족들이 조상숭배와 다신숭배를 하며 ‘베이마(貝馬)’와 ‘니마(尼馬)’로 불리는 두 종류의 박수가 있다. 베이마는 남작박수로서 경전을 읽고 악귀를 쫓아내며 혼을 떠나 보내는 등의 비교적 큰 종교활동을 주관하며, 니마는 남녀 모두 있으며 사람들에게 길흉을 점쳐주고 무술과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일을 주로 주관한다.

하니족의 주된 경제수단이 농업인 관계로 대부분의 종교활동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과거에 농사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오직 자연의 힘에만 의존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종교활동이 농사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

1940년대에 선교사가 활동하기는 했지만 현재의 기독교인은 많지 않다. 현재 약 4만 8천



하니족은 단결하는 힘이 강하다
(사진은 절기를 즐기고 있는 하니족 노인들)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하기는 하나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성정은 부분적으로 번역되어 있다. 어떤 지역은 한족(漢族)조차도 다른 소수민족지역에 비해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하니족은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민족이고 금기사항도 많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 다른 종교들도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보편성을 지닌 대중종교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들은 종교성이 강하고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짙다. 하니족은 단결하는 힘이 강하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선교의 전략만 잘 세워서 복음을 전한다면 한 마을에서 몇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을 모두 구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니족 지역을 가려면

한국에서 홍콩,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를 경유하여 윈난성 쿤밍(昆明)에 도착한다. 쿤밍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보길 원

하는 지역으로 직접 갈 수 있는데, 대략 10~15시간 정도 소요된다. 어떤 지역은 거지우(個舊)시까지 가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하니족은 중국 외에도 여러 동남아 국가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베트남에 1만 명 가량이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1945년 이후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니족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다. 라오스에도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각 지파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며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불리는 이름은 아카(阿卡)이다. 6만 명이 살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불리는 이름이 가오(高)족, 이가오(依高)족이고 자신들이 부르는 이름은 아카(阿卡)이다. 태국(35,000명)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부르는 이름은 아카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카거(卡戈), 이거(依戈), 거(戈) 등이다.

기도제목

1. 완전한 성경번역이 이루어지도록
2. 이 민족을 향한 복음의 발길이 많이 일어나도록
3.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되도록
4. 현존하는 신자들이 바른 말씀훈련과 기도로 성장해가도록

참고서적

1. 「云南簡史」, 云南人民出版社
2.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3. 「中國少數民族概觀」, 天津古籍出版社
4.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5.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出版社
6. 「云南宗教概況」, 云南大學出版社
7. 「하니족社會歷史調查」, 云南民族出版社
8. 「하니족文化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9. 「하니족自然宗教形態研究」, 云南民族出版社
10. 「하니족節日」, 云南民族出版社
11. 하니족間史」, 云南人民出版社
12. 「하니족」, 民族出版社
13. 「(紅河, 墨江, 普洱, 元江)自治州概況」, 云南民族出版社

라후족(拉祜族)

인구와 분포

라후족의 인구는 411,476명이며, 이 중 408,304명의 인구가 윈난성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 중국의 인구조사가 1982년과 1990년에 있었는데,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라후족의 인구증가율은 35.28%이다. 윈난성의 란창현, 맹렌(孟連)현 및 윈난성 서남쪽 변경지역(란창, 시멍)에도 일부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산지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와 문자

라후어는 크게 라후시(拉祜西), 라후나(拉祜納) 2개의 방언으로 나뉘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방언을 사용한다.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한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어떤 지역에서는 다이(傣)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957년에 본래 있던 자모를 기초로 해서 새로 만든 문자가 있고, 서양 선교사들이 라틴 자모형식을 빌어 만든 것을 기초로 한 라틴어 병음문자도 있다. 자기들의 문자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만 공공기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형편이다.

생활

1950년 이전 라후족의 사회경제는 란팡현 동북부지역에서는 이미 봉건지주 경제 단계에 있었으나, 서남부지역은 봉건 토사(土司) 영주제도(세습추장제)하에 생산이 낙후되고 일부 지역은 원시농업단계에 있었다. 현재는 농업 위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벼, 옥수수, 찻잎, 마 등 경제작물과 소나무, 삼나무, 녹나무 등의 경제적 목재가 있어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도시 등 한족과 근접한 지역에선



라후족 전통복장을 입은 소녀

경제가 비교적 활성화되었고, 최근 들어 공업도 발전되기 시작했으나, 산간지역은 아직도 수렵, 야생식물채집 등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민족역사

라후족의 선조는 고대의 창인(羌人)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헌상에는 진(秦), 한(漢)나라 시절에 이(彝)족과 함께 한 무리로 되어 있다가 당(唐)나라 때부터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목을 하던 라후족은 본래 지금보다 약간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0세기 후에大理(대리: 바이(白)족이 윈난성 일대를 다스렸었다) 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점점 동남쪽으로 이주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주 후에 이들이 사냥을 주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라후(사냥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냥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민족은 지금도 매년 초 3일 동안 활쏘기 대회를 연다.

라후족은 자칭 라후, 라후나(拉祜納, 黑拉祜), 라후시(拉祜西, 黃拉祜), 라후푸(拉祜普, 白拉祜) 등으로 불리다가 1950년 이후 중국 정부에 라후족으로 통일되었다. 현재에도 자기

들은 여러 지계(支系)로 나누어서 구분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두 개의 지계, 즉 라후시(拉祜西)~란창장(瀾滄江) 동쪽과 라후나(拉祜納)~란창장(瀾滄江) 서쪽으로 나누었다.

이웃 민족과의 관계

라후족은 한족, 다이족, 이족, 와(佤)족 등과 함께 섞여 살기도 한다. 한족, 다이족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문화는 한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전통적인 문화는 다이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주요절기

취타제(擴塔節)

음력 1월 1일인 이 절기는 음력설로 활동이 9일 동안 진행된다. 9일 동안 계속되지는 않고,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지낸다(1기: 1일부터 4일, 2기: 8, 9일, 3기: 13일부터 15일). 특이한 것은 명절이 되면 떡을 해먹는데, 떡을 농기구 위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다. 이것은 농기구들이 농사를 위해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명절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초하루 첫닭이 운 다음 남녀 청년들이 샘으로 달려가는데, 그 이유는 첫날 가장 먼저 샘물을 길는 사람은 1년 동안 재난과 화를 피할 수 있다고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으며, 둘째날부터 음식과 선물을 들고 친척 집을 찾아다니며 새해인사를 한다. 셋째 날부터는 '뤄성(芦笙: 갈대로 만든 피리 종류의 악기)'을 불며 춤을 추는 등 민족 활동을 즐긴다.

아이라오(哀牢)산에 사는 라후족은 매해 정월 3일에 '지양선(祭羊神)'을 크게 지낸다. 이날은 모든 마을의 남자들이 사냥도구를 갖고 산으로 가서 사냥한 것을 가지고 '양선(羊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양선은 마을의 뒤에 있는 삼림 속에서 풍수학적으론 위치가 가장 좋은 곳에 있는 크고 빛나는 돌을 일컫는다. 양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을과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원을 하기 위해

서이다.

화바제(火把節)

음력 6월 24일에 지내는 것은 다른 민족들과 동일한데, 절기를 지내는 방법과 이유가 다르다. 전설에 의하면 하늘의 '어쌔(厄薩)'가 매해 음력 6월 24일에 인간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했는데, 짜누짜비에(紫努紫別)가 라후족 사람들을 이끌고 "농사 짓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어쌔(厄薩)에게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자 노한 어쌔는 태양과 달을 모두 감추어 버렸고, 7일 동안 해도 달도 뜨지 않아 사람들은 캄캄한 가운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도 할 수 없게 되자 짜누짜비에가 소의 뿔에 관솔불(松明)과 밀납을 묶어서 대지를 밝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 아래에서 농사도 짓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고 결국은 어쌔를 이긴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라후족은 매년 6월 24일 밤이 되면 짜누짜비에를 기념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관솔불이나 밀납으로 촛불을 만들어 불을 밝히고 닭을 잡는다.

신미제

이 절기는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에 진행되는데 정해진 날짜는 없다. 어떤 집에서 먼저 수확을 하면 먼저 절기를 지낸다. 절기에는 꼭 새로 나온 곡물로 음식을 하고 새 과일들을 먹는데, 먼저 신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먹는다.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먹으면서 그 해의 수확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 축제이다.

바위에위에위엔제(八月月圓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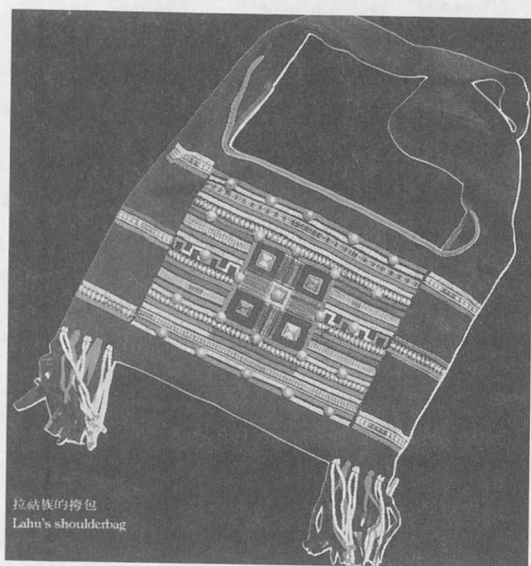
음력 8월 15일 저녁에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곡식과 과일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달에게 제사를 지내는 절기이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달이 인간을 위해서 농사를 짓도록 여러 절기를 적합하게 구분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 절기를 지낼 때 달이 떠오를 무렵, 모든 가정에서는 준비한 과일과 곡식을

작은 탁자 위에 배열해 마을 뒷산(전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산)으로 가서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때 준비하는 제물에서 배는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개가 젊은 남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날짜가 시작되었다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후성을 불며 춤을 추고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즐긴다.

건축

라후족의 방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장려우팡(掌樓房)’이라고 부르는데, 2층으로 나누어서 위층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아래층에는 가축을 기르거나 장작 등을 쌓아두는 장소로 사용한다. 또 다른 하나는 ‘뤄띠팡(落地房)’이라고 부르는데 단층으로 지은 초가집이다. 대부분이 장려우팡에 거주하고, 한족이나 이족과 함께 살거나 이웃하여 사는 라후족들은 뤼띠팡에 거주한다.

집안의 구조는 ‘아커우(阿扣)’, ‘차마디타(插馬底塔)’, ‘지타(吉塔)’ 세 부분으로 나눈다. 아커우는 침실이고, 차마디타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하며,



拉祜族的挎包
Lahu's shoulderbag

라후족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지타는 베란다 형태로서 빨래 등을 말리는 장소이다.

복장

이미 많은 마을들에서 남자의 전통복장을 찾아보기란 힘들고, 절기 때에나 조금씩 보게 된다. 대개 옷깃이 둥글고 깃이 짧은 적삼을 입고, 하의는 품이 넓고 큰 긴 바지를 입으며, 머리에는 검은 수건을 쓴다. 여자들은 옷솔기가 터진 긴 두루마기를 입는데, 옷깃 주위와 솔기가 터진 양쪽에는 모두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 몇 가지 무늬를 넣는다. 옷깃과 옷솔에는 은빛의 거품모양을 새긴다. 아래에는 검은색으로 긴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검은천으로 된 ‘바오터우(包頭)’를 쓴다. 어떤 지역의 라후족은 중국전통 복장과 다이족 복장을 입기도 한다.

음식

주식은 쌀이고, 부식으로 옥수수나 메밀을 먹는다. 라후족은 매운 것을 좋아하며 특히 고추를 즐겨 먹는데, 끼니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들은 “라후족에게 있어서 고추는 한 족들에게 기름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고추를 많이 먹는다.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가장이 먼저 밥을 뜨고 그 다음에 손님이 뜬다. 그리고는 나이순으로 가족들의 밥을 뜬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닭을 잡아서 닭죽을 끓여 손님을 접대하는데, 절대로 흰 닭을 잡아서는 안 된다. 만약 하얀 닭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그것은 절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후족은 차와 술을 즐겨 마신다.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차와 술은 빠지지 않는다. 손님이 집에 왔을 경우 식사를 제대로 대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술은 반드시 대접한다. 그리고 술을 마실 경우 꼭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있다. 담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겨 핀다. 특히 자기들이 재배한 담배인 란옌(藍烟)을 즐기는데 맛이 특이하고 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혼

라후족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하며, 부모가 결혼에 간섭하는 일도 적다. 그렇지만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경우는 아주 적다. 어떤 지역에서는 동성과 근친의 결혼도 금하고 있다. 라후족 남자가 결혼할 연령에 이르면 결혼할 대상을 자신이 찾는다. 대상을 찾는 방법은 구혼가를 불러서 찾는다. 만약 청년이 연애했던 대상을 찾게 되면 이들은 강가나 숲 속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다져간다.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서약을 한다. 이때 이들의 서약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서약을 한 후에 어느 한쪽에서 위반하는 경우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서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서로간의 애정이 확인된 후, 남자 편에서 중매인에게 선물을 들려서 여자의 집으로 보내 결혼을 의논한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부모들은 남자의 가정에 대해 묻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는 반대하지 않는다. 여자의 부모들이 결혼에 동의했을 경우 중매인은 갖고 온 선물을 여자의 부모에게 전한다. 중매인을 통해서 결혼이 확정되면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 여자의 집에 가서 3년을 지낸다. 3년 후에는 일반적으로 독립을 하고, 적게는 다시 남자의 집으로 간다.

장례

라후족은 조상숭배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장례를 매우 중요시한다. 전통적으로 화장(火葬)을 하고, 일부는 토장(土葬)을 한다. 라후족은 사람이 죽은 후 출상하기 전에 ‘모바(磨八)’라고 하는 무당을 초청하여 죽은 혼을 부르게 한다. 혼을 부를 때에는 밥 한 그릇, 약간의 소금, 두 자루의 쫓불을 켜놓고 기도를 한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두 여인이 햇불을 켜서 출상(死者)을 인도하여 장지까지 간다. 이 때 장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 장례를 마친 후에 장례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쌀을 한 그릇

씩 갖고 상가로 가서 함께 밥을 해 먹는다.

금기

라후족에게는 금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특히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를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들은 개고기 먹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조상이 개의 젖을 먹고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가 오곡의 종자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를 때리거나 죽이는 것을 절대로 금하며,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

또한 마을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베거나 꺾으면 안 된다. 마을 주변의 나무들은 마을의 상징이자 마을을 보호해주며 평안과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령이기 때문이다.

손님이 라후족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으면 손님이 식사를 했건 안했건, 또는 술을 마실 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반드시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셔야 한다. 또 식사를 할 때, 주인이 닭을 대접하면 손님이 먼저 닭의 머리를 먹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인이 닭의 머리를 집어다가 손님의 밥에 놓는데, 사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해가 바뀔 때 라후족 지역을 방문한다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금기가 있다. 라후족은 음력 12월 말이 되면 마을의 입구들을 봉쇄한다. 마을로 향하는 모든 길에 상징적으로 장애물을 놓아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는 칼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동물이나 초목을 상하는 것도 금하며, 외출하는 것도 금한다. 손님들도 이 때는 외출을 할 수 없다. 특히 여자가 외출을 하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금한다. 만약 이런 시기에 라후족 마을을 방문하기 원한다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금기사항이다.

악기

이들의 악기는 후성(芦笙), 산센(三絃: 현이

세 개인 기타 종류의 악기), 통소, 피리 등이 있다. 후성은 라후족들에게 가장 널리 보급된 악기로, 이를 가진 청년 남자들은 모두 취주를 할 수 있다. 새해가 되면 라후족 마을 도처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후성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라후족에게는 특별한 악기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나뭇잎이 아주 좋은 악기가 된다. 라후족들은 나뭇잎을 이용해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의 소리, 자연의 소리, 바람의 소리 등도 묘사해낸다. 젊은 청년들이 연애했을 때 노래를 통해서도 하지만 때로는 나뭇잎을 부는 것으로 서로의 정을 주고받는 일도 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나뭇잎 부는 것을 배운다.

종교

라후족의 주된 종교는 만물에 영이 있다는 정령신앙과 다신숭배의 원시종교이고, 대승불교 및 소수의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대승불교는 청나라 초기에 라후족 사회에 전해졌는데, 전래되는 과정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단 불교가 전해진 후에는 종교로 인해 한족과의 교류가 더욱 많아

지면서 많은 선진 문화와 농사법을 받아들여 라후족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며 환영하는 편이다. 라후족이 믿는 다신 중에 가장 큰 신은 여샤(厄霞)인데, 이는 수호신으로서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였으며, 만물의 주재이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기독교

20세기 초 미얀마를 통해 선교사가 들어와서 당시에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었고, 현재 약 5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하기도 하나,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형편이다. 일부분의 성경과 일부 신앙서적이 번역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복음이 그리 왕성한 편이 못 된다.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짐승을 죽여 제사하는 습관 등 일부 낙후된 문화가 바뀌었고, 자유결혼, 일부일처제 등의 풍습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경제나 문화 방면에서 인근 민족들을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편이다. 필자가 라후족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사는 모습은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그리 발달하지는 못했지



라후족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하며, 부모가 결혼에 간섭하는 일은 적대(사진은 라후족 아가씨들).



라후족 남자들은 머리에 검은천으로 된 '바오터우(包頭)'를 쓰고 다닌다. 사냥을 할 때 화살을 바오터우나 옷에 꽂고 다닌다.

만 인정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하며 낯선 사람이 왔어도 적대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식사대접도 한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민족의 문화에 대해 잘 연구하여 적합한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외부인에 대해 쉽게 자기들을 열고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불교가 자기들에게 주는 도움이 많았다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다면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이 민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며 적합한 전략을 갖고 나아가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언젠가 라후족에 대해 한국에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T.V로 방영도 되었는데, 라후족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 70~80%가 같다고

보도한 것으로 필자는 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방언을 사용하는 라후족들을 조사해보았지만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 그렇게 접근된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아마도 보도된 부분들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라후족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분포되어 있어 연구에 참고할 수 있다. 미얀마에 8만 명, 태국에 1만 5천 명, 라오스에 1만 5천 명, 베트남에 6천 명 등이 살고 있는데, 불리는 이름은 '머썸', '카꾸이' 등이다.

라후족 지역을 방문하려면

한국에서 홍콩, 베이징, 상하이로 경유하여 쿤밍에 도착한 후 쿤밍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쓰마오까지 대략 16시간 정도 소요된다. 쓰마오에서 가고자 하는 지역(西盟, 瀾滄, 孟連, 景谷, 鎮沅, 雙江, 臨滄 등)으로 다시 연결된다.

기도제목

1. 라후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2. 라후족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성령께서 제하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3. 라후족을 향한 복음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참고서적

1. 「云南簡史」, 云南人民出版社
2.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3. 「中國少數民族概觀」, 天津古籍出版社
4.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5.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出版社
6. 「云南宗教概況」, 云南大學出版社
7. 「西南少數民族風俗志」, 中國民間文藝出版社
8. 「中國少數民族節會大觀」, 江西教育出版社
9. 「拉祜族社會歷史調查(1, 2)」, 云南人民出版社
10. 「(雙江, 瀾滄, 孟連)自治縣概況」, 云南民族出版社

김중하/ 중국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摸話

남의 말을 줍다니!!



둘째 사위가 장인어른의 생신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찔찔매고 있었다.

그 때 아내는,

“당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장인어른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 하세요.’”

사위는 길을 가는 동안 이 말을 열심히 외웠다. 그런데 강을 건너면서 그 말을 잊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두 구절이 분명히 강물에 빠졌을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른채, 염치불구하고 장인어른을 뵈었다. 드디어 축하가 시작되었는데…
큰 사위가 이렇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장인어른.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 하세요!”

“당신이 나의 말을 뒤에서 듣고, 강물에 빠뜨린 내 말을 잘도 주워서 하는구나!”

那樣熱心于信耶穌呢?

Nàyàng rèxīn yú xìn Yēsū ne?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까?

북경에서 여행 중, 김 집사는 북경의 택시 기사와 대화하던 중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

司機: 您去哪儿? (어디로 가십니까?)

siji: Nín qù nǎr?

金 執事: 去北大南門。(북경대학 남문으로 갑시다.)

Jīn zhíshì: Qù Beidà nánmén.

司機: 問一下, 請問 您是韓國人嗎? (혹시 한국사람 아십니까?)

siji: Wèn yí xià, qǐng wèn nín shì Hánguó rén ma?

金: 您怎麼知道? (어떻게 아셨습니까?)

Jīn: Nín zěnmē zhīdao?

司機: 聽口音就知道。不知您是信耶穌?

siji: Tīngkǒuyīn jiù zhīdao. Bú zhī nín shì bú shì xìn Yēsū?

(말소리를 들어보니 알겠군요. 혹시 예수 믿는 분 아십니까?)

金: 原來如此。(네, 그렇습니다.)

Jīn: Yuánlái rúcǐ.

司機: 韓國人爲什麼, 那樣熱心于信耶穌呢?

siji: Hánguó rén wèi shénme, nàyàng rèxīn yú xìn Yēsū ne?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겁니까?)

金: 因爲耶穌愛我所以如此嘛。

Jīn: Yīnwèi Yēsū ài wǒ suǒyǐ rúcǐ ma.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司機: 那麼, 耶穌怎麼愛你呢。

siji: Nàme, Yēsū zěnmē ài nǐ ne.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金: 我是個罪人, 又不認識神。看了聖經, 曉得了耶穌是復活的主, 他赦免了我一切的罪。

Jīn: Wǒ shì ge zuì rén, yòu bù rènshi shén. Kàn le shèngjīng, xiǎode le Yēsū shì fùhuó de zhǔ, tā shèmiǎn le wǒ yíqiè de zuì.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부활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熱心(rè xīn): 열심히 하다.
曉得(xiǎo de): 깨닫다, 알다

司機(sī jī): 택시 운전기사
赦免(shè miǎn): 용서하다, 사면하다

후성도/ 중국사역자

我要歌頌祢聖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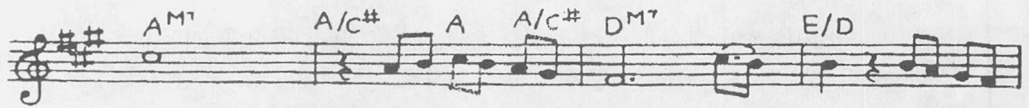
나는 찬양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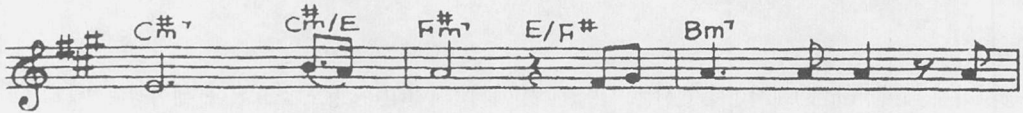
我 要 歌 頌 聖 名, 哦 主! 歌 頌 祢 聖
Wǒ yào gē sòng shèng míng, ǒ zhǔ! gē sòng nǐ shèng
워 야오 게 송 성 명, 오 주! 게 송 니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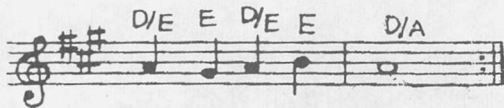
名, 哦 主! 因 祢 聖 名 至 高 配 得 讚
míng, ǒ zhǔ! yīn nǐ shèng míng zhì gāo pèi de zàn
밍, 오 주! 인 니 성 명 즈 까오 페이더 잔



美。 我 要 歌 頌 祢 聖 名 哦 主! 歌 頌 祢 聖
měi Wǒ yào gē sòng nǐ shèng míng ǒ zhǔ! gē sòng nǐ shèng
메이 워 야오 게 송 니 성 명 오 주! 게 송 니 성



名, 哦 主! 因 爲 祢 聖 名 至
míng, ǒ zhǔ! yīn wéi nǐ shèng míng zhì
밍, 오 주! 인 웨이 니 성 명 즈



高 配 得 讚 美
gāo pèi de zàn měi
까오페이더 잔 메이

우리말 가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유재승

뤄양(洛陽)

정저우(鄭州)

뤄양

은 역대 9왕조가 도읍을 정했던 곳으로 ‘九朝의 都市’라 불린다. 시안(西安)이 정치의 도시라면, 뤼양은 예술의 도시로 전국시대의 노자, 당대의 두보, 이백, 백낙천 등 많은 문인과 예술가가 활약했던 도시이다.

뤄양으로 가는 길

비행기

뤄양공항까지 베이징(北京)에서 1시간 25분, 시안(西安)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베이징에서는 주 2회의 항공편이 있고 광저우에서는 주 4회의 항공편이 있다.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샤먼(廈門) 등지에서도 항공편이 있다.

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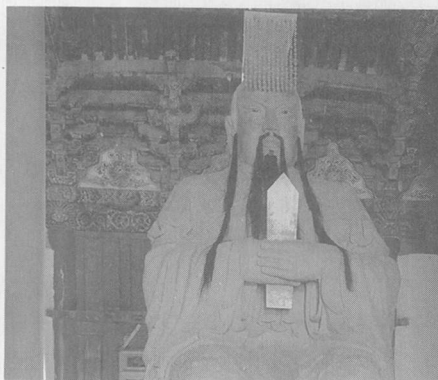
베이징에서 터콰이로 10시간 30분, 상하이에서 즈콰이로 18시간 30분, 시안에서 터콰이로 6시간, 카이펑(開封)에서 터콰이로 3시간 30분, 정저우(鄭州)에서 터콰이로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장거리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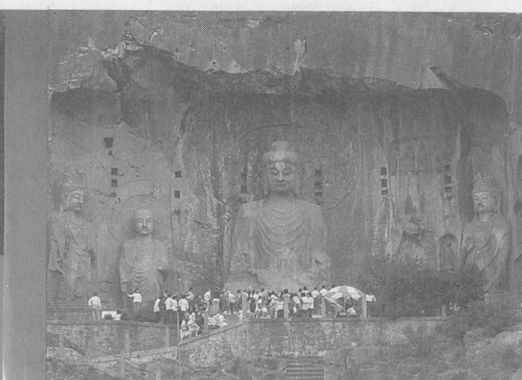
정저우에서 뤼양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수시로 운행한다. 카이펑에서는 5시간 30분 소요되는데, 하루에 5회 정도 운행한다. 베이징, 톈진(天津), 우한(武漢)에서도 버스가 있다.

뤄양 시내의 교통

뤄양역 앞은 버스터미널도 있어, 시내를 두루 통하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인 곳이다. 미니 버스들도 많으며, 택시는 역 앞 광장에 상주하다시피 한다. 예전과는 달리 개인 영업 택시도 있다. 뤼양의 거리는 구시가와 확실하게 구분된다. 각각에는 철도역이 있다. 신시가와 구시가의 경



낙양 관림당에 있는 관우상(關羽像).



낙양 근교에 있는 용문석굴.

계는 시관(西關)이다. 이곳은 큰 로터리로 되어 있고, 주변에 작은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이 모여 있다. 5, 8, 9, 18, 52, 53, 54, 82, 87路 버스 노선의 기점이다. 다른 노선의 버스들도 이곳을 통과하는 것이 있으므로 시내로 가려면 이곳에서 갈아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

뤄양외의 관광명소

왕성공원(王城公園)

시내 중앙에 걸쳐서 펼쳐지는 왕성공원은 주나라의 왕성 유적이었는데, 본래 노동인민공원이 라고 불렸다. 공원 내에는 2개의 한(漢)대의 묘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 견학할 수 있다. 묘의 앞방과 뒷방에 그려진 장식 벽화는 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왕성공원은 모란(牡丹)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뤼양은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모란 재배로 유명한 곳이다. 일명 '모란화성(牡丹花城)'이라고 불릴 정도로 4월 15일~25일 사이의 11일 간은 모란 축제가 열려 왕성공원을 중심으로 도시에는 모란꽃이 아름답게 핀다.

뤄양박물관(洛陽博物館)

시 중심 부근에 세워진 3층 건물의 뤼양박물관은 해방 후인 1958년에 설립되었다. 관내에는 뤼양 주변에서 출토된 약 800점의 유물이 시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당삼채(唐三彩)로, 당(唐)나라 때의 독특한 유약 광택이 아름다워 눈길을 끈다. 이 외에 58만 년 전의 거대한 상아 화석을 비롯해 당나라 때 동으로 만든 거울이나 나전칠기 등 다양한 출토품이 진열되어 있다.

뤄양민속박물관(洛陽民俗博物館)

중국의 민간 공예품, 자수나 은 장신구 등을 전시하고 있는 독특한 박물관이다. 결혼식하는 장면을 인형과 음악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문화 양식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관림당(關林堂)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의 용문(龍門)석굴로 가는 도중에 삼국지로 유명한 관우(關羽)를 기리

는 관림당이 있다. 삼국 시대 촉(蜀)의 장군이었던 관우는 오(吳)나라 손권(孫權)과 싸워 후베이(湖北)성의 쉬안창(瑞昌) 근처의 탕량에서 패했다. 손권은 위나라 조조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관우의 목을 잘라 보냈다. 이에 조조는 관우를 의사(義士)라하여 제후의 예를 갖추어 이곳에다 극진히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관림당에는 장대한 관우상 외에 역대 묘지의 비석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이 있고, 건물의 벽면에는 삼국지의 명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관우가 사용하였다고 하는 3m 정도되는 칼도 있다.

향산사(香山寺)

룽먼석굴 건너편 강가에 있는 향산(香山)은 석굴의 수는 적지만 산중턱에 중당기의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방문했던 것으로 유명한 향산사가 있다. 향산사와 백거이는 우리에게 백낙천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의 시는 대중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평이하고 명쾌한 것이 특징으로 대표작으로는 장한가, 비파행 등이 있다.

망산(邙山)

뤄양시의 북동 쪽에 있는 산으로 황허 줄기의 남쪽가에 병풍처럼 이어져 있다. 중원의 땅을 지키는 자연의 요충지로, 옛날부터 '수저우와 항저우에 태어나, 망산에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할만큼 아주 이상적인 명당 자리로 생각되어 왔다. 우한의 광무제능이나, 북위의 효문제능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황허(黃河) 또한 일품이다.

뤄양의 십자교회

삼자 교회명	주 소	전화 번호	예배시간
明新街教會	洛陽市 老城區 明新街 49號	0379-351828	주일 8시, 2시반
興隆街禮拜堂	洛陽市 興隆街 73號	0379-3953349	주일 8시, 2시반

정저우는 멀리 우루무치를 지나 란저우와 시안을 지나 련윈(連雲)항까지 계속되는 룡하이선(隴海線)과 중국 남부를 잇는 징광선(京廣線)이 만나는 교통의 십자로이다. 시의 북부에 황허가 지금도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정저우는 황하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정저우로 가는 길

남북으로 달리는 경광선과 동서로 달리는 농해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정저우는 거대한 중국의 십자로 격인 곳이다. 베이징에서 695km 떨어져 있고, 터콰이로 9시간 걸린다. 상하이에서는 1,000km 우루무치행 터콰이로 14시간 40분 걸린다. 시안(西安)에서는 511km, 7시간 50분이다. 비행기로는 베이징에서 1시간 30분 걸리고 1주에 여러 편 있으며, 광저우에서는 약 2시간, 매일 1~2편이 있다.



정저우의 상성 유적.

정저우의 관광명소

상성유적(商城遺跡)

정저우 안의 25km² 되는 넓은 지역에 유적과 유적 중앙부에서 7km에 이르는 성벽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안양(安陽)현의 은허보다 시대가 빠른 상(商)대 전기의 도시 유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주거 자리와 청동기의 공장 등도 발견되었다. 출토품은 현재 허난성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주거 유적 이외의 곳은 자유롭게 볼 수 있다.

허난성박물관(河南省博物館)

양사오, 룡산 문화의 신석기 시대 출토품과 시내의 상성 유적으로부터 출토된 청동기, 석기제의 주기(酒器) 등을 전시하고 있다. 수

장품은 100만 점으로 중국 제일의 박물관이다.

황허유람구(黃河遊覽區)

시의 북쪽을 흐르는 황허유역이 유람구로서, 약 3,000점의 석비를 가지고 있는 황허비림과 석각 미술관, 우왕상 등이 있다. 근처에 동굴의 형태를 한 주거 스타일의 음식점이 있어 이곳에서 먹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2.7기념탑(二七記念塔)

정저우시의 중심인 2.7광장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탑으로 5각 기둥 2개를 맞춘 모양이다. 1923년 2월 7일에 철도 노동자가 총파업을 벌인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높이 263m이며, 지하를 포함해서 14층이다. 각층에는 전시품도 진열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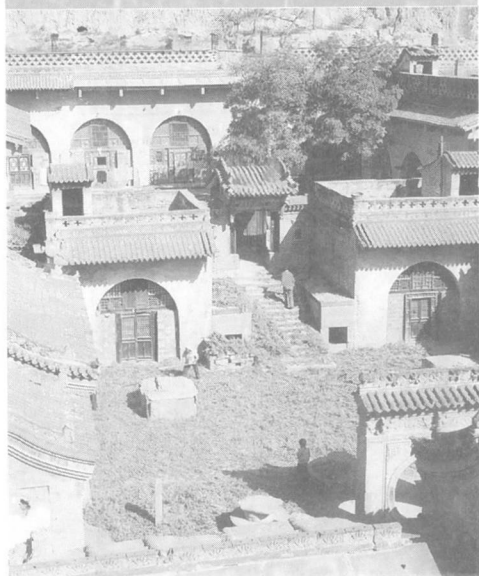
정저우의 삼자교회

삼자 교회명	주 소	전화 번호	예배시간
漢川街禮拜堂	鄭州市 漢川街 23號	0371-6964080	주일 8:30, 14:30
人民路禮拜堂	鄭州市 人民路	0371-6223208	주일 8:30, 14:30
西太康路禮拜堂	鄭州市 西太康路	0371-6253622	주일 8:30

유재승/ (주) 천지 항공 여행사 부사장, 배재대학 강사, 종교학 박사

중국의 전통 가옥 이런 집, 저런 집

이 민 선



황토고원의 동굴 가옥

땅이 넓은 중국 대륙은, 동서남북의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도 여러 가지 유형을 나타낸다.

습윤 내지 건조한 지역의 차이뿐 아니라, 같은 기후 지역에서도 때로는 지리, 문화, 역사적 조건에 따라 각 지방의 주거 환경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주거형태는 그 풍격과 형식에 따라 서로 다른 건축 유형을 가진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독특한 면모를 가진 다양한 주거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이(傣)족의 주러우(竹樓), 산베이(陝北)의 동굴 주택, 푸젠(福建)성의 흙집(土樓)과 베이징(北京)의 쓰허위엔(四合院) 등이 대표적이다.

황토고원 위인 동굴 가옥

동굴은 중국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굴의 밀집정도에 따라 6개 지구로 분류한다. 지베이(冀北)동굴구, 닝샤(寧夏)동굴구, 위시(豫西)동굴구, 진중난(晉中南)동굴구, 산시(陝西)동굴구, 룡둥(隴東)동굴구 등이다.

동굴 또한 자연환경에 따라 지형이 다르고, 지방풍토의 영향을 받아 모양이 다양한데, 이러한 동굴을 이용한 동굴 가옥을 볼 수 있다.

동굴 가옥의 구조적 분포상태에 따라 벼랑식(崖式), 지하동굴식(下沉式), 독립식(獨立式) 등 세 종류로 나눈다. 이러한 동굴식 주거환경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는 것 외에도 자연적으로 방화(防火), 방음(防音)이 잘 되어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현대 도시인의 생활처럼 복잡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는 자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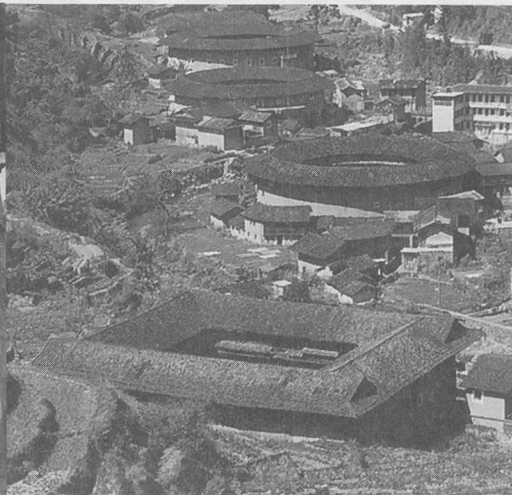
고리형(環形) 흙집(土樓)

중국인들의 거주형태 가운데 가장 특이한 형태인 고리형 흙집은, 일종의 평면 배치 형식으로 고대 로마의 원형경기장과 비슷한 평면 고리형이다. 이러한 흙집은 푸젠성 남부와 서부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고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 단원식 고리형으로, 때로는 평면



수이족의 이층 누각.



푸젠성의 커저(客家)인들이 모여살던 고리형 흙집.

으로 여러 차례 분할되어 몇 개, 몇 십 개씩 작은 하나의 원을 이룬다. 각각의 원은 모두 부채꼴(呈扇) 모양의 평면으로, 두 고리의 평면 사이에 작은 마당이나 뜰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내부 복도식(內通廊式) 평면인데, 이것은 작은 단위로 더 분할되지 않고 크기가 같은 방 하나, 대청같이 넓은 홀 하나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역시 중앙의 빈 공간은 정원으로 활용하며, 둘이나 셋의 고리가 한 세트가 된 것도 있다. 가장 큰 것은 푸젠성 평화(平和)현에서 볼 수 있는데 70m 되는 원형 흙집 6조로 된 룡지엔러우(龍見樓)이고, 가장 작은 원형흙집은 직경 11미터인 푸젠성 용평(永定)현의 루싱러우(如興樓)이다.

이것은 여름에 주로 동남풍이 많이 부는 저장(浙江)지방에서 동풍과 햇볕을 막기 위해 뒤쪽에는 안방을, 동서쪽으로는 높은 담을 세운 것으로, 이 곳의 따뜻한 기후에 어울리게 담장 및 내실이 북방에 비해 가볍고 얇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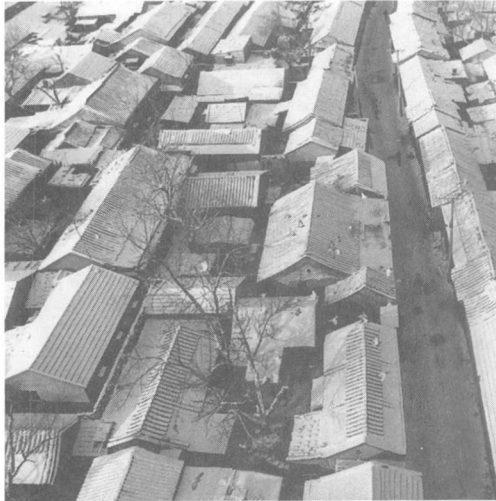
간란(干欄)식 가옥

간란식 가옥은 주로 광시(廣西),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하이난다오(海南島)와 타이완(臺灣) 등 열대지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에

게서 볼 수 있다. 열대다우(熱帶多雨)의 기후와 지면의 습기 등으로 땅에 직접 맞닿은 가옥은 거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풍과 방습을 위해 하부를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고대에 지어진 것으로는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광시 통수이(融水)지구의 먀오(苗)족이 이러한 가옥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간란 가옥은 대나무와 목재 등을 혼합하여 지으며, 사실상 아래층을 기둥만 둔 채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땅에서 약 6, 7자 높이 떠 있는 누각이다. 다만 아래층은 가축을 키우거나 곡물저장실 및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층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앞쪽에 폭이 넓은 복도 및 일광건조대가 있고, 뒤쪽에 안채와 침실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아래층 공간으로 통하는 기둥의 높이에 따라서 고층식과 저층식으로 구분한다. 구이저우성의 수이(水)족 거주형태가 고층식이고, 윈난성의 징포(景頗)족의 외랑(外廊)식 간란 가옥은 저층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이난의 리(黎)족들의 배(船形) 위의 집도 일종의 작은 간란 가옥에 속한다. 이런 식의 가옥은 지붕을 풀로 만들어, 마치 반원(半球)형의 곡창(谷倉)처럼 보이기도 한다. 초목으로 드리



베이징의 전통 가옥 쓰허위엔

운 지붕과 그 아래 붙은 방 양쪽으로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외형상으로는 배 같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선형주거민(船形住居民)’이라고 부른다.

원난의 시쌍반나(西雙版納)의 다이(傣)족 주민들은 주러우(竹樓)에서 살고 있다. 거적문을 밀고 들어가면, 이층 주러우가 나타나는데, 죽통을 잘라서 만든 지붕의 기와조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재로 지어졌다. 내부에 있는 나무로 된 사다리는 1층과 2층의 통로를 연결한다. 멀리서 보면, 다이족의 대나무집은 다이족 사람들이 쓰는 자루 모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쓰허위엔(四合院)

베이징을 대표하는 주택형태인 쓰허위엔은 그 건축 양식이 기개와 도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사면체의 마당을 지면 중심으로 사면에 가옥이 하나씩 있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네 집이 한 조가 되어 같은 담을 두르고, 대문을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거주 형태이다. 때로 이것을 한 가정이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북쪽에 안방(正房), 동쪽과 서쪽, 남쪽에 사랑채가 고루 배치되는 것이다. 한 조의 쓰허위엔은 또다시 지면의 중심이 되어 중원으로 발전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겹겹

이 늘어선다. 이렇게 여러 조의 쓰허위엔이 모여있음으로 베이징 거리에는 특유의 미로같은 골목도 생겨난 것이다.

이 양식은 중국 전역에서 고르게 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자연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천차만별이지만, 대칭적인 배치와 폐쇄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칭적인 배치방법은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중국 건축의 기본방식이다. 이것은 전통문화로서 줄곧 중시된 유가(儒家)의 ‘중용’ 관념이 깊이 뿌리박혀 사회 생활의 여러 각도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축양식에도 표현된 것이다.

단층의 쓰허위엔에는 두 종류가 있다. 대문 위치가 중심선상으로 붙는 것은 대부분 화이허(淮河) 이남에 분포한다. 그 외 대문 위치가 동남, 서북, 동북쪽에 한 측면으로 붙는 것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산둥, 허난(河南), 산시(山西), 산시(陝西) 등 북방에서 고르게 볼 수 있다.

다층 쓰허위엔은 남방에 많다. 한 가구 한 주택이 원칙으로, 여러 가구 또는 수십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데, 2층에서 45층까지 있다. 유명한 푸젠성 용딩현과 광둥 커자(客家)인의 종렬식 루방, 그리고 안후이(安徽)성의 후이저우(徽州)의 쓰허위엔 등이 있다.

외관(外觀)상으로 볼 때 폐쇄적이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외부의 사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는 거리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윽하고 고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배치는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형적인 중국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전통의 가족관념에 적합한 이상적인 방식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居家文化」, 尹國均 編著, 中國經濟出版社
- 「人民畫報」, 中國人民畫報社, 1996. 2月號.
- 「人民畫報」, 中國人民畫報社, 1996. 4月號.
- 「人民畫報」, 中國人民畫報社, 1996. 5月號.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세계선교 동향

제자양육과 성령충만으로 뛰는 일본선교의 길

김 용 국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작년(97년)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여행객 1,300만 명 가운데 12%인 15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 측에서 보면 국내 방한 여행객 350만 명 중 43%가 일본인들이다. 반면에 한국에서 97년 한 해 해외여행객은 250만 명이었는데, 그 중 44%인 11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위의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일간의 관심과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를 앞두고 한국 교회에 의한 일본선교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인구보다 많은 종교인구가 뜻하는 일본

일본은 4개의 큰 섬(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3천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산지가 많은 산악국가로서 농경지는 전체 영토의 13%에 불과하다. 인구는 1억2천5백만 명으로 이중 재일 한국인 75만을 비롯하여 100여만 명의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1인당 GNP는 2만 3천 달러로 세계 3위의 선진국이다. 평균수명은 남자 76세, 여자 82세로 세계 1위의 장수국가이기도 하다. 토착인이 99.3%이고, 문자해독률은 100%이다. 주요 도시로는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르, 교토, 히로시마 등이며, 도시화율은 77%로 매우 높다.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신자비율을 보면 신도(神道)가 80%, 불교가 58%, 신흥종교 24% 등이거나 실제 84%에 가까운 국민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다. 지난 92년 문부성 종교통계에 의

하면 1억 2천만 일본인구 중 신도계가 약 1억만 명, 불교계가 9천 5백만 명, 카톨릭을 합한 기독교가 1백5십만 명 등으로 1억2천만 인구 중 종교인구가 2억2천만 명에 달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신론이나 범신론 사상의 단적인 예이다. 최근 몇 년 간 이혼율은 23%, 자살률은 2.4%로 한해에 2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지매(집단괴롭힘) 현상은 사회 병폐 중의 하나로 일본정부도 대책이 나서고 있으나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97년 통계로 54만 명이며 주일을 성수하는 신자는 27만 명 정도로, 복음화율은 아직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0.21%밖에 되지 않는다. 800만 신이라 일컬어지는 우상숭배, 천황숭배, 물질만능주의 등의 영향으로 선교사역이 전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한 곳이다.

침체 속에 올리는 교회 성장의 청신호

일본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천주교가 1541년 예수교의 사비엘 신부를 일본에 보내면서부터이다. 현재까지 450년의 천주교 선교역사를 갖고 있고 한때는 신자들이 4%에 달하였다. 개신교 선교사가 온 것은 1859년으로 135년의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 90여 개국 195개 선교단체에서 3천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으나, 복음화율이 아직도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아시아권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



이다.

일본은 지난 80년 이후 10여 년 간 복음화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90년대 들어와 활발한 선교단체 등의 영향으로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97년은 3%). 그러나 아직도 인구 10만 이상의 8개 도시와 읍, 면 2,400개 도시 중 1,700개 소도시에 교회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아시아 최대의 단일 미전도 종족집단이다. 지역간의 교회 분포도 지역 편차가 심한 편이다. 동경이나 오사카 등 대도시는 교회가 대체로 많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북부의 아오모리 현 등 도시에서 벗어난 지방일수록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2,600개 중소도시 중 1,800개 지역(68%)에 교회가 단 한 개도 세워져 있지 않다. 동경과 오사카, 오끼나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최근들어 교회의 성장이 매년 2~3%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일본선교의 두드러진 경향은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매년 큰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운동에 치중하는 교회들의 감퇴가 눈에 띄게 현저하다.

일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겁고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교회가 성령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제자훈련, 찬양, 기도예 열심인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 교회성장의 청신호가 울리고 있다. 특히 성령사역에 전력하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

교파간의 벽이 두터워 연합사역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교회가 93년의 고시엔대회, 94년의 빌리그래함대회를 통해 교단, 교파의 벽이 무너져, 초교파 사역에 많은 이해를 갖게 된 것은 선교의 큰 장벽이 제거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연합, 일치로 미증유의 일본선교 호기라고 빌리그래함대회 통역을 맡았던 교야마 목사는 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대회를 계기로 일본교계가 복음주의 교회와 성령운동 교회로 양분되었다(96년 5월). 일본의 복음화율이 현재와 같이 낮은 이유는 큰 박해 후 대중성을 상실한 결과 복음이 사회의 상류계층에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의 장애물이 많은 일본을 뚫는 길은?

최근 일본 교회가 여러 면에서 영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고, 이로 인해 일본의 복음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제시된다면 획기적인 영적 지각변동도 가능

하다. 많은 일본 목회자들은 일본 교회가 이처럼 부흥되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복음화율(1%)을 보이는 이유로서, 첫째, 일본이 전후 민족적인 회개와 참회가 없었던 것을 지적한다. 영적인 축복에는 뉘우침과 회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후 민족적인 회개로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하였다. 둘째,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다. 자신감이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물질만능주의의 포로인 상태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사건과 사고로 두려움과 공포증에 걸려 많은 정신병 환자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말해주듯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이다. 한 선교사는 일본의 영적 상태를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셋째, 일본의 전통적인 자연신과 다신론적 문화배경 또한 일본 복음화의 큰 장애물이다. 일본인들은 무엇이든 신으로 모시려 한다. 일본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가 800만 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이단도 많이 생겨났다. 물몬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등의 이단이 일본에서 대단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보다 더 열정적이며 소외된 대중층에 파고들고 있다. 최근 통일교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영감상법'이 동경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입긴 했지만, 통일교가 가장 조직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범신론적 사고에 따라 전개되는 영적 전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일본을 감싸도는 사탄의 진지는 견고하다. 많은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바로 교회개혁 등의 사역 때 사탄의 강력한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우상숭배와 이단의 역사는 기독교를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넷째, 천황제의 존속이다. 일본인들의 천황에 대한 숭배심은 절대적이다. 그들의 절대적인 천황숭배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크나큰 장애물로 등장한다. 다섯째, 일을 중시하는 일본사회의 경향이다. 일본인들의 큰 희망이라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여섯째,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신학교에는 젊은이들이 오지 않아 일본 신학교의 10%가 매년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예배는 중년이나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드려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활기가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의 단기선교나 대형집회에서 도전을 받은 젊은이들이 관서지방



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선교적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일본 교회 성도들의 교회출석율(50% 미만) 또한 낮다. 따라서 목회자 한 사람이 많은 사역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최근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교단, 교파간의 두터운 벽이다. 교단간의 교류가 거의 없으며 연합운동에도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나 호소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이사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며 성령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고 사역하는 경향이 짙다.

외국 선교사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점도 선교의 큰 방해요소이다. 일본인들은 언어를 조심스럽게 구사하기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있다. “NO라고 말할 수 없는 일본”이라는 책도 있듯이 거의 직설 화법이 없다. 선교사들의 미숙한 언어구사나 직설적인 화법으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문화적인 차이도 어느 나라보다 심하다. 변재창 선교사는 “일본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일본문화 속에서 거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인 크리스천 커플이 많은데, 그들은 한결같이 “얼굴 모습은 같은데 문화적 차이는 너무나 크다”고 토로한다. 여러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인들의 타고난 종교성은 잘만 가꾸어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최근 일본선교 현황에서는 다양한 선교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제자훈련이다. 일본인들은 교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통하여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고,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면 훌륭한 제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이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뿌리를 내린 교회들도 있다. 이 제자양육은 평신도들을 깨워 그들에게 전도자로서 삶의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제자훈련에 성령의 역사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식적으로 훈련된 자들을 일본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충만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직접적인 잣대는 아니더라도 일본 목회자의 90% 이상이 방언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다. 한 선교사는 일본선교의 키는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다고 진단한다.

일본 목회자들이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일본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다. 또한 일본인들은 삶을 통한 모범이 전도의 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인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들의 삶 깊숙히 들어가 그들의 삶과 공유하고, 삶으로써 설교하는 것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빠른 선교전략이다.

일본인들은 독서를 좋아한다. 일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동기 중 70% 이상이 전도지를 통해서라고 한다. 그만큼 문서사역의 중요성을 나타낸 통계이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동화된 프로 선교사가 필요하다. 사전 현지 문화적응 훈련, 언어훈련, 국민성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NHK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향후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는 물음에 60% 이상이 기독교를 지목한 것은 기독교가 신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동기는 파스한 교제, 죄의 용서, 영혼의 평안, 종교적 분위기 등이라고 한다. 여러 사건과 젊은이들의 가치관 혼란, 영적 타락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형제들에게 따뜻한 용서와 교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국 교회가 일본에 파스한 사랑의 손길을 보낸다면 수많은 일본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일본인들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될 것이고, 십자가 안에서 한일이 화해되는 첨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아픔을 가진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사랑하고 또다른 민족들을 섬길 수 있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가 된다.

2002년의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는 한일 양국 교회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교류의 활성화로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번 기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일본선교의 절호의 찬스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용국/ 일본선교회 총무

연락처/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167 로얄빌딩
4층 Tel. 02)393-1772~3

E-Mail: 1. kjem@hitel.net 2. kjem@chollian.net

인터넷: http://kimc.net/jem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인류학이 선교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심사숙고하여 답할 중요한 질문이다. 전통적으로 선교사의 준비과정에는 성경공부, 신학, 역사 그리고 타종교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5년동안 문화인류학은 선교사역에 중요한, 아니 필수적인 과목이 되었다. 이제는 문화인류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타문화 선교훈련을 적절히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이다. 인류학과 선교가 처음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성경번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학 때문이었다. 오늘날 성경번역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나 이런 훈련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근년에는 민족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공부하는 쪽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문화와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다. 타문화 의사전달, 성육신 사역, 신학과 사회문화의 관계 등에 관한 것들이다. 많은 경우에 선교사역에서 인류학이나 사회과학을 강조하다보면 신학을 경시하게 된다. 지난 세대의 책과 글은 하나님의 부르심, 잃어버린 영혼, 기도와 믿음 그리고 과부의 생화장이나 회생제물로 드리는 관습에 대한 도전 등이 대부분이었다. 오늘날의 글은 계획, 지도력, 문화이해, 그 사회에 합당한 전도전략, 개종자의 문화충격을 최소화하기, 신학의 상황화와 그 의미 등을 다룬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경과 인간의 연구에 철학적, 역사적, 경험적 접근을 통합해 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사용해온 신학, 인류학, 선교학의 이론과 범주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 책이 선교학 전반을 다루지는 않았다. 선교학의 실제 현장에 담긴 구체적인 논제를 검토하면서 이것을 성경적, 인류학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많은 부분이 이미 선교학지에 실렸던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수정했고, 또 쓴 내용도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착민을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세계적 동향
- 인류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적절한 복음의 상황화 방법
- 타종교에 대한 영적 전투의 경험과 통찰력
- 토착문화를 적용하는 교회 개척의 실제

풀 히버트 지음/김영동·안영권 옮김/신국판/값 9,000원/조이선교회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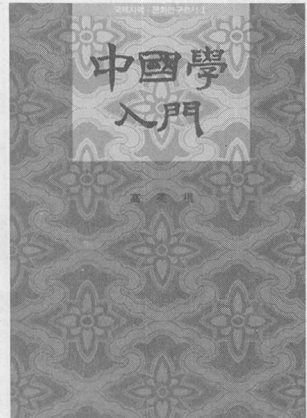
중국소수민족 종교신앙

覃光廣 외 편저
568쪽 · 15,000원 · 태학사



중국현대사 기행 다시 쓰는 열하일기

연현배 저 · 지식공작소
355쪽 · (1),(2),(3)권 · 각 7,500원



중국학 입문

고영근 저, 부산외국어대학 출판부
353쪽 · 10,000원

이 책은 중국 중앙민족학원 출판사의 중국 소수민족 종교개람을 번역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한족의 입장에서 정의한 소수민족 구분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국 변방에서 일어나는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의지와 중국 정부와의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각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사회의 가치관념, 도덕관념과 생활풍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들의 종교 신앙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나 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하여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지역별로 동북, 서북, 서남, 중남 등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소수민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더불어 타민족 간의 관계, 민족적인 고유한 절기, 종교적 배경으로부터 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각 분야별로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과 동양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가 200여년 전 중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0년 기자 경력의 저자가 최근 7년 동안 4차례 중국 땅을 구석구석 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기술한 현대 중국의 보고서이다.

“솔직히 말해 젊은 시절 저는, 중국이 오랜 봉건 체제와 식민·제국주의 잔재를 적결하고, ‘대약진’, ‘인민공사’, ‘문화대혁명’을 통해 인류 최초의 지상낙원을 건설한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중국은 가는 곳마다 계속되는 바가지와 부정부패, 들끓는 사기꾼, 도덕에 무심한 사람들, 더러운 거리와 사람들, 낙서로 뒤덮인 명소와 돈을 좇아 부유(浮遊)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였다.

앞으로 이제 중국은 머지않아 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아직도 중국을 파라다이스의 전횡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정신적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녀왔으며, 그에 따라 중국학(漢學) 연구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49년 이후로 양국은 서로 다른 정체(政體)로 인해 국가관계가 단절되어 왔다. 동시에 한국에서의 중국학 연구도 장기간 침체기에 들어섰다.

1992년에 한·중 양국의 국교가 성립되자 한국에서의 중국학 연구가 본격화되는 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이 책은 필자가 대학에서 중국학 강의를 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해오다가 출간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입문서이다. 중국은 현재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21C에 한국의 국가이익과 한반도의 안정에 그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 책은 21세기 대중국 관계의 각 영역에서 활약하게 될 젊은 세대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지식과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함에 동기와 목적을 두고 집필되었다. 아울러 본서의 내용은 현재 기업과 정부의 대중국관련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진들에게도 일정한 참고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신문
지침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중국 정협(政協)주석 “중국내 종교-신앙 자유 보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루이환(李瑞環)이 중국 내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리 주석은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간의 상호 모순 여부와 관련, 각 종교의 교리속에는 윤리·도덕에 대한 요구 등 현대 사회발전 추세 및 우리가 주창하는 ‘정신문명 건설’과 합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종교계는 사회와 인민들에게 유익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98. 1. 24)

심양의 목사 새 직위로 복귀

3년 전 심양시 동관교회 내분에 연루되어 교회를 떠났던 가오리양이 목사가 교회로 복귀했다. 그는 96년 12월 주임직을 회복했고 97년 4월 동관교회 부목사로 임명되었다.

(중국교회 제14호)

정치 · 군사 · 외교

중국 대인지리 금지협약 서명 안 해 중국은 대인지리 대체방법 개발 전에

는 대인지리로 자국의 방어능력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인지리 전면 금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일보 97. 12. 1)

남아공, 중국과 연내 수교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연내에 수교하고 이에 따라 타이완(臺灣)과 남아공이 곧 단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97. 12. 9)

미 · 중 첫 번째 공식 국방협의회 개최

미국과 중국은 처음으로 공식 국방협의회를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세계적, 지역적 방위문제를 논의하고 내년도 군사 접촉 계획을 마무리하며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상호 보고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97. 12. 11)

중국, 대(對)유엔 외교 강화

중국 지도부는 대유엔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외교부의 얼굴격인 셴궈팡(沈國放), 추이텐카이(崔天凱) 등 두 대변인을 유엔 대표부 및 공사급 참사관으로 발령했다.

(경향신문 97. 12. 15)

3월 전인대(全人大)서 대폭 인사

중국은 오는 3월 5일 개최되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차오스(喬石)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퇴임시키고 6명의 부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98. 1. 3)

중-대만 대등관계서 통일협상

중국 국무원 대만관공실 주임 천원린(陳雲林)은 최근 발간된 월간 《양안관계》 1월호에 실은 기고문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협상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8. 1. 6)

미-중, 해상 군사협력 「충돌방지」

협정 체결

중국과 미국은 ‘미중 해상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동아일보 98. 1. 19)

대(對)이란 크루즈 미사일 판매 중단 약속

장쩌민 주석은 이란에 크루즈 미사일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이전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월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밝혔다.

(한국일보 98. 1. 20)

중국-베트남 국경분쟁 재연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 대변인은 중국 측이 국경을 임의 변경했다는 베트남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베트남이 오히려 양국 국경을 흐르는 강에 댐을 보강축조하면서 강의 흐름을 변경했다고 비난했다고 광명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98. 1. 25)

중앙아프리카, 타이완과 외교관계 단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재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98. 1. 30)

경제

중국 SW그룹-IBM 제휴 협정 체결

중국의 소프트웨어 그룹인 파운더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략 제휴' 협정을 세계 최대 컴퓨터 메이커인 IBM사와 체결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97. 11. 25)

아시아 금융위기, 중국 수출에 영향

세계무역기구(WTO)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97. 11. 29)

중앙은행 FRB식 구조조정 계획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를 본뜬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7개 성과 4개 대도시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지점을 없애는 대신 FRB처럼 10개 지역에 산하 은행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97. 12. 2)

외국기업 수입설비 관세면제 연장

중국 정부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줄어드는 외국기업의 대중투자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정책의 전면 재조정애 나섰다. 《차이나 데일리》는 지난 96년 중국 정부가 내외국인 평등원칙에 따라 폐지했다가 일부 유예한 외국 투자기업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7. 12. 4)

사기업, 국유기업 인수 허용

중국 5개 경제 특구중의 하나이자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의 실험장인 주하이(珠海)시는 최근 사영기업이 국유기업 또는 집체기업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상하이(上海) 신민만보는 전했다.

(조선일보 97. 12. 7)



중국이 최근 들어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불안을 겪고 있다.

철강 근로자 50만 명 감축

중국은 금속 산업 부분 근로자수를 2000년까지 70만 명 감축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철강 근로자 50만 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97. 12. 7)

주룽지(朱鎔基) 주도 금융개혁기구 구성

중국은 아시아의 전반적인 금융위기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산당 중앙 금융영도소조를 구성, 금융개혁에 본격 착수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보도했다. 이 소조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지점 축소 및 통합 ▲성 및 직할시 단위에 1개의 신탁투자공사 설치 허용 ▲농촌 상호신용금고 관리 강화 등 금융개혁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97. 12. 8)

98년에 공무원 20% 감축

중국은 내년 2,3월 새내각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이 경제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 20%를 감축할 방침이라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97. 12. 9)

21세기 세계 최대 경제대국 전망

세계 각국 기관들이 21세기에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고 있다. 경제

개발협력기구(OECD)는 2020년까지의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2020년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동아일보 97. 12. 10)

외국인 국유기업 매입허용

중국은 적자 국유기업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중소 규모 국유기업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98. 1. 5)

PC시장 급성장...작년 300만 대 판매

중국의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 지난해 3백만 대 규모로 커졌으며, 이 중 40%를 국내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91년의 10만 대 수준에 비해 30배로 급성장한 것이라고 《차이나 데일리》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98. 1. 7)

올해 실제실업률 최고 7~9% 전망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의 실제 실업률이 최소한 5%는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경제일보가 97년 경제상황 및 98년 경제방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한국일보 98. 1. 8)

실업 확산, 작년 2천만 명 실직

중국이 최근 들어 실업증가에 따른 격심한 사회불안을 겪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도산 등에 따라 직장

을 잃거나 몇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근로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98. 1. 11)

작년 무역흑자 403억 달러 최대기록
중국 정부는 지난해, 96년 대비 12.1% 증가한 총 3천2백50억6천만 달러의 교역액 및 4백3억4천만 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했다.

(동아일보 98. 1. 12)

정보기술산업 집중 육성등 경기부양책 마련

중국 정부는 올해 민간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정보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차이나 데일리》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장쩌민 국가 주석과 주룽지 부총리가 민간주택 부문의 발전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98. 1. 15)

금융개혁 3년내 완료

중국은 향후 3년내 중앙은행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체제 개혁을 완료하고 원(元)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인의 달러 교환에 대한 제한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98. 1. 17)

외국인투자 지난해 첫감소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실액기준)이 4백억 달러(11월말 현재)에 그쳐, 96년에 비해 17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73% 이상을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화교권이 차지,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이들의 자본력 약화로 올해 중국에 대한 투자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98. 1. 19)

신인도 높은 기업에만 해외채권 허용

중국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자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국제신

인도가 높은 기업만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98. 1. 19)

상하이, 중국 최고 부자도시-1인당 GDP 3천 달러

상하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국 최초로 3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중국의 명실상부한 ‘경제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의 각종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는 생산, 소비, 소득, 재정 등에서 모두 선두여서 명실상부 중국 최고의 부자도시로 떠올랐다.

(동아일보 98. 1. 19)

홍콩 고정환율 고수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룽지 부총리는 홍콩의 고정환율제를 계속 고수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동아일보 98. 1. 22)

상하이, 경제발전 기여 외국인 영주권 부여

상하이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을 포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외국 전문가들이 그 공로로 영주권을 받거나, 현재 1년으로 돼있는 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98. 1. 23)

대미 무역흑자 지난해 164억 달러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1백63억9천만 달러였으며 중국 무역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9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아일보 98. 1. 25)

대만 외환보유고, 세계 3위

대만의 외환보유고가 작년 12월 현재 총 8백35억 달러를 기록, 일본과 중국에 뒤이어 세계 제3위를 차지했다고 대만 중앙은행이 발표했다.

(한국일보 98. 1. 29)

사회

중국 조선족, 러-서구식 개명 불

중국 조선족 사이에서 안나, 소나, 니나와 같은 러시아식 이름이나 서양풍으로 고치는 개명 불이 일어나고 있다. 연변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옌지(延吉)시의 경우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1,264명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97. 11. 25)

연변 과기대, 중국 과기대 한국어 연구·교육 방법 토론

중국내에서 한국어 연구 및 교육방법을 논의하는 심포지엄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이 옌지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는 북경대, 연변대, 낙양외국어대 등 3개 대학 전문가를 비롯, 모두 23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 표준 발음 교수법, 한국어 교재 개발법 등을 논의하였다.

(조선일보 97. 11. 29)

관급 이동전화 개인사용 단속

최근 관리들이 관급 이동전화로 사적 통화를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98년부터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신통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97.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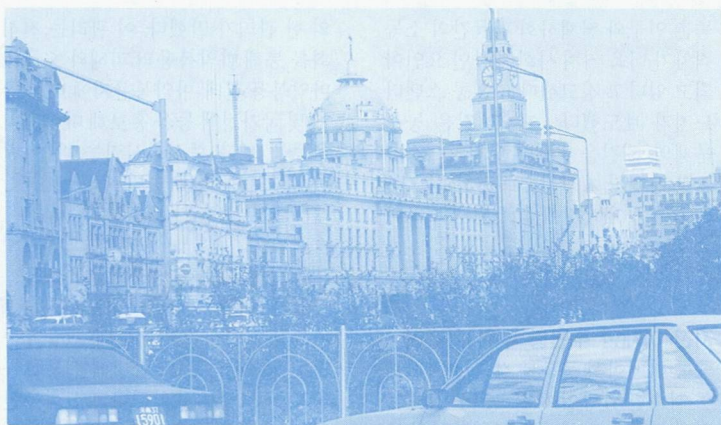
간부 ‘금융위기 미리 대비’ 경제공부 불

요즘 중국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금융 교과서 학습 등 ‘경제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이 즐겨보는 금융교과서는 최근 중국 인민은행에서 출판한 「당정 영도간부 학습용 금융지식 핸드북」이다.

(동아일보 97. 11. 30)

로프누르 사막 개간 사업 공개

중국은 죽음의 사막으로 알려진 로프누르를 양자강의 물로 개간하는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다. 신통통신은 ‘이 프로젝트가 21세기 초 실행될 경우 중국 서북부 신장성의 로프누르 사막이 수풀이 우거진 거대한 오아시스로 변



상하이는 중국 최고의 부자도시로 '경제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97. 12. 1)

약물검사 더욱 강화

중국 올림픽위원회 의료분과에서는 금지약물을 뿌리 뽑기 위해 올들어 도핑테스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3,349회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수영 한 종목에만 576회나 집중되었다. (조선일보 97. 12. 3)

『자본론』 중국 대학생 필독서로

중국 허베이(河北)성 경제무역대학은 학생들의 지식구조를 보다 완벽히 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전공 분야와 상관 없이 문학·역사류 10권에 『삼국지연의』, 경제류 10권에 『자본론』, 정치·기타류 5권에 『아이아코카전』을 포함시켰다. 학교측은 이들 필독서에 대한 독서성적을 학점화, 입학 후 제5학기와 제7학기 등 두차례의 독서 종합시험 기회를 주되 불합격자들은 졸업을 시키지 않기로 했다. (조선일보 97. 12. 5)

중국 노인들 "가수보다 농부가 좋은 직업"

중국에서는 모델이나 가수가 농부보다도 덜 존경받는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년보>가 베이징 지역 노년층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존경받는 직업은 과학자, 대학교수, 기술자, 의사 등의 순이었고 선호도가 낮은 직업

은 트럭 운전기사, 수위, 미화원, 건축노무자 등이 꼽혔다.
(조선일보 97. 12. 6)

황금시간대 광고 전자제품 석권

98년도 중국 중앙TV(CCTV) 황금시간대 광고입찰 결과, 아이도(愛多)VCD 등 전자 제품이 전체 27개 중 15개나 차지했다. 하이테크상품들이 TV광고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중국의 정보산업 발전과 중국인들의 대중소비가 한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일보 97. 12. 7)

안후이(安徽)성에서 실직 근로자 2천명 시위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에서 국유 방직공장의 합병으로 실직한 근로자 2천여 명이 시정부 청사로 몰려가 해고에 항의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홍콩의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문화일보 97. 12. 9)

베이징 TV 내달 위성방송 개시

중국 베이징 TV가 다음달 1일부터 위성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해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97. 12. 9)

베이징에 '말하는 쓰레기통' 등장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베이징의 일부지역에 '말하는 쓰레기통'이

등장, 시민들의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 이 쓰레기통은 녹색(종이), 노랑(비닐), 파랑(금속, 유리), 빨강(기타)의 4종으로 되어 있다.
(동아일보 97. 12. 10)

비서역할 귀족전화번호 등장

6으로 시작되는 베이징 전화번호에 최근 2로 나가는 이른바 '귀족번호'가 추가되었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월 360원(元)을 내고 가입하는 '전화비서'이다. 예컨대 누군가 '26962696'이라는 번호를 가진 왕서방에게 전화를 걸면 전화국 소속의 비서가아가씨가 중간에서 가로채 송화자의 용건 등을 꼬치꼬치 캐물은 다음, 꼭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만 전화를 연결시켜 준다.
(경향신문 97. 12. 12)

베이징에 여성 노인용 핫라인 개설

중국의 여성 노인층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새로운 핫라인이 내년 초 베이징에 개설된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98년 1월 5일부터 매일 오전중 010-64073800번으로 운영되는 이 핫라인은 여성노인들에게 건강관리, 결혼생활, 가족, 사회복지, 기타 심리적 압박 등에 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주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일보 98. 1. 3)

상업기밀 취득 근로자 전직제한

비밀 정보나 상업 기밀을 취득한 베이징의 근로자들은 1월 1일부터 직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게 됐다. 또 허가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상업 기밀을 누설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보상을 하거나 형벌을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 98. 1. 3)

중국, 광둥(廣東)성 장악 나서

중국 정부는 가장 부유한 지방인 광둥성의 지방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장악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광둥성 서기와 광둥성장 등 요직에 대해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

했다.

(한국일보 98. 1. 7)

「인터넷과의 전쟁」 개시...반체제 운동 거점 규정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공표한 '신(新)인터넷 규제법'을 본격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서 당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비방, 분리주의에 대한 지지, 국가기밀 폭로 등 구체적인 컴퓨터 범죄의 예를 나열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동아일보 98. 1. 7)

「마오쩌둥」 바람... 기념당 참배인파 몰려

중국 베이징에 마오쩌둥(毛澤東)바람이 다시 일고 있다. 그동안 보수공사로 인해 잠정 폐쇄됐던 마오주석 기념당이 6일 개관되자 3시간 동안 무려 2만1천여 명의 참배객들이 몰려 들었다.

(동아일보 98. 1. 8)

연변 조선족 여성들, 이농-해외돈벌이 많아 자연감소 계속

연변지역에 사는 조선족의 인구가 지난해에도 자연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소수민족으로서는 이례적인 조선족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농촌 여성의 이농과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 열 등 전반적인 '조선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일보 98. 1. 9)

HIV.에이즈 급속 확산기 돌입

중국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의 급속한 확산기에 들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감염자가 1천여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위생부가 경고했다.

위생부는 주사바늘 반복사용과 매춘 증가가 중국에서의 HIV와 에이즈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98. 1. 10)

2억5천만 농민 빈곤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은 2억5천만

농촌 인구가 전체사회 평균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져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그는 이같은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정책 ▲부채 감감 ▲식량수매정책 등을 통해 농촌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98. 1. 10)

지진 이재민 수만명 추위에 떨어

중국 허베이성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최소한 47명이 사망하고 1만1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강진 이후 이어진 강추위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총 23억9천만 원(약 2억8천8백만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일보 98. 1. 12)

북부, 30년내 최악의 겨울가뭄

중국 북부지역이 엘니뇨현상과 시베리아 서부 한랭전선의 약화로 30년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98. 1. 13)

정부청사에 폭탄, 3명 사망

베이징에 위치한 철도부 청사에서 폭탄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북경일보는 자살을 결심한 허난(河南)성 출신의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 폭탄이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98. 1. 14)

서부 내륙지역 폭설, 1천5백여명 동사

티베트와 중국 서부 칭하이(青海)성 일원에 엄청난 눈이 내려 약 1천5백 명이 동사하고 최소한 9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다고 공인일보가 보도했다. 그리고 이 폭설로 감기, 설병 및 설사 등을 앓고 있는 사람만도 5천8백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8. 1. 15)

마약퇴치 위해 전시회 개최

중국 최초의 마약퇴치를 위한 전시회가 오는 5월이나 6월쯤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중국 국가감독위원회

의 한 관리가 말했다. 이 관리리는 전시회를 통해 마약복용의 피해와 중국내 마약복용 실태, 마약복용자에 대한 규제 및 국가정책 등을 홍보해 마약퇴치 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98. 1. 17)

대형 신문그룹 창설키로

중국인 2010년까지 수십 개의 신문.출판그룹을 창설키로 했으며, 그중에는 일부 당기관지들을 합병해 신문그룹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 98. 1. 17)

금융기관 강, 철도사건 빈발

중국에서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금융기관 강, 철도사건은 1백여 건에 이르며 강탈당하거나 도난당한 금액은 모두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법제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96년에 비해 발생건수는 줄어든 반면 피해금액 및 사상자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98. 1. 19)

지난해 2백27개 신문 폐간

지난해 중국에서는 2백27개 신문과 기타 3백46개 정기간행물이 폐간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98. 1. 20)

도시민 걱정거리 1호는 '실업'

중국 도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실업인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의 한 여론조사 분석회사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92.7%라는 절대 다수가 중국의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98. 1. 21)

원(元)화 강세 신바람-춘제(春節) 동남아여행 붐

춘제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여행붐이 폭발적으로 일고 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해외에서 춘제휴가 보내기' 풍조가 때마침 동남아 각국화폐의 가치하락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

임에 따라 올해 절정에 달한 것이다.
(동아일보 98. 1. 22)

춘제 범죄예방 위해 89명 사형집행
베이징에서 최근 춘제 연휴기간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장강도와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 89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
(조선일보 98. 1. 24)

설날선물 '돈이 최고'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춘제 선물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상하이의 해방일보가 보도했다. 농촌에서도 시로 돈벌러 나온 민공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춘제 선물'에 관해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선물을 사가지 않고 돈으로 가져간다'는 사람이 30%에 달했다.
(조선일보 98. 1. 24)

빚진기업 언론공개 「창피주기」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법원은 언론에 채무기업의 이름을 크게 보도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빚을 빨리 갚도록 하는, 이른바 '미디어 창피주기 캠페인'으로 불리는 방법을 고안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법원은 경기불황으로 은행 등에 빚을 갚지 않는 기업들과 관련한 채무소송이 폭주하자 지난해 9월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98. 1. 25)

후난(湖南)성, 대대적 환경사업
중국 후난성(湖南)의 성도인 창사(婁沙)시는 10개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1천1백30만 원(1백4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시환경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그는 이번에 추진될 사업 중에 분진배출량 억제 및 소음공해 저감, 폐수정화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98. 1. 26)

홍콩 작년 HIV 감염자 사상 최고
홍콩 특구 정부는 홍콩에서 작년에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새로 감염된 사람이 96년의 1백34명에서 1백81명으로 급증, HIV 감염자 집계가 지난 84년 시작된 이래 연간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98. 1. 26)

고급두뇌 노령화 고민

중국은 고급 두뇌의 노령화로 인해 조만간 심각한 인재 결핍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노인협회의 연구보고서가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백만 명 이상의 전문, 고위직 인사 가운데 45세 미만은 6.3%에 불과하며 특히 35세 미만은 겨우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8. 1. 26)

국유 탄광서 가스폭발, 77명 사망
중국 동북부 라오닝(遼寧)성의 한 국유 석탄광산에서 대형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 77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국무원 매단(석탄)공업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했다.
(조선일보 98. 1. 30)

한·중 관계

중국 관광객, 제주지역 무비자 추진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허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적 항공사들이 제주~베이징, 제주~상하이 등 제주-중국 간 직항 노선을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노선 배분을 서두를 방침이다.
(조선일보 97. 12. 1)

한·중 3차 EEZ경계획정 회담

한국과 중국은 제3차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 회담을 갖고 양국의 EEZ경계획정 원칙과 대상수역 등에 관해 협의했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EEZ가 중복되는 서해와 동중국해역 중 우선 서해에서의 대상수역 범위와 경계획정 원칙 등에 관해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7. 12. 1)

대우전자 중국 본사 설립

대우전자는 중국지역의 생산, 판매, 연구개발(R&D), 서비스 조직,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합 관리할 중국지역 본사를 베이징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사는 중국내 6개 생산 법인과 홍콩

판매법인, 7개 주요 지사와 각 공장별 서비스 및 R&D센터 등 중국 지역내 모든 생산, 판매 관련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하게 된다.
(한국일보 97. 12. 5)

제주-홍콩 노선 내년 신설

건설교통부는 내년중 제주-홍콩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동아일보 97. 12. 10)

한~중, 항공노선 19개 증설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對)중국 항공노선이 대폭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서울~구이린(桂林) 등 7개 여객노선과 서울~상하이 등 2개 화물노선에 새로 취항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창춘(長春) 등 7개 여객노선과 서울~베이징 등 3개 화물노선에 새로 취항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 98. 1. 30)

한국에 20억달러 지원

탕귀창(唐國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8. 1. 21)

중국으로 가는 국제전화료 대폭 인상

중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요금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현재보다 최소한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한국일보 98. 1. 21)

위장결혼 후 국적취득 재중동포 연간 6천 명

법무부는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재중동포 여성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6천여 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재중동포들은 국적취득을 무효화하고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98. 1. 30)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선교단고신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세미나

한국해외선교협의회내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CRIM)에서는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주제: 선교사 탈락방지 및 목회적 관리

날짜: 98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장소: 목산침례교회(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내)

참가비: 4만 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선교정보연구센터로

TEL. 02) 653-4270

'98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이슬람 선교대회

한국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이슬람 공산권의 신속한 복음화와 그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강하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강사: 폴 이스타브룩스(오픈도어선교회 국제사역자)

일시: 1998년 3월 29일 3:30(서울)

1998년 3월 29일 7:00(서울)

1998년 4월 1일 7:00(대구)

장소: 왕성교회, 동도교회(서울),

성명교회(대구)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TEL. 02) 403-6797

GMTC 17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한국해외선교회 한국선교훈련원(GMTC) 타문화권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학문적 이해를 돕고자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98년 8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마감: 98년 5월 말

모집대상: 선교헌신자, 선교행정가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훈련원으로

TEL. 02) 649-3197, FAX 02) 647-7675

갈릴리세계선교회 선교훈련원 모집

갈릴리세계선교회 부설 선교훈련원에서는 전문인선교사를 교육, 훈련, 파송하여 제자화 사역 및 교회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훈련생들을 모집한다.

훈련기간: 1년 2학기

1998년 2월 28일부터 6월13일까지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

교부기간: 98년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훈련비용: 학기당 25만 원

모집마감: 11월 10일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 420-1450, 424-1144 FAX. 02) 421-1425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이슬람 선교학교

한국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이슬람선교에 헌신자나 관심자들을 위해 이슬람에 대한 기본 이해로부터 구체적인 이슬람선교전략 및 선교사로서 준비사항 등 국내 이슬람권 선교전문가들의 강의를 준비한다.

일시: 1998년 3월 3일~5월 26일(매주 화요일)

장소: 헤림교회(5호선 둔촌역 4번 출구)

회비: 15만 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로

TEL. 02) 403-6797

의료선교사 교육훈련원 훈련생 모집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의료선교협회 부설의료선교교육훈련원에서는 기독교의료인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를 후원하고자 하는 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교훈련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1998년 3월 7일~12월 19일(30주)

등록기간: 98년 2월 9일부터 3월7일까지

등록비: 한 학기당 일반 20만 원, 학생 15만 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민수식 간사에게로

TEL. 02) 363-2080 FAX. 02) 312-0229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간사를 찾습니다

선교의 소명이 있는 분으로 중국어를 구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역내용: 인천항 중국인 선원 전도사역, 중국 여성경반 협력·지원, 대내외 홍보, 재정 및 사무행정 등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임화평 간사

☎ 032)872-0742 호출: 015-8483-6807

단기선교사를 찾습니다

사역기간: 1년 이상(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사역지: 동북 아시아

사역내용: 피아노 교사, 원예 전문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경력있는 비전공자도 가능)

문의: 두란노 해외선교회

☎ 02)793-7769(직통),

769-1300(교환202) 팩스: 749-5498

중국어문선교회 연구, 행정실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선교 연구에 관심과 은사에 있는 분은 연구부로, 행정에 관심과 은사가 있는 분은 행정실로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부/ Tel. 533-5497 석은혜 간사

행정실/ Tel. 592-0132 정광숙 간사

국어 선생님을 찾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글을 가르치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국문과 출신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제과기술이 있는 주 안에서 신실한 기술

동역자도 찾습니다.

☎ 02)533-5497 석은혜 간사

유치원 교사를 찾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아이들을 가르칠 유치원 교사를 찾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을 환영하며, 침식은 제공됩니다.

☎ 02)533-5497 석은혜 간사

연변 해양전문대학에서 교수 및 행정요원을 찾습니다

자격 : 각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자(단, 행정요원은 제외)로 1년이상 사역할 자

-필요한 사역-

1. 교수요원

- 1) 항해과(선박운용술, 행운실무, 항해계기, 조선공학,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상기상학)
- 2) 기관과(기관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제어공학, 기초물리학)
- 3) 교양과(국어, 영어, 수학, 물리, 세계사)

2. 행정요원

- 1) 총무과(사무행정, 자재관리, 식당관리)
- 2) 인사과(인사관리)
- 3) 교무과(교무관리)
- 4) 학생과(상담, 사관훈육관, 부원훈육관)
- 5) 실습과(실습기자재 관리)
- 6) 재무과(재무관리)
- 7) 한글교실(초등학교 교사)
- 8) 중국선원상조회(사무간사)
- 9) 학교부설 은혜의원(의사, 간호사, 약사)

문의: 연변 해양전문대학 사무실

☎ 02)701-5121 ~2, FAX 02)711-8809

대전에 위치한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SEM International)에서는 외국인 과학기술자 및 화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외국인 선교에 비전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한글학교 -화요일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교회

-토요일반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대덕교회

☎ 042)863-1713(팩스 겸용)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의 몇 가지 중요문제에 관한 중공당중앙위원회 결의(Ⅰ)¹⁾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는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九五” 계획 및 2010년 장기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 당면한 형세를 분석하고,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였다. 교육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중앙은 이미 전면적으로 안배하였으며, 이번 전체 회의는 사상 도덕과 문화 건설 분야의 문제들을 주로 토론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은 하인 중대한 전략적 임무이다

(1) 1996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사업이 지난날의 것을 이어받아 앞날을 개척하고 창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11기 3중전회 이래 얻은 위대한 성취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경제 체제와 경제 성장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 체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중동해야 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각종 사상과 문화의 상호 충격과 과학과 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직시하고, 종합 국력이 격렬하게 경쟁하는 도전을 맞이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 당의 기본 노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물질문명이 크게 발전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신문명도 크게 발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중요한 특징이고,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보증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세기를 넘는 위대한 청사진의 전면적인 실현에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업의 왕성한 발달에 관계되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기초이고 경제 건설이라는 중

심은 반드시 확실히 파악하여 털끝만큼도 동요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정신문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질문명 또한 파괴되며 심지어 사회 역시 변질된다. 물질문명 건설을 더욱더 잘하는 동시에 정신문명 건설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적절하게 올려놓고, 당면한 일련의 긴박한 문제들을 성실하게 해결하며, 새로운 정세 하에서 정신문명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 것은 이미 전체 당과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이 지극히 관심을 갖는 큰 사안이 되었다.

(2) 11기 3중전회 이래 18년 간 우리 국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역사의 대전환과 사업의 대발전을 경험했다. 이는 우리 당이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을 영도하여 “문화대혁명”의 10년 내란이 조성한 심각한 형세를 역전시켜,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펼쳐 일어나 중국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한 위대한 과정이며, 또 우리들이 80년대와 90년대 초에 국내적·국제적 풍파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해 낸 위대한 과정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성취는 사상의 해방·실사 구시·실천을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사상 노선의 재확립과, 또 무엇이 사회주의이고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가에 대한 재인식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개척하며 나아가는 대중의 창조 정신의 발흥과, 사악함을 믿지 않고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국가 주권을 지키면서 서방의 체제를 뚫고 나온 민족 자립정신의 발양도 역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건설 이론과, 또 당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 기본 노선의 형성 및 발전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의 지도 사상의 이러한 역사적 비약 없이는, 또 전체 민족의 정신 상태의 이러한 심각한 변화 없이는, 또 대담하게 도전하는 열정과 경험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지혜가 없이는 좋은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이며 새로운 사업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정신문명 건설의 형세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주요한 흐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1) 이 글은 『求是』, 1996년 第21期(1996. 11. 1)에 게재된 「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1996年10月10日中國共產黨第十四屆中央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通過)」를 전문 번역 한 것이다.

개혁 개방이 일단 시작되자 덩샤오핑(鄧小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두 가지 문명을 같이 장악하는 전략 방침을 바로 강조했다. 당의 역대 중요 회의에서는 일련의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졌고, 12기 6중전회는 또한 특별히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지도 방침에 관한 결의』를 작성하여, 정신문명 건설의 전략적 지위와 근본 임무 및 중대 방침들을 명확히 하였고, 전체 당과 전국의 인민들을 인도하여 정신문명 건설에 대한 인식을 점차적으로 심화시켰고, 각 분야의 공작들을 전개하였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주동시켰다.

그러나 두 가지 문명을 같이 장악한다는 방침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나타났다. 80년대말 덩(鄧小平) 동지가 지적했듯이 10년 동안 최대의 과오는 교육이었으며, 주로 사상 정치 교육이 취약해져 한 쪽은 비교적 강화되고 다른 쪽은 비교적 약화되었다. 13기 4중전회 후에 장쩌민(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兩手, 兩手都要硬’(양쪽을 장악하고, 양쪽을 다 강화한다)의 방침을 견지하고, 다방면에 걸쳐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노력을 하였다.

1992년 덩샤오핑 동지의 남방 담화와 당의 14차 전국대표대회는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이 담화는 우리들의 사상을 늘 혼란시키고 속박하던 수많은 중대 인식 문제에 회답하였고, 때를 불잡아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적 사상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사업 가운데 정신문명의 중요한 지위를 천명하였다. 14차 전국대표대회는 11기 3중전회 이래 당의 기본적 실천과 기본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종합하였고, 덩동지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의 전체 당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정신문명 건설을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시키도록 명확하게 요구했다. 14차전국대표회 이래 장쩌민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 하에 덩동지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으로 전체 당을 무장시키고 철저하게 선전 및 관철시킨다는 당의 기본 노선과 기본 방침을 견지하였고, 학습 중시, 정치 중시, 바른 기풍 중시를 강조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했다. “과학에 의한 국가 발전”전략을 실시하였고, 과학기술과 교육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정확한 여론 지도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시켰으며, 주선율(主旋律)을 발양시켰다.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일군의 선진 모범을 두드러지게 선전하였고, 대중적인 정신문명 창조 활동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였다. 당 기풍과 청렴한 행정 건설 및 민주 법제 교육을 강화하였고,反腐败와 사회의 추악한 현상 타파 및 형사 범죄 타격 활동의 투쟁 강도를 강화하였다. 정신문명 건설이 거둔 적극적인 진전과 뚜렷한 효과는 개혁과 발전 및 안정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일부 지방과 부서의 영도 공작에서 사상 교육을 무시하고, 정신문명을 무시하여, “한 쪽은 비교적 강화되고, 다른 쪽은 비교적 약화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신생활 분야에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문제는 또 상당히 심각하다. 일부 영역의 도덕이 규범을 상실하여,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및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봉건적인 미신 활동

및 외설·도박에 의한 해독 등 추악한 현상의 적폐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조악한 가짜와 사기 활동이 사회의 공해가 되었다. 문화 사업은 소극적 요인의 엄중한 충격을 받아 청소년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물건들이 거둬진 금지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부패 현상이 일부 지방에 만연되어 당의 기풍과 행정 기풍이 큰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 사람들의 국가관이 희박해져, 사회주의의 앞길에 대해 곤혹감과 동요가 발생하였다. 정신문명 건설의 형세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8년 동안의 정신문명 건설의 주된 흐름을 보지 못하여 믿음을 상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문제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보지 못하여 경계심을 상실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전면적이고 역사적이며 발전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정신문명 건설을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전체적인 사업의 대국 가운데서 고찰해야만이 비로소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상상을 통일할 수 있으며, 정신문명 건설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증강시킬 수 있다.

(3)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대외 개방을 발전시키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당원과 중국 인민의 간절하고도 막중한 역사적 사명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립은 우리 나라가 경제 진흥과 사회 진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첫 번째 시도이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비단 사회주의 경제 제도 및 정치제도와 하나로 결합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하나로 결합된다. 우리 나라가 실천으로 이미 증명했듯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을 증강시키고,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며, 또한 사람들의 자립 의식과 경쟁 의식 및 효율 의식과 민주 법제 의식, 그리고 개척적 창조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한층 발휘되도록 한다. 동시에 시장 자체의 약점과 소극적 측면 역시 정신생활 가운데로 반영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수립과 완성은 반드시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며, 사람들이 경쟁과 협조, 자주와 감독, 효율과 공평, 우선 부유와 공동 부유,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효율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인도하고, 이익 때문에 정의를 망각하거나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첫 번째로 하고 다음에 공민 개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충분히 존중하는 사회주의 의리관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질서 있는 경제와 사회생활 규범을 형성하는 것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불가분한 것으로, 대외 개방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적인 국책이다. 국제적인 구조적 변동 가운데 기회를 잡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독립 자주적인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장대하게 하는 데 유리하며,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경영관리 방법 및 기타 일체의 유익한 지식과 문화를 흡수하고 이를 거울삼아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대외 개방에도 역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부패한 것들이 이를 기회로 들어올 수 있다. 사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유제 경제가 주도

적인 지위를 점하도록 확실히 보장하며 정권을 인민의 수중에 장악해야만, 또 4개 기본 원칙의 교육을 지속해야만이 정신문명 건설이 개혁 개방 가운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 장기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경제와 사회 생활에서 수많은 중대한 변동들을 이끌어 내며 체제와 법률 및 정책, 그리고 관리의 완성이 비교적 긴 하나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사회주의가 세계적 범위에서 심각한 곡절을 드러냈고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우세를 점하면서 가하는 압력과 서방의 이데올로기의 침투가 장기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며, 봉건 사회와 수직민지·수봉건적 사회가 남긴 부패한 사상과 소생산 습관 세력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성과 복잡성에 대해 충분한 사상적 준비가 있어야 하며, 정신문명 건설은 반드시 항상 꾸준히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세 하에서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당의 동지들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시험이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을 어떻게 상호 촉진시키고 협조, 발전토록 하며, 한 쪽은 강화되고 한 쪽은 약화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 및 극복하느냐 하는 것과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공동의 사상과 가치관 및 도덕 규범을 어떻게 형성하고, 부패한 사상과 추악한 현상의 성장과 만연을 어떻게 방지하고 억제하느냐 하는 것과,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의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을 맞이하는 상황하에서 외국의 우수한 문명의 성과를 어떻게 흡수하고 조국의 전통 문화의 정화를 어떻게 발안시키며, 저급한 문화의 전파를 어떻게 방지하고 청산하며, 우리에 대한 적대 세력의 “서구화” 및 “분열화” 음모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것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실하게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다.

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 사상과 투쟁 목표

(4)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당의 역사적 임무에 근거하고, 건국 이래 특히 개혁 개방 이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지침으로 하고, 당의 기본 노선과 기본 방침을 견지하며, 사상 도덕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과학·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적 이론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정확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고상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형상화하고, 우수한 작품으로 사람들을 고무시키며, 이상을 갖추고 도덕을 갖추고 문화를 갖추고 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공민을 육성하고, 모든 민족의 사상 도덕 소양과 과학 문화 소질을 제고시키며, 각 민족 인민들을 단결시켜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신문명 건설의 총체적인 지도 사상이자, 또한 정신문명 건설의 총체적인 요구이다.

(5)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와 현대 중국의 실제 및 시대적 특징을 서로 결합시킨 산물이며, 모택동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고,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이고, 새로운 시

기에 있어 우리 당의 각종 공작의 근본 지침이자 중화 민족 진흥의 강대한 정신적 지주이다. 이 이론을 전면적이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견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갖가지 위험한 시험을 겪어 내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보증이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은 정신문명 건설에 관한 매우 풍부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덩샤오핑 동지는 “우리들이 건설해야 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비단 고도의 물질문명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아울러 고도의 정신문명을 갖추어야 하고, 두 가지 문명이 다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이며, 현대화를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견지하면서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지, 한 가지만 갖추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정신문명 건설은 사상 도덕 건설과 교육·과학·문화 건설을 포괄하며, 인민을 교육하여, “네 가지(이상, 도덕, 문화, 기술)를 갖춘” 인민으로 만들고 간부를 교육하여 “네 가지를 갖춘” 간부로 만들어야 하고, 특히 청년을 잘 교육하고 후대를 잘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정신적 동력이고, 실사구시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수이며, 사상 해방과 개혁 개방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하고, 4개 기본 원칙 견지와 부르주아적 자유화에 대한 반대 역시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과정에서 견지되어야 하며, 자유화를 하는 것은 곧 중국을 자본주의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으로 안정되고 단결된 정치 국면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개혁 개방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인데, 개방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역시 일부 나쁜 것들을 수반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교육과 법률 수단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당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하고, 인류 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를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 하며, 봉건주의의 남아 있는 영향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침식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해야 하며, 우수한 과학자, 교육자, 문학 예술가 및 기타 각종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해야 하며, 사상·문화 및 교육 일선에 있는 동지들은 모두 마땅히 인류의 영혼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정치 공작과 사상 정치 공작 종사자들은 결코 쇠약해질 수 없으며, 사상적 측면의 부정확한 경향에 대해서는 설득 교육을 위주로 삼아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해야지 소홀히 하거나 불문에 붙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은 정신문명 건설에 대한 영도를 강화해야 하고, 반드시 매설계 장악하고 하루도 소홀함 없이 장악하되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장악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관건은 당 기풍 건설과 영도 간부가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개혁 개방 이래의 실천으로 증명되었듯이,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철저히 이해하고 덩샤오핑 동지의 정신문명 건설에 관한 사상을 성실하게 실천해야만 반드시 인민의 뜻과 시대적 요구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정신문명 건설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6) 우리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정신문명 건설은 경제 건설

을 중심으로 하여 4개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는 정신문명 건설이며,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양시키고 다시 시대정신을 충분히 체현시키며, 그 나라에 근거하여 다시 세계를 지향하는 정신문명 건설이다. 지금부터 15년 동안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주요한 목표는, 전체 민족 속에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공동 이상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당의 기본 노선을 흔들리지 않게 견지하는 굳은 신념을 확고하게 수립하며, 사상 도덕의 수양과 과학 교육 수준 및 민주 법제 관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민적 소양의 뚜렷한 질적 계고를 실현하고, 사회 기풍과 공공질서 및 생활 환경을 주요 지표로 하는 도시와 농촌 문명 수준의 뚜렷한 계고를 실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이 협조하여 발전되는 양호한 국면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당정의 주요 지도자가 친히 장악하여 각분야를 나누어 책임지는 영도 체제 및 공작 메커니즘을 건설하기 시작해야 하며, 실제 공작에서는 정신문명 건설을 무시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건설에서 방침을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여 장기 목표를 단계적인 임무와 결함시켜 나가면서 금후 5년 간의 공작을 적절하게 해내야 한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착안하여 현재 정신문명 건설 가운데 간부와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문제들을 성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당정 기관과 간부 대오 가운데 존재하는 소극적 부패 현상을 확실하게 제지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부지런히 행정하고 실제로 힘쓰며 청렴하게 밀사봉공하는 우수한 당 기풍과 행정 기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직업의 부정적 풍조를 단호하게 바로잡고, 가짜 위조와 사기 행위에 반대하며, 직책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며 대중을 편안하게 하고 뛰어나게 봉사하는 직업 존중 정신을 힘써 길러야 한다. 세 번째는 도덕과 도박에 의한 해독 등 사회의 추악한 현상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봉건적인 미신 활동을 반대하며, 문명적이고 건전하며 과학을 숭상하는 사회 기풍을 형성한다. 네 번째는 문화적 쓰레기를 제초하고 전파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금지하고, 우수한 정신적 산물들이 대량으로 끊임없이 배출되고 문화 시장이 활발하면서도 질서 있게 번영하는 모습을 대체적으로 드러낸다. 다섯 번째는 일부 지방의 사회 치안이 좋지 않고 환경이 더럽고 어지러우며 나쁜 상황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더욱 많은 문명적인 마을과 문명적인 도시를 창조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총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정하고, 성실하게 구성하여 실현해야 한다. 건설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 새로운 면모로 21세기에 진입하도록 한다.

三. 전체 민족의 사상 도덕 소양을 노력하여 제고한다.

(7) 사회주의 사상 도덕은 정신문명 건설의 성결과 발향에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으며,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대해 거대한 능동적 역할을 갖고 있다.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전체 과정 가운데 사상 도덕의 기본적인 임무는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견지하고, 사회의 공동도덕과 직업 도덕 및 가정의 미덕 건설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이상과 정확한 세계관 및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의 실현이므로 마땅히 전체 사회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 도덕을 성실하게 제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진보적인 요구를 광범위한 요구와 결합시켜 나가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모든 사상 도덕과 국가의 통일 및 민족의 단결, 사회의 진보에 유리한 일체의 사상 도덕, 그리고 진선미를 추구하고 거짓과 악과 더러움을 억제하며 정기를 발양시키는 데 유리한 모든 사상 도덕,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한 노동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쟁취하는 데 유리한 모든 사상 도덕을 고무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억만 인민이 전체 민족의 사상 도덕 수준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끊임없이 제고하도록 단결시키고 인도해야 한다.

(8) 사상 건설 강화는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사상, 특히 鄧小平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견지하여 전체 당을 무장하고, 간부와 인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사상의 해방과 實事求是라는 이런 精髓를 확고히 장악해내고, 무엇이 사회주의이고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가라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론을 실제와 연계되도록 견지하면서 이 이론의 학습과 연구 및 선전을 추진하여 철저하게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광대한 간부 대중이 사회주의 발전 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가의 운명과 전도를 정확히 인식하며, 사회주의 문제에서 잘못된 관점과 모호한 인식을 해명하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신념을 굳게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각급 영도 간부들은 앞장서서 이 이론을 완전히 학습하고, 鄧小平동지의 전략적 사상과 이론적 관점을 성실하게 학습하며, 그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과 관점 및 방법을 운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태도와 창조적 정신을 성실히 학습하며, 이론의 학습 체계와 정신의 실질을 노력하여 장악하고,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견지하고, 자신의 사상·정치적 소질을 부단히 제고하고, 전반적인 국면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9) 애국주의의 역사는 중국 인민이 단결하여 분투한 한 폭의 깃발이다. 현대 중국에서 애국주의가 사회주의와 더불어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실천에 유기적으로 통일된 것은 전국 인민이 민족 진흥을 실현하도록 고무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애국주의 교육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회주의를 해아만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사회주의를 해아만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진리를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돕고, 전체 사회에서 自尊과 自信, 自強의 민족정신을 발양시킴으로써 모든 역량을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고 보위하는 데 바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고, 국가 이익과 국가의 존엄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성취와 위대한 목표, 중국의 근대화와 현대사 및 中國共產黨의 기본적인 國情, 중화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혁명 전통, 민족 단결과 조국 통일, 국방과 국가 안전을 새로운 시기 애국주의 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대중매체와 서적 및 간행물, 시각 매체, 예술 공연과 교실 수업을 운용하고, 중요 기념일과 중대한

역사적 사건 및 중대한 사회 활동을 운용하고, 국기 제양과 국가 제창 등의 의식을 운용하여 애국주의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각 지역은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국가는 일군의 중점 기지를 확정해야 한다.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옹호하는 교육 가운데서 당의 민족 정책과 종교 정책을 견지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민족관과 종교관을 선전해야 한다.

(10) 전체 민족 속에 간난신고의 창업 정신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사상적 보증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로 경제·문화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고, 창업시기에 처해 있다. 위대한 창업의 실천은 위대한 창업 정신을 필요로 한다. 즉,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크게 개선시키려면 여전히 이러한 정신을 유지하고 발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광대한 간부 대중 가운데서 간난신고의 창업 정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國情을 정확히 인식하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장기적이고도 막중한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며, 근검하여 나라 건설하고 근검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사상을 확고하게 수립할 뿐 아니라, 각고의 분투정신으로 치국책을 도모하며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고 스스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시키도록 해야 한다. 각급 당·정 기관과 모든 기업 및 사업 단위들은 모두 힘껏 절약하고, 낭비에 반대하며, 격식과 사치 모방 및 공급 낭비를 엄금해야 한다.

(11) 사회주의 도덕 건설은 인민에 대한 봉사를 핵심으로 하고, 집체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조국 사랑과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및 사회주의 사랑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사회 공중도덕과 직업 도덕, 가정의 미덕 교육을 전개하여 전체 사회에 단결과 상부상조, 평등 우애, 공동 전진의 인간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인민을 위한 봉사는 사회주의 도덕의 집중적인 체현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조건하에서는 전체 인민 가운데서 인민을 위한 봉사와 집체주의의 정신을 더욱더 제창, 사람 존중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제창하고, 집단을 더 사랑하고, 공익에 더 열심이며, 빈곤을 더 도와주고, 인민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배급주의와 향락주의 및 개인주의를 한층 더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 경제활동 가운데서 국가는 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합법적인 경영과 성실한 노동을 통해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도록 고무 격려한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에 대해 책임지며, 국가와 집단 및 개인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소집단주의와 자기본위주의를 반대하며, 공적인 것에 손해를 입히면서 사적인 것을 살피우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반대하도록 인도한다. 경제활동 속의 상품 교환 원칙을 당의 정치 생활과 국가기관의 정부 활동에 도입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한다.

사회주의 도덕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문명적인 예절과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 공공 기물에 대한 애호, 환경 보호 및 기술과 법을 준수하는 사회 공중도덕을 힘껏 창도하고, 직무에 대한 사랑과 직업에 대한 존경 및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것, 공정한 일 처리, 대중에 대한 봉사,

그리고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직업 도덕을 힘껏 창도하며, 노인 공경과 어린이 사랑 및 남녀평등, 부부 화목, 근검한 가계 운영, 이웃과의 단결이라는 가정 미덕을 힘껏 창도한다. 지금은 직업 도덕 건설 강화와 바르지 못한 업무 풍조의 교정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12) 청소년에 대한 사상 도덕 교육의 강화는 국가의 명운에 관계되는 큰 일이다. 청소년이 원대한 이상을 수립하고 양호한 품성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각급 각종 학교들은 모두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하고, 사회주의 교육 실시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도덕교육 공작을 강화해 하고, 지·덕·체 등의 분야가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배양 육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대학과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의 상이한 특성에 근거하여, 사상 품성 과정 및 정치 이론 과정을 적절하게 강화하고, 지식 전수를 정서 도야 및 양호한 행동 습관 배양과 결합시켜 나가고, 개인의 자기 완성을 국가의 미래 및 사회적 요구와 결합시켜 나가고, 애당·애국 및 집단에 대한 관심, 스승과 어른에 대한 존경, 근면호학, 단결과 상호 협조, 기술과 법준수의 기풍을 형성시킨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생산 노동과 사회의 실천에 참가시켜, 그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국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조국을 건설하고 中華를 진흥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을 증강시키도록 한다. 共青团과 소년선봉대가 광대한 청소년을 단결시키고 진보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희망 공작”과 “청년 지원자” 및 “손에 손잡고” 등의 활동을 철저하게 전개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정신을 발양시킨다. 청소년 교육중에서 원로동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전체 당과 전체 사회는 모두 청소년 사상 도덕 건설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는 밀접하게 결합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13) 사회주의 도덕 기풍의 형성과 공고화 및 발전은 교육에 의지해야 하며, 또한 법률 제도에 의지해야 한다. 전체 인민 속에서 헌법과 법률 준수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법률 상식을 보급해야 하며, 민주적인 법제 관념을 강화해야 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업무와 생활에 관련 있는 법률을 알도록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하도록 해야 하고, 법률적인 무기를 운용하여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와 투쟁하는 데 능하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유관 법률, 법규와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법에 근거하여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제재 및 소탕해야 하며, 법은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률 위반은 꼭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교육과 법률, 행정 및 여론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양호한 행위 습관의 모범을 세우고 배양하며, 문명적이지 못한 행위를 단속하고 제지하며, 정의를 조장하고 사악함을 제거하며 선을 발양시키고 악을 징계하는 사회 기풍을 형성한다.

<다음 호에 계속>

번역/ 김 인 · 중소연구소 연구원

출처/『中蘇研究』 통권 71호 제공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우 137-069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선교서안내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저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저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저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1,000원) | 1,500원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5,000원 |
| 6. 中國語 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19개:25,000원) | 12,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 900원 |
| 8. 중국어 친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 30,000원 |
| 9. 중국어 찬양 Tape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是愛(사랑은)
◆ 奉主耶穌的名 | 4,000원
4,000원
3,000원
3,000원 |
| 10.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1. 讚美歌 | 5,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개자 소개

真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틀(J.R.W. Stott) 저/ 시에쓰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틀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충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개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개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심영아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8년 3·4월호(통권50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선·김종하·김피득
왕쓰웨이·지민성·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이민선·김은희·안정숙
편집디자인/ 안상희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8년 2월 20일
인쇄처/ 친구인쇄 ☎ 02) 275-5963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 ~4
값/ 4,500원
(1년 정기구독 24,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B01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세요.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m.co.kr/sinim>

☆ PC 통신 온라인, 하이텔 sin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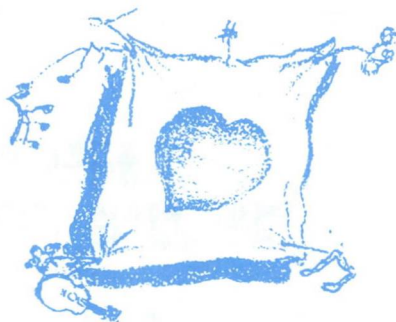
편 집 후 기

얼마만큼의 긴 겨울나기를 견뎌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요즘의 우리들.

본 선교회는 고심 끝에, <중국을 주께로> 지의 지면을 할 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줄이기로 결정, 중국선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글을 중점적으로 싣고, 중국 영화 감상 등, 부차적인 글들의 연재를 잠시 중단함으로써 '지면을 줄여', 출판비의 절감을 꾀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물론 선교의지의 축소가 아니요, IMF 시대에 더욱 앞장 경영을 위한 자구책임을 독자들에게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봄은 겨울이 있어 더욱 찬란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는 주님의 크신 손 아래, 이 IMF한파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기고, 그 어느때보다도 찬란한 봄을 맞으리라 소망해 본다.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24,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36,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1,400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4,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43,2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55,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1998년 3.4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24,000원(6권) ☐ 2년 48,000원(12권) ☐ 3년 72,000원 (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통 반) 출석 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중국을 주께로 월례 기도합주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당신은 중국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국 선교의 닫힌 문에 기도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감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 이제,

『중국을 주께로』 월례 기도합주회가 98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두팔을 붙잡았던 “아론과 훌”처럼 중국어문선교회가 여러 분의 헌신을 붙들고 기도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로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 나갈 기도의 용사들을 초대합니다.

시 간: 매주 셋째 월요일(저녁 6시 30분~8시 30분)

장 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문 의: 중국어문선교회 선교국 ☎ 594-8038

잠깐!! 그 외

매주 첫째, 둘째, 넷째 월요일은 저녁 6:30~8:30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유성당) 402호
전화: 02)592-0132, 594-8038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천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 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02)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